

교과서연구

제 51 호

2007. 8

차 례

- 발행처 / 한국교과서연구재단
- 발행인 / 박현수
- 편집기획위원장 / 김만곤
- 편집기획위원
김병규, 김대원, 김정호,
윤광원, 최해홍, 홍후조
- 편집협력위원(사·도 교육청)
김광화(서울), 전미순(부산),
권충현(대구), 최은아(인천),
권도연(광주), 최재천(대전),
이종문(울산), 김국희(경기),
고경식(강원), 정진구(충북),
이희원(충남), 홍진석(전북),
박광춘(전남), 이진관(경북),
김영범(경남), 양영선(제주)

권두언

교육 사회의 갈등과 교육자들의 역할 / 박배훈 4

특별 기획

디지털 교과서의 가능성 탐색

미래 교육과 디지털 교과서 / 임광빈 6

디지털 교과서의 개념과 가능성 탐색 / 손병길 13

디지털 교과서 도입의 문제점에 대한 소고 / 윤석희 20

교과서의 디지털화가 출판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소고 / 조성준
..... 27

디지털 교과서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역기능 탐색 / 성운숙
..... 33

현장 교육

어머님들의 높은 요구에 부응하는 학교로 / 김병규 38

논 단

국가 교육과정 기준 개발에서 사회적 요구 분석 / 백경선 42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바람직한 사회과 교과서 개발
/ 한춘희 47

연 재

프랑스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정책 / 김차진 51

* 표지 글씨 : 신두영

* 편집·디자인 : 대한교과서(주) 편집팀

교과서 편집자의 변

새책시 같은 마음으로 시작한 교과서 편집 / 이상원	60
교과서 편집 기획자 입문기 / 김용묵	64

나의 제언

교과서 바로 보기 / 신순용	68
교과서와 수능의 관계 / 윤보근	72

탐 방

오늘의 교과서 출판인(22) - 고영목 / (주)도서출판 디딤돌 사장	76
--	----

자 료

교과용 도서 개발 추진 일정	80
초 중등학교 교과용 도서의 구분 고시	81

■ 연구재단 소식	87
■ 교과서 개별 구입 안내	88
■ 「교과서연구」 원고 모집 안내	89
■ '교과서정보관' 이용 안내	90

· 「교과서연구」는 한국도서잡지 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내용은 본 재단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주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 1동 1018-2 세원 빌딩 4층

· 홈 페이지 : www.ktrf.re.kr

· 전화 : (02) 2651-1950, 팩스 : (02)2651-1954, E-mail : editor@ktrf.re.kr

오늘날 우리 사회는 물질 만능주의 경향과 함께 가정, 학교, 사회를 비롯한 공동체 해체, 윤리 도덕적 이탈로 인한 가정의 해체, 학교 폭력과 청소년 문제, 각종 범죄, 실업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동시에 우리 사회는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인간 삶의 본질적 의미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가치와 방향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 삶의 기반인 생명 존중과 사랑, 정의, 평안과 행복을 위협받고 있다.

또, 교육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염려가 크다. 교장 등 학교 경영자, 교사, 학부모 및 교육 행정가 등 교육 공동체의 구성원이 서로 반목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대립, 갈등하는 현상이 교육 사회의 모습으로 가끔 비추어지기도 한다. 갈등의 양상도 교육 문제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교직 단체 간의 갈등, 교육 행정 기관 간의 갈등 등과 같이 집단의 관심과 이익에 따라서 교육 집단들이 상호 대립, 경쟁, 투쟁하고 있으며, 교육 당국이 교육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 공동체 간에 많은 갈등 양상이 야기되기도 한다.



교육 사회의 갈등과 교육자들의 역할

글 박배훈(한국교원대학교 총장)

우리 교육 사회의 갈등의 원인은 거시적으로는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공간이 확대되어 가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욕구 분출이라는 환경적 요인에서 찾아야 하겠지만, 미시적으로 보면 교육 개혁을 둘러싼 교육계 내부의 구성원 간의 이익 갈등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즉, 교육 공동체 구성원 간의 교육 이념적 갈등, 민주주의 욕구 분출, 열악한 교육 환경, 구성원의 권익 확보, 교육 정책의 혼선 등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회나 갈등은 있게 마련이고, 그 갈등을 해소하면서 발전한다. 갈등이 없는 조직은 활력이 없으며, 생산적이지도 효과적이지도 못하다는 지식을 상기해 보면, 어느 정도의 갈등이 교육 공동체 내에 존재한다는 것은 더 큰 발전을 기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교육 공동체의 갈등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갈등의 해법이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므로 갈등을 해소하는 방식은 결국 교단 갈등의 교육 주체의 능력과 태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들을 경험하면서, ‘과연 우리의 삶, 우리의 후세 교육, 우리의 가정과 사회, 자연 환경, 그리고 세계 공동체가 이대로 좋은가?’ 라는 자성적 질문과 함께 미래 지향적

이고 가치 창조적인 삶과 건강한 후세 교육, 그리고 더불어 사는 복지 사회를 위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자성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무너진 교육 공동체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다시 확립하고, 학교가 교육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교육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일이야말로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상대 역할 존중과 이해 증진, 교육 정책의 신뢰성 확보, 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인성 교육의 강화, 건전한 교육 공동체 문화 형성, 교육 재정의 확충 등이 요구된다. 그리고 교육의 진정한 의미를 재해석하고 교육 공동체 구성원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교육은 사람다운 사람, 즉 참사람을 기르는 일이며, 교육의 목표는 행복을 추구하고, 지혜를 완성하며, 보다 나은 가치를 창조하는 데 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교육의 성과는 개인적 차원에서는 꿈과 행복을 실현하는 일이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신뢰와 화합을 도모하는 일이고, 국가적 차원에서는 국가의 번영과 영광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을 맡은 우리들의 책임은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자신과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함으로써 행복한 사회를 이루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관용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가족 공동체를 조화롭게 만들고, 더 나아가 학교와 사회 공동체의 조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면 삶의 즐거움과 기쁨은 더욱 충만하지 않을까 싶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갈등과 대립 속에서 서로 간에 아픔을 주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 교육계의 갈등과 혼란이 그 실상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도 결국은 각자의 마음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요즘같이 갈등과 불화가 난무한 세상에서 나 자신을 깊이 성찰하며, 나에게 갈등과 불화의 요소가 없는지 되짚어 보아야 하겠다. 갈등과 불화는 내 안에 아상(我相)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상이란 나에 집착하는 이기적 마음이다. 나만이 옳고 나만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자만심을 아상이라고 한다. 이러한 편협한 집착은 자신의 참모습을 이해하는 데 큰 장애요인이 된다. 우리는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총체적으로 살펴보면 ‘절대 선’도 ‘절대 악’도 없고, 다만 사람들의 생각이나 관념이 서로 다를 뿐이다. 나를 다스리는 일이 참으로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노력하여 나와 다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인정과 이해의 폭을 넓혀 가야 할 것이다. 그것이 너와 내가 아닌 우리가 함께 이 세상을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혜일 것이다.

학생들이 이러한 지혜를 가져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육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디지털 교과서의 가능성 탐색

미래 교육과 디지털 교과서

글 임광빈(교육인적자원부 교육행정사무관)



지난 3월 7일 교육인적자원부는 ‘디지털 교과서 상용화 추진 계획’을 통해, 미래 교육 환경에 적합한 고품질 디지털 교과서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사업 추진을 위해 디지털 교과서추진팀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개발에 나섰다. 2011년까지 디지털 교과서 시범 개발과 개발된 제품의 실험 학교 효과성 검증을 통해 2012년 이후 상용화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 사업의 출발로 올해는 초등학교 5학년 9개 과목을 대상으로 현재 원형(prototype) 개발 사업자를 선정하여 9월까지 원형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후 개발된 원형에 대한 평가를 통해 내년도 실험 학교에 적용할 디지털 교과서 본 제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계획 발표 후 디지털 교과서 개발에 대한 희망과 우려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나오는 가운데 사업을 추진하는 실무자로서 디지털 교과서 개발 정책 추진 방향과 가능성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I. 디지털 세대(Digital Natives)와 디지털 교과서

현재의 학생들은 기성 세대(Analog Natives)와 차별화된 학습 특성과 환경을 가지고 있는 디지털 세대(Digital Natives)이다. 그들은 책보다는 컴퓨터에 익숙하며, 항상 핸드폰을 손에서 놓

지 않고 친구들과 인스턴트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자신의 미니 홈페이지와 블로그 관리에 시간을 보낸다. 이들은 엄청난 정보의 홍수 속에서 멀티태스킹(multi-tasking)에 능숙하며, 인터넷을 통한 즉각적인 상호 작용 속에서 신속한 반응을 추구하는 세대이다.

디지털 교과서 개발 사업은 이러한 학생들의 특성에 적합하고,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자는 의미에서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우리 학교 교육을 책임져 왔던 서책형 교과서는 그 장점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사회 환경 변화와 지식의 생명 주기가 단축되는 지식 정보 사회에서 그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

현행 서책형 교과서로는 디지털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교육과정을 수시로 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러한 변화에 맞추어 교과 내용을 적시에 보완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점이 있다. 또, 한정된 교과서 한 권으로 학습자의 다양한 학습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 창의적 인재로 육성하기에는 이제 한계 상황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서책형 교과서의 한계로 지적되는 속보성과 시각적 효과의 부족, 흥미 유발의 부족, 정보량의 제한성, 공간의 제한성, 배포 시간의 지체 현상 등을 뛰어넘고자 하는 고민이 디지털 교과서 상용화 계획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

현행 서책형 교과서로는 디지털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교육과정을 수시로 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러한 변화에 맞추어 교과 내용을
적시에 보완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점이 있다.
또, 한정된 교과서 한 권으로 학습자의 다양한 학습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
창의적 인재로 육성하기에는 이제 한계 상황에 도달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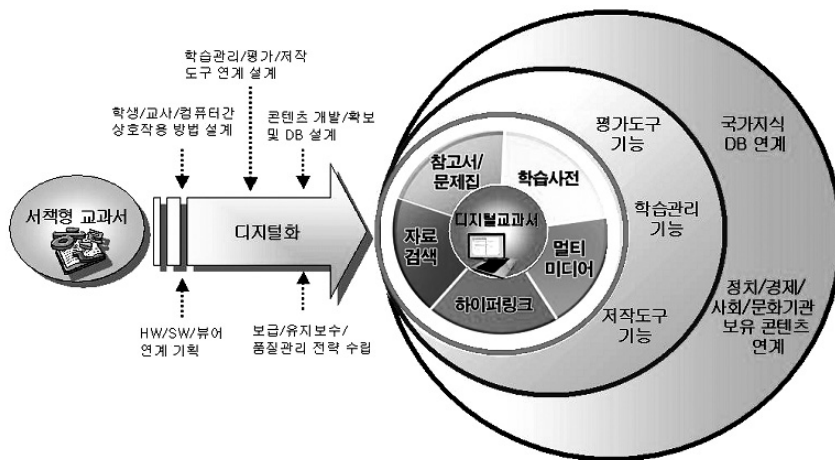
.....

렇다면 과연 디지털 교과서란 무엇이며, 기존의
서책형 교과서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정의하는 디지털 교
과서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 디지털 교과서(Digital Textbook)란?

- 학교와 가정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 기존의 교과서, 참고서, 문제집, 용어 사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 이를 동영상, 애니메이션, 가상 현실 등의 멀티미디어와 통합 제공하며,
- 다양한 상호 작용 기능과 학습자의 특성과 능력 수준에 맞추어 학습할 수 있도록 구현된 학생용의 주된 교재이다.



【그림 1】 디지털 교과서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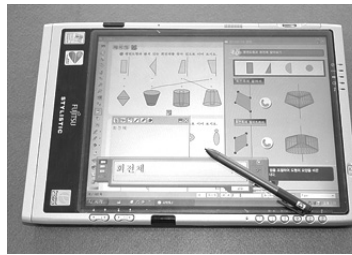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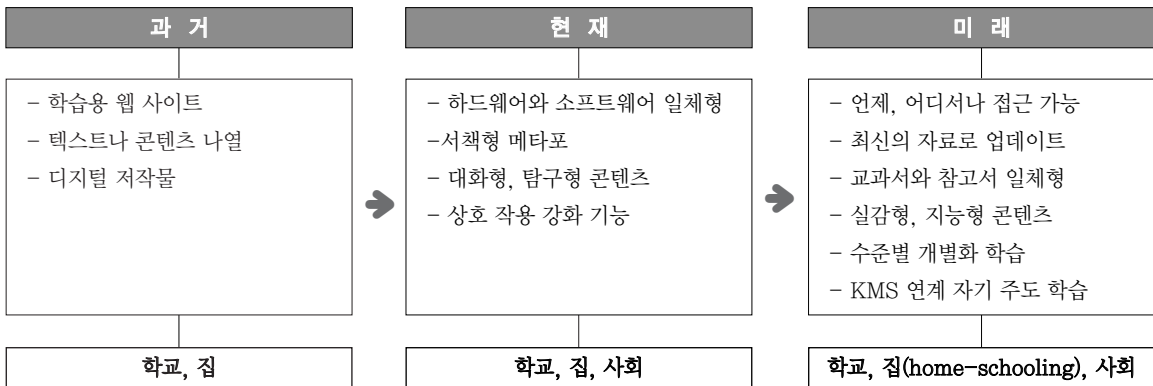
디지털 교과서는 교과서 내용을 디지털 데이터를
이용하여 전자 매체에 수록한 뒤 유 무선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고,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한 교과서를 말한다. 디지털 교과서는 기

존 서책용 교과서의 내용은 물론, 참고서, 문제집,
학습 사전 등 방대한 학습 자료를 포함할 수 있다.
또, 문서 자료뿐만 아니라 동영상, 애니메이션, 가
상 현실, 하이퍼링크 등 첨단 멀티미디어 기능을

통합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사회 각 기관의 학습 자료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폭넓은 학습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존 서책용 교과서와 흡사한 필기, 밑줄, 노트 기능도

있고, 학습자의 능력에 맞춘 진도 관리, 평가 기능을 가지고 있어 학생들은 교과서만으로도 자신의 적성과 수준에 맞춘 개별 학습을 할 수 있다.

【표 1】 디지털 교과서의 발전 방향



디지털 교과서는 서책형 교과서의 장점을 수용 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표 2】 디지털 교과서와 서책형 교과서의 비교

구 분	디지털 교과서	서책형 교과서
자료 유형	○ 서책형 자료 외에 소리, 동영상, 애니메이션, 가상 현실 등 멀티미디어 학습 자료	○ 텍스트와 이미지 중심의 평면적이고 선형적인 학습 자료
자료 변환	○ 새로운 사회/교육적 사실과 지식을 신속하게 반영	○ 자료가 고정되어 변환이 어려움.
자료 수집	○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교육 자료나 데이터베이스(DB)와 연계 활용	○ 교과서 외의 자료를 찾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 ※ 교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보조 자료 제공 미흡
내용 전달 매체	○ 정보 기기(TPC/테스크탑 PC)	○ 인쇄 매체
다른 교과와의 관계	○ 교과 내 학년 간, 타 교과 연계 학습 가능	○ 교과 간 서로 단절된 개별적인 학습 교재
학습 방법	○ 교사, 학생, 컴퓨터 간 다방향 학습 가능	○ 지식 전달 위주의 단방향 학습
수업 효과	○ 학생 중심 수업 활동과 자기 주도 학습 실현	○ 학습자의 능력에 따른 수업이 어려운 일제 수업

.....

디지털 교과서는
교과서 내용을 디지털 데이터를 이용하여 전자 매체에 수록한 뒤
유 무선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고,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한 교과서를 말한다.
디지털 교과서는 기존 서책용 교과서의 내용은 물론,
참고서, 문제집, 학습 사전 등 방대한 학습 자료를 포함할 수 있다.

.....

서책형 교과서와 차별되는 장점 때문에 디지털 교과서는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교과 내 학년 간, 타교과 연계 학습 등 통합 학습이 가능하게 하는 등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준다. 이러한 점에서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은 지금까지의 서책 교과서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초 중등학교의 교수 학습 체제 전반을 혁신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교과서 상용화 추진 원년으로 올해 추진되는 사업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Ⅱ. 디지털 교과서 개발 추진 방향

첫째,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는 최적 원형

(prototype) 개발을 우선 추진한다. 디지털 교과서의 최적 모형 개발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비교 연구를 위한 원형 개발은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원형 개발 절차를 거칠 경우에 이해 관계자의 합의와 검증이 가능하며, 본 제품 개발 전 시제품의 사전 비교 및 평가를 통해 실패 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으며, 본 제품 개발 단가 산정을 예상할 수 있어 합리적 비용 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 중 장기적 관점에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시험 개발 및 적용 → 효과성 검증 → 개발 과목의 점진적 확대 → 상용화 추진’ 등 점증적 절차와 성공 사례 확산을 기반으로 내실 있는 개발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표 3】 디지털 교과서 상용화 중 장기 추진 전략

추진 단계	주요 추진 내용
1단계 (2007~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 개발 및 적용을 통한 우수 콘텐츠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콘텐츠 시험 개발 및 적용을 통한 효과성 검증으로 사업 목적에 맞는 최적의 우수한 콘텐츠 개발 ○ 디지털 교과서의 기능 및 활용 방안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책형 교과서에 대한 대체 또는 보완 등
2단계 (2010~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교과서 상용화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용화 관련 법 제도 개선 추진, 단말기 및 인터넷 등 인프라 구축 방안 수립, 교사 연수 방안 수립 등 - 콘텐츠 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디지털 교과서 확대 개발 - 디지털 교과서 표준화 및 편찬 검정 지침 개발
3단계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용화 방안 수립 및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 분석 및 관련 예산 확보 등 재정적 측면의 실현 가능성 검토 후 전면적 또는 단계적 상용화 추진

셋째, 콘텐츠가 하드웨어 개발을 선도하도록 추진한다. 급속한 기술 발달에 따라 인터넷과 단말기 등 하드웨어의 기술 수준과 가격에 대한 단기 내 가시적 예측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먼저 적정 콘텐츠 개발 및 표준 사양을 제시하여 기업들이 상용화에 대비한 다양한 단말기 등을 개발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넷째, 지속적 의견 수렴 및 홍보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국제 컨퍼런스, 공청회, 연구 학교 등 검증 절차를 통해 사업 추진 필요성에 대한 관련 전문가와 교사 등 국민들의 이해를 확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용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다섯째, 산 학 연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콘텐츠 공동 개발, 유관 부처 협조 체제 구축 등 범국가적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과 같은 추진 방향을 가지고 올해 초등학교 5학년 9개 과목 원형(prototype) 개발 사업을 이미 착수하였으며, 연구 학교 적용 및 평가를 통해

본 제품 개발 과목을 결정하고 개발에 들어가게 된다. 개발된 과목은 내년 1학기 20개 연구 학교에 적용될 예정인데, 구체적인 올해 사업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Ⅲ. 2007년도 디지털 교과서 주요 추진 사업

1. 디지털 교과서 콘텐츠 개발

올해 초등학교 5학년 9개 과목(이미 개발된 수학 과목 제외) 원형 개발 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다. 교과 전문가, 교수 설계 전문가, 개발 전문가 등의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9개 과목을 3개 과제로 공모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이들 업체는 9월까지(단, 3과제는 10월) 원형을 개발하게 된다. 이후 연구 학교 적용 등을 통해 전문가와 현장 교사들의 평가를 받게 되는데, 과목별 평가를 통해서 디지털 교과서로 개발하는 것이 효과성과 활용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과목의 경우에 디지털 교과서 본 제품 개발에 들어간다.

【표 4】 디지털 교과서 원형 개발 사업자 선정 현황

구 분	대표 사업자	공동 사업자
1과제(국어, 과학, 미술)	(주)크레듀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주)지학사, EBS, (주)브이알포토, (주)다올소프트
2과제(사회, 실과, 음악)	(주)케이티	대한교과서(주), (주)아이오시스
3과제(영어, 체육, 도덕)	(주)SK C&C	(주)위즈시스템, (주)사이버엠비에이, (주)해솔교연

디지털 교과서 본 제품 개발은 내년도 연구 학교 운영을 위해 2008년 2월 말까지 1학기 분량을 개발하게 되며, 2008년 6월 말까지 2학기 분량을 개발할 예정이다. 디지털 교과서 개발시 고려 기준으로 첫째, 기존의 e-러닝 콘텐츠와 차별화되는 교수 학습 활동을 위한 교과서로 개발해야 한다는 점(디지털 교과서도 엄연히 교과서이다.), 둘째, 교과 내용 학습보다 활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별도의 훈련이 우선되는 주객전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수요자가 가장 활용하기 쉬운 형태로

개발해야 한다는 점, 셋째, 호환이나 업그레이드가 지속 가능하도록 하여 매번 총체적 개발이 아니라 부분 수정만으로 질적 수월성이 확보되도록 특정 업체의 기술이나 시스템에 종속되지 않도록 개발해야 한다는 점이다.

2. 디지털 교과서 연구 학교 운영

디지털 교과서 상용화에 앞선 시범 적용으로 사업 추진상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교사 학생 등 실제 수요자의 의견 수렴 및 요구 사항 반영을 통

해 디지털 교과서 개발 및 활용의 현장 적합성을 제고하고,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효과적인 교수 학습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 학교를 운영 중에 있다. 올해 연구 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총 13개 학교로, 기 개발된 수학 과목의 효과성을 실험하기 위한 기존의 네 개 연구 학교(대전 탄방초등학교, 충북 산외초등학교, 진주 남강초등학교, 여수 백초초등학교)와 올해 선정된 장애 학생의 디지털 교과서 연구를 위한 부산맹학교 1개 학교, 기존의 u-러닝 연구 학교 8개 학교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는 기 개발된 초등학교 5, 6학년 수학 과목의 효과성을 실험하게 되며, 내년에는 20개 학교를 연구 학교로 지정하여 올해 개발될 초등학교 5학년 과목들을 적용할 예정이다.

3. 관련 정책 연구 추진

올해, 디지털 교과서 연구 학교 실험을 통한 효과성 분석 연구, 디지털 교과서 표준화 추진 방안 연구, 장애 학생을 위한 디지털 교과서 개발 및 활용 방안 연구의 세 개 정책 연구를 연구 학교 운영과 관련지어 추진하고 있다.

4. 국제 컨퍼런스 개최

올 가을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코엑스(COEX) 컨퍼런스 홀에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 제1, 2과제의 원형 개발 사례를 발표하고 국내외 전문가 평가를 통해 국제적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의 디지털 교과서 개발 사례 및 성과에 관한 경험도 공유할 예정으로 디지털 교과서 개발 경험이 있는 싱가포르나 요르단, 스위스 등의 디지털 교과서 시연이 있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디지털 교과서의 현 수준과 상용화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컨퍼런스는 교육인적자원부 e-러닝 세계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기존 국제 컨퍼런스의 핵심 주제로 개최되며, e-

러닝 국제 박람회와 동일 시기에 개최하여 홍보 등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할 예정이다.

IV. 디지털 교과서 상용화 가능성

디지털 교과서 사업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첫째, 예산 확보 측면이다. 특히 상용화시 의무 교육 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디지털 교과서 단말기까지 국가가 보급을 해 주어야 할 텐데, 현재 태블릿 PC(TPC, Tablet PC)의 가격을 고려했을 때 막대한 재정 소요가 예상되어 신중한 추진이 요구된다는 것이 그것이다. 둘째, 학생들의 건강 문제이다. VDT 증후군(Visual Display Terminal Syndrome: 컴퓨터 단말기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인터넷 중독의 문제가 그것이다. 이외에도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기는 하지만, 교육인적자원부는 앞에서 밝혔듯이 디지털 교과서 원형 개발, 연구 학교 운영, 정책 연구 등을 통해 제반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 후에 단계적으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추진할 것이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미래 교실을 상상해 보자. 교육인적자원부는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유비쿼터스 기반의 미래형 교실 체험을 목적으로 지난 6월 29일 u-Class 개관식을 가진 바 있다. 미래 교실에서는 전파식별(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방식으로 출석 체크를 하며, 학생증에 내장된 RFID로 전자 사물함을 열어 태블릿 PC(TPC)를 충전하며, 교사는 전자 칠판을 통해 수업을 한다. 학생들은 매직미러를 통해 평상시에는 거울로 활용하며, 필요할 때는 다가서거나 터치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다. 이러한 일들이 먼 미래의 모습이 라고 생각하는가? 지금처럼 미래 교실에서 서책

형 교과서를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분명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디지털 세대를 위한 미래 교실이 현실화될 것이다. 유엔 미래 포럼의 제롬 글렌(Jerome Glenn, 60세) 회장은 Cyber Now라는 개념을 통해 20년 후쯤이면 모든 학생들의 가상 현실을 통한 교육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의 놀라운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꼭 20년 후가 아니라도 그런 미래가 다가올 것은 분명하다.

1997년부터 추진된 제1, 2단계 교육 정보화 추진 계획에 따라 우리 교육은 전세계에서 최고의 교육 정보화 인프라를 갖추 수 있었다.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디지털 교과서 상용화 기반을 훌륭히 갖추고 있으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교육인적자원의 의지는 확고하며, 국민의 기대 또한 크다. 디지털 교과서의 상용화 성공시 그 파급 효과는 엄청날 것이다. 경제적 효과는 물론이거니와 지금까지의 교수 학습 체계를 혁신하게 될 것이다. 디지

털 교과서로 공부하는 우리의 학교는 교실의 울타리를 넘어 어디서나 격차 없는 학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장애에 의해 제한받는 학습 자원에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누구나 지역에 관계 없이 격차 없는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인수 학급에서 오는 학습자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누구나 학습에 참여하는 활기차고 살아 숨쉬는 교실을 만들 것이다.

디지털 교과서는 우리 교육의 미래를 여는, 첨단 교육의 평등화를 실현할 중요한 학습 도구이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의 기초 연구를 토대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시범 적용을 통해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와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장치와 기간을 두었다. 티끌 만한 것이라도 우리 국민들이 가질 수 있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교과서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모든 정책과 조언을 겸허히 받아들여 추진한다는 마음으로 디지털 교과서 개발 사업이 추진된다면 대한민국발 교육 혁명은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연



【그림 2】 디지털 교과서로 변화하는 학습

디지털 교과서의 가능성 탐색

디지털 교과서의 개념과 가능성 탐색

글 손병길(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제협력 연구센터 소장)



I. 서론

우리는 지금까지 교과서의 내용을 나타내는 글과 그림 등을 보며 학습하고 있다. 이 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으면 여러권의 참고서와 문제집을 보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식의 생명 주기는 점점 짧아지고, 지식의 생산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도 손쉽게 널리 있는 정보를 창조적으로 수집, 활용하지 못하고 여전히 지식을 암기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교과서에 실려 있는 내용을 금과옥조로 생각하며 학습하고, 달라진 내용이나 새로운 정보를 다양한 색으로 칠하거나 메모하며 공부하는 방식이나 행태에는 큰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디지털 교과서는 이러한 서책형 교과서를 가지고 하는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유비쿼터스 사회로 변화하는 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계획에 따르면 2011년까지 전국의 100개 학교를 시범 학교로 선정하여,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적용하여 학습 효과 및 다양한 방면에 걸쳐 영향을 평가한다. 이러한 실험 개발과 적용 및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추진 방안을 수립하여 2013년 이후 디지털 교과서 일변화에 대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단계

적 추진 계획을 제시한 것은, 일반 국민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예상되거나 숨겨진 문제들의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고민을 담고 있다.

디지털 교과서는 분명히 우리 교육에 여러 가지 변화를 야기할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 우리나라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정책을 기초로 디지털 교과서가 무엇이며, 디지털 교과서가 교육 현장에 도입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과 문제점을 이하에서 짚어 보고자 한다.

II. 디지털 교과서의 국내외 동향과 개념

디지털 교과서와 관련한 외국의 사례는 그리 많지는 않다. 해외의 단말기형 디지털 교과서로는 싱가포르의 eduPAD와 말레이시아의 Psion netBook, 미국의 GoReader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사례를 볼 때, 디지털 교과서는 현재까지 크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양하다. 예를 들어, 기술 미성숙으로 전용 단말기에 포함된 디지털 교과서 사용이 어렵고, 인터넷 접속이 불편하며, 오랫동안 인쇄물에 익숙한 사용자의 학습 습관을 고려하지 않은 점들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러 학자와 기관에서 전자

교과서나 전자책에 대해 관심을 가져 왔으나, 실제 연구 개발과 실험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앞서 왔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1997년부터 디지털 교과서 관련 연구들을 진행해 왔다. 1997년 연구(손병길 외)에서는 디지털 교과서를 ‘학교에서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 전자책으로 컴퓨터를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화하여 자기 디스크(테이프)나 CD-ROM 타이틀 등에 보관 책’으로 광범위하게 정의하였다.

최근에는 초기에 이루어진 다양한 연구들을 기반으로 2005년에는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개념

을 ‘서책형 교과서를 전자화하여, 서책이 가지는 장점과 아울러 검색, 내비게이션 등의 부가 편의 기능, 그리고 애니메이션, 3D 등 멀티미디어, 학습 지원 기능을 구비하여 편의성과 학습 효과성을 극대화한 디지털 학습 교재’로 재정의하고, 서책형 메타포를 활용한 초등학교 6학년 수학 디지털 교과서를 제작하였다. 이것은 디지털 교과서만으로도 수업이 가능한 형태이며, 탐구형 학습이 가능하도록 멀티미디어 자료를 대폭 포함하였다. 또, 2006년에는 초등학교 5학년 수학 디지털 교과서를 추가적으로 개발하였다.

【표 1】 해외 디지털 교과서 연구 개발 현황

구 분	싱가포르	미 국		일 본
사업명	eduPAD	GoReader	OLPC 프로젝트	NPO 출판사
주체	정부(교육부)	민간(출판사)	민간(MIT)	민간(출판사)
전달 유형	단말기 보급	전용 단말기 활용	단말기 보급	CD-ROM 및 웹 기반 보급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탑재한 단말기 보급 - 디지털 교과서 메모리 카드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사 또는 외부의 우수 콘텐츠를 전용 단말기와 연계하는 디지털 교과서 - 디지털 교과서 전용 단말기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 단말기 저개발국 보급 - 무선 인터넷, 사전, 문서 작성, 게임 등의 기능 탑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D-ROM 기반의 중학교 이과 디지털 교과서 - CD-ROM 및 웹 기반 보급(Stand alone형)
특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주도의 실험 연구 사업 - 무선 인터넷 활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의 콘텐츠와 디지털 교과서 연계 - 양방향 네트워크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협력 기금을 활용하여 5천만 대~최대 1억 대까지 저개발국에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책용 교과서의 보조교재로 활용 - 특정한 단말기 필요 없음.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한된 전용 단말기 개발로 활용도가 낮음. - 학습 습관을 고려하지 않은 디지털 교과서 개발로 사용이 어려움. - 인터넷 접속이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교과서 활용을 위한 전용 단말기로 다른 학습 활동에 제약이 많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적 활용을 위한 명확한 방향 제시 없음. - 저개발국에 적합한 사양으로 범용성이 미흡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콘텐츠 활용과 다르지 않음. - 이동성이 없음. - 보조 교재로써 활용성 낮음.

현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개발한 초등학교 수학 5, 6학년 디지털 교과서의 기능들은 크게 기본 기능과 부가 편의 기능, 멀티미디어 학습 지원 기능, 네트워크 기능으로 구분된다. 쓰기, 지우

기, 메모, 책갈피, 페이지 넘기기 등과 같이 디지털 교과서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것을 기본 기능으로 규정하였고, 부가 편의 기능은 사용상의 편의성을 부가하기 위해 구성된 검색, 내비게이

이에 디지털 교과서가 교육과 학생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 중에서 대표적인 몇 가지를 살펴보고, 이의 허실을 살펴본다.

1. 디지털 교과서 상용에 따른 컴퓨터(인터넷) 중독이 심화된다.

우선, 가장 흔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현재도 컴퓨터나 인터넷 사용이 지나치게 많고, 심지어 게임이나 인터넷 중독 현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하루 종일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더욱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디지털 교과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과서이다. 교과서로서 서책 형태가 아닌 디지털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다른 디지털 자료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교과서도 디지털로 표현된 자료를 보고 듣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한다. 현재의 노트북 컴퓨터나 휴대용 단말기와 유사한 형태의 기기가 사용될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학습하게 된다면, 학습은 하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게임, 채팅, 동영상 감상 등을 더 많이 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에는 상당한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는 몇 가지 점에서 오류 내지 오해가 있다.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 중독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많은 학생들은 컴퓨터나 휴대폰 또는 인터넷이 없는 삶은 상상도 못 하는 상황이다. 2004년 발표된 미국의 한 조사 결과에서 보면, 미국의 10대 학생들은 이미 전화 번호보다 이메일 주소를 더 많이 주고받고 있으며, 본명보다 통신 아이디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인터넷 중독 등의 문제 발생은 인터넷이나 컴퓨

터 등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사회 전체와 교육계의 잘못이 더 크다. 만약 이러한 정보 통신 기술의 사용이 일반화될 것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다면, 지금처럼 문제가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린이들이 자라면서 노출되는 환경에 대한 대응력 내지 저항력을 미리 길러 주어야 건강한 사람이 되듯이, 정보 통신 기술을 현명하고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길러 주어야 했다.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이 학생들에게 인터넷 등 외부 환경에 노출될 기회를 확대할 것은 분명하다. 문제는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되지 않는다고 이러한 현상이 줄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제 우리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는 학생들이 정보 통신 기술이 제공하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건강하고 슬기롭게 활동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2. 디지털 교과서는 본질적 학습을 저해한다.

학생들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은 인지, 사고, 깨달음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과거에 배우고 익힌 것을 되짚어 보고, 생각하고, 다시 읽고 한다. 그러나 디지털 교과서는 이러한 과정 없이 즉각적으로 정답을 제시하고, 클릭 한 번에 필요한 정보를 줌으로써 학생들이 생각하고 깨달음을 가지기 어렵게 한다는 주장이다.

인간의 뇌에 대한 최근의 연구 결과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인간의 두뇌는 적절한 자극을 지속적으로 주면 전 생애에 걸쳐 개발할 수 있다.’라는 것이다. 인간은 오감을 가진 존재이며, 인지의 발달은 오감을 적절히 자극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발달해 왔다. 따라서,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나 보고, 듣는 것, 토론하고 발표하는 것 등도 읽는 것과 함께 학생들로 하여금 인지, 사고,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디지털

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도구와 기능을 갖추게 될 것이다. 따라서, 사용하는 사람의 의도와 능력에 따라 다양한 방식, 수준의 교수 학습이 가능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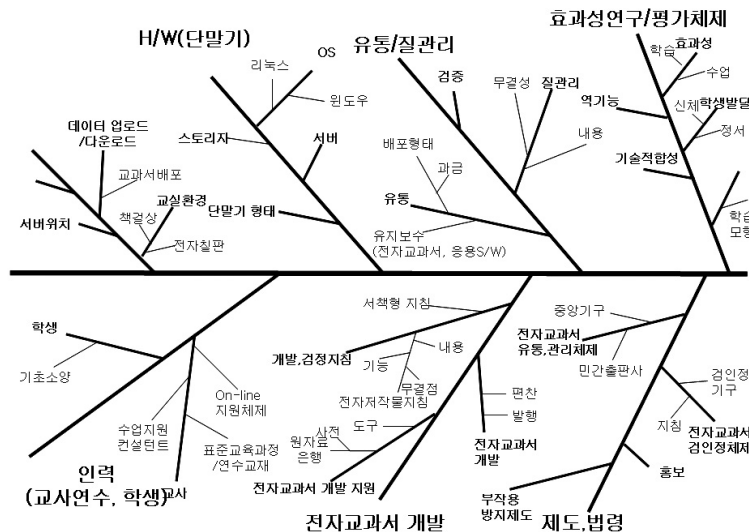
IV. 디지털 교과서와 관련한 미래 준비

앞에서 언급한 것 이외에도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 개인에 따라 다양한 인식을 하고 있다. 이러한 오해와 부정적 인식의 원인으로 디지털 교과서의 분명한 실체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인 점이 크며,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기대가 개인과 기관에

따라 다른 것에 기인하기도 한다.

현재도 디지털 교과서는 진화하고 있다. 기술적으로나 교육학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디지털 교과서가 앞에서 예시한 것과 같은 부정적 현상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장기간의 연구와 시범 적용 기간이 필수적이다.

아래의 피쉬본 차트는 디지털 교과서 상용화(常用化)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브레인스토밍 과정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하여 학교 교육에 적용하기 위해 사전에 이루어지거나, 준비해야 할 사항 등을 정리한 것이다.



【그림 1】 디지털 교과서 일반화 준비 마련 Fish-bone Chart

이 차트에서 보듯이 디지털 교과서를 일반화하기까지는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있다. 이러한 과제들은 단순히 교과서 개발의 차원을 넘어 법 제도와 교육과정, 유통 체제, 교원 양성과 같은 교육 체계 전반의 변화를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정리된 사항 이외에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 활용하는 과정에서 미처 고려하지 못한 다양한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게 되면서 주 사용자인 교사와 학생의 새로

운 다양한 요구가 제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과정은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과 활용에 따른 자연스러운 사회 변화로 인식되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우리 교육계가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기술 분야 등에 대하여 협조해야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은 국민적 합의를 얻는 것이 될 것이다.

과거부터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장비와 도구를 이용하였다. 근로자 1인당 자본 장비율이 높을수록 근로자 1인당 생산성은 높아진다. 삽

디지털 교과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보다 나은 질 높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인을 위한 지적인 도구이고, 교재이며 장비이다.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는 당연히 더 나은 도구, 교재와 장비가 필요하며, 이러한 장비와 도구를 구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한 자루로 땅을 파는 것보다는 포크레인 같은 중장비로 땅을 파는 것이 당연히 생산성이 높다. 이제 지식 정보화 사회가 됨에 따라서 지적인 활동을 할 때 누가 더 나은 지적 활동을 지원하는 도구를 보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성과가 달라지는 사회이다. 디지털 교과서는 우리 교육의 미래를 여는, 첨단 교육의 균형 발전을 실현할 중요한 학습 도구이다. 디지털 교과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보다 나은 질 높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인을 위한 지적인 도구이고, 교재이며 장비이다.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는 당연히 더 나은 도구, 교재와 장비가 필요하며, 이러한 장비와 도구를 구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더 나은 교육을 위한 다양한 투자 대상 중에서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하도록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교과서야말로 지식 정보 사회의 이상적인 교육으로 변신을 기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이다. 이 새로운 교육 투자는 국민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부담을 지우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확실한 국민적 동의와 지지를 획득하는 것이야말로 디지털 교과서의 성공적 도입과 활용의 기반이 될 것이다.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과 활용에 따른 다양한 사항에 대해 실증적 효과와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 문헌

- 손병길 외. 전자 교과서 개발 지침 연구. 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 1997.
- 김재운 외.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의 교육의 미래 모습.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4.
- 손병길 외. 국내외 전자 교과서 사례 조사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4.
- 변호승 외. 2005년 전자 교과서 개발 표준안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5.
- 변호승 외. 2005년 수학과 전자 교과서 개발 방법론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5.
- 교육인적자원부. 디지털 교과서 常用化 추진 방안, 2007.
- Wolfe, P. & bandt, R.(Nov. 1998.). *What do you know from brain research ? Educational Leadership*, v. 56 pp. 8~13., cited from Baylor Steven C.(Apr. 2000.) *Brain Research and Technology Education*, The Technology Teacher, v. 59 no. 7.
- Brown, John Seely(Mar./Apr. 2000.). *Growing up digital:how the Web changes work, education, and the ways people learn*, Change v. 32 no. 2 pp. 10~20.
- Francek, Mark A.(Mar. 2000.). *The Web as instructional tool:advantages and disadvantages. Learning and Leading with Technology*, v. 27 no. 6 pp. 10~13.

디지털 교과서의 가능성 탐색

디지털 교과서 도입의 문제점에 대한 소고

글 윤석희(이화여자대학교 부속 중학교 교사)



I. 들어가며

최근 교육인적자원부는 앞으로 초 중 등 교육 현장에서 ‘디지털 교과서(digital textbook)’를 상용화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언론에 보도된 교육인적자원부의 ‘디지털 교과서 상용화’ 방안의 중심 내용은 2007년부터 기존 교과서를 대체할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하기 시작하여, 오는 2011년에 시범 학교를 100개 학교로 늘리고, 2013년부터는 전면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디지털 교과서는 기존의 서책형 교과서 내용을 디지털화하여 전자 매체에 수록한 뒤 유 무선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고,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한 교과서이다.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디지털 교과서는 기존의 교과서, 참고서, 문제집, 용어 사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이를 동영상, 애니메이션, 가상 현실 등 멀티미디어와 통합하여 제공한다. 또, 사회 각 기관의 학습 자료 데이터베이스(DB)와도 연계되어 있고, 다양한 상호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학습자의 특성과 능력 수준에 맞추어 학습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다.

디지털 교과서 상용화에 대한 여론은 찬반으로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찬성하는 이들은 멀티미디어 기능이 부가된 디지털

교과서의 활용으로 기존 교과서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 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이들은 디지털 교과서가 ICT

수업을 병행하고 있는 현재의 서책형 교과서 체제의 수업보다 높은 학습 효과를 창출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과, 시력 저하 및 VDT(Visual Display Terminal) 증후군을 학생들에게 유발시킬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점, 또한 필요한 재원에 대한 산출 및 충당 대책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교과서의 디지털화에 대한 논의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서책형 교과서의 문제를 보완하고 컴퓨터 이용 학습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전자 교과서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다. 하지만 최근의 ‘디지털 교과서 상용화’와 관련된 논의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서책형 교과서를 대체하여 디지털 교과서를 교실 수업의 주교재로 선택한다는 전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전의 전자 교과서 논의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필자는 중등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이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교과서 집필자, 참고서 개발자,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기관이 주관하여 개발하는 멀티미디어 자료의 개발자이기도 하다. 필자의 입장에서 교육인적자원부의 디지털 상용화 방안

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가지게 한다. 디지털 교과서는 기존의 서책형 교과서가 가진 시간적 지체와 정보의 격차를 극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력적인 교수 매체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현재에도 이미 포화 상태에 있는 디지털 교육 환경에 디지털 교과서가 추가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교육은 그 본질상 아날로그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한 교육 현장에 학생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학습 효과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디지털 교과서가 획일적으로 도입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견된다. 이 글에서는 디지털 교과서 상용화의 가장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현장 교사의 입장에서, 교육 현장에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됨으로써 나타날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I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의 문제점

1. 수업 측면의 문제

좋은 수업이란 ‘교사와 학생들의 상호 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수업’이라고 할 수 있다. 교사와 학생들의 활발한 상호 작용이 좋은 수업이라는 판단은 ‘교육’의 의미에 기초한다. 교육은 ‘진리의 소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형성’을 위한 ‘계발의 과정’을 의미한다. ‘자기 형성’과 ‘계발’은 기술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며, 숙고와 판단을 특성으로 하는 대화적 지식, 즉 실천지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교육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물음’과 이에 대한 ‘답 찾기’는 실천지가 함양되는 과정인 동시에 앎의 과정이다. 교육은 교사와 학생들의 견해가 자유로운 대화적 상황에서 서로 소통될 때 의미 있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학생은 교육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상호 작용과 의사 소통을 통해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게 되며, 자신과 세계에 대한 생각을 주체적이고 자유롭게 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디지털 교과서는 이와 같은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대화와 의사 소통을 단절시키고, 교육적 상호 작용을 제한한다.

전자 교과서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 전자 교과서를 사용하는 학습이 인쇄 교과서를 사용한 학습보다 교사와 의사 소통 빈도가 낮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는 교사가 의사 소통을 지향하는 수업을 설계함으로써 처방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디지털 교과서 이용 수업에서 교사와 학생의 단절은 디지털이라는 매체의 속성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사의 수업 설계를 통해 개선되기 어렵다. 디지털이란 0과 1이 반복되는 단속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는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아날로그와 비교할 때, 그 근원적인 속성상 단절을 의미한다. 교육은 인간과 인간의 단절이 아니라 연속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당연히 교육의 장인 교실은 학생과 교사가 얼굴을 맞대고 수업을 하는 인간적인 장소이어야 하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밝힌 디지털 교과서의 주요 기능 중의 하나가 ‘꼭지 기능으로 선생님께 질문한다.’이다. 이는 교실 상황만을 가정한 것은 아닐 것이다. 만일 교실 상황이라면 왜 그래야 하는가? 이는 매우 비인간적인 수단이다. 교실 밖의 상황이라고 해도, 현재의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만남만으로도 가능하다.

2. 학습 측면의 문제

디지털 교과서의 상용화는 오늘날 우리 교육이 처한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지나치게 이상적인 전제를 기저에 두고 있다. 교육의 일선에서 교사들이 느끼는 우리 교육의 시급한 문제는 교육용 매체나 도구, 자료나 정보의 부족이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것들은 충분함을 지나서 넘쳐나는 실정이다. 물론,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매체나 정교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도 중요하다.

하지만 더 시급한 문제는 ‘학생들의 학습 의지에 대한 자발성 부족’이다.

대도시 변두리에 위치한 중학교의 평범한 교사인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하나의 교실에 함께 있는 학생들은 크게 세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부모님들의 ‘내 아이는 특별하다.’는 과도한 기대를 짊어진 채 ‘○○종합반’이라는 이름의 학원에 등록된 학생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학교가 끝나자마자 교복도 갈아입지 못한 채로 학원으로 가서 학원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다. 학원은 보통 오후 10시에서 12시 정도에 끝나고, 학생들은 집에 돌아와서 학원 과제를 하다 잠이 든다. 이와 같은 일과를 반복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학교는 전날의 피로를 푸는 쉼터와 같다. 이들 중의 일부는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에 참여하려는 의욕도 있지만, 새로운 무엇인가를 자발적으로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다.

둘째, 학원에 다니지 않거나, 지나친 학원 생활에 지쳐 학교 생활 자체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학습 부적응 학생들이다. 이들은 학습 활동에 관심이 없으며, 참여하지도 않고, 학생들과의 모둠 활동에도 소극적이다. 이들 중의 일부는 게임이나 외모 치장과 같은 다른 관심사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상당 수 학생은 그나마도 귀찮아한다. 교사들에게 이들을 학습에 참여시키는 일은 어떠한 학습 준비보다도 어려운 일이다.

셋째, 학원에 의존하지 않고, 학교 공부를 성실하게 하는 학생들이다. 이들은 시간도 충분하고 학습 의욕도 높다. 이들은 아마도 디지털 교과서를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고,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일 것이다. 교사들은 학교에 이러한 학생들이 많아지기를 희망한다. 하지만 현실은 시간이 갈수록 실망이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생기고 발랄하게 학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수는 점점 줄어드는 것이다.

교육 당국은 아마도 디지털 교과서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 물론, 디지털 교과서는 자발적 학습 의지를 가진 학생들이 그들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스스로 학습할 경우, 필요한 교육 자료들이 일목요연하게 제공되므로, 일반적인 컴퓨터를 이용해 학습하는 것보다는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그러한 노력을 시도할 때에 이루어진다. 문제는 그러한 의지를 가진 학생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디지털 교과서가 제공하는 학습용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익숙한 오락용 게임에 비하여 흥미롭거나 재미있기가 어렵다. 이미 여러 종류의 교육용 소프트웨어가 보급되어 있지만,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열성을 내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보지는 못했다. 학습 의욕이 없는 학생에게 디지털 교과서는 게임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현재의 컴퓨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디지털 교과서 찬성론자들은 학생들이 ‘널려 있는 정보를 창조적으로 수집하여 활용하지 못하고 여전히 지식을 찾아 암기하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디지털 교과서는 단지 매체일 뿐이다. 단말기나 컴퓨터를 매체로 하는 교과서를 이용한다고 해서 ‘창조성’을 늘릴 수 있다는 근거가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교과서는 학생들이 그 수준에 맞게 습득해야 할 개념을 위한 여러 지식을 담고 있다. 개념 형성을 위한 기본적인 지식은 암기해야 한다. 수학 공식이나 국어의 어휘나 맞춤법, 영어의 문법과 단어를 암기하지 않고는 각 교과목의 기본 개념을 습득할 수 없다. 기본적인 개념의 형성은 이해와 암기를 통해 이루어지며, 창조성은 그러한 개념 형성의 토대 위에서 발휘될 수 있다.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한다고 해서 창조성이 함양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며, 혹 가능하다고 해도 상위권 학생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중하위권 학생들은 창조성의 문제는

를 해결하였다는 연구 결과를 보지 못했다.

‘전 학년, 여러 과목의 교과서 내용이 단말기 한 대에 모두 실리기 때문에 학생들은 학년과 과목에 상관 없이 자신이 공부하고 싶은 내용을 찾아볼 수 있어 이점이 있다.’라는 주장은,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근본적 이해가 결여된 판단이다. 학년별 교과목의 내용은 의미 없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학생들의 지적 능력의 수준에 맞게, 그 연령대에서 학습해야 할 목표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학년을 넘나드는 학습은 선행 학습에 불과할 뿐이다. 학생들의 선행 학습이 이로울 것이라는 생각은 위험한 발상이며, 교육인적자원부 스스로가 공교육을 혼돈다고 비난했던 선행 학습 위주의 사설 학원이 가지고 있는 병폐를 학교에 들여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디지털 교과서는 다양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현재 체제에서도 같은 수준의 정보와 자료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 문제는 많은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교사의 도움을 받아 정보와 자료를 구조화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은 사고의 과정을 통해서 형성될 수 있다. 하지만 디지털 교과서는 정보 제공의 즉시성에서는 뛰어나지만, 학생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 디지털 교과서의 기능적 한계

디지털 매체가 책을 대신할 것이라는 마셜 맥루한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쇄된 종이책을 선호한다. 디지털 북(e-book)이 만들어진 지 십 수년이 되었지만, 그 활용이 매우 미미하다는 현실에서 볼 수 있듯이 종이 교과서를 디지털 북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매우 순진한 논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자북의 일종인 pdf 파일이나 워드 프로세서 파일을 인쇄해

서 보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최근 미국의 연구에 의하면, 디지털 음악인 CD보다 아날로그 방식의 LP에 의한 음악이 인간의 품성과 인격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이는 디지털 CD는 음원이 분절되어 인간에게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이다. 인간은 그 자체가 하나의 자연이다. 이 때문에 자연 상태에 가까울수록 편안함을 느끼며, 왜곡이 심해질수록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음악 마니아들은 디지털 앰프를 기피하고 가능하면 자연 상태의 음을 재생하는 진공관 앰프를 사용한다. 디지털 음악에 대한 연구 결과는 학생들이 디지털 교과서를 상용할 경우, 학생들의 품성과 인격 형성에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폐해를 무릅쓰고 굳이 엄청난 재원을 들여서 디지털 교과서를 쓴다는 것은 무리한 발상일 수밖에 없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디지털 교과서의 장점으로 ‘전자 펜으로 메모를 하고 문제도 풀 수 있는’ 기능을 내세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을 하는 정책 입안자들은 아마도 전자 펜으로 PDA나 모니터에 메모를 한 경험이 없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PDA와 같은 단말기에 전자 펜으로 입력하는 것은 매우 불편하고 느린데다 정확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PDA 등 단말기용 자판이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수학의 경우처럼 문제나 계산이 필요한 곳에는 공책에 필기를 할 수밖에 없다.

디지털 만능주의가 낳은 실패작의 대표적인 예로 ‘화상 회의’를 들 수 있다. IT 전문가들이 화상 회의를 통해 정부나 회사의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 지가 십 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공무원이나 기업인들은 화상 회의보다 대면 접촉을 선호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가장 보수적인 정책, 즉 변화가 현재의 상황을 현격히 개선할 수 있다는 검증이 되지 않는 한, 현재를 유지하는 정책이 적용되어야 할 학교에 이

만일 디지털 교과서 수업이 학생들의 정서나 품성, 인격 형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면, 시범 학교의 학생들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디지털 교과서 실험은 보상될 수 없는 귀중한 인간의 품성과 관련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충분한 이론적·실증적 연구와 자료 없이 학생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를 줄속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4. 디지털 교과서 도입의 재정 문제

디지털 교과서의 활용에 필요한 단말기, 네트워크 비용의 문제를 ‘모두가 지혜를 모으면 해결될 수 있다.’라는 주장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무지하고, 비현실적인 생각의 절정이다. 교육 당국은 디지털 교과서 보급의 예로서 ‘100달러 PC를 구매하여 학생에게 공급’한 태국의 사례를 인용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학생들과 학교는 PC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PC의 지나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학생들의 문제로 부각된 지 이미 오래 전이다.

단말기를 보급할 경우, 방과 후에도 학생들에게 단말기를 소지하게 할 것인지도 문제이다. 아무리 저가형이라고 해도 이를 수백만에 달하는 초·중·고등 학생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가? 그 재원을 가히 천문학적 숫자에 달할 것이다. 단말기를 지급하지 못한다면 방과 후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책도 없다.

교육 당국은 ‘2011년까지 시범 적용을 통해 문제를 예방하거나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시력 저하, VDT 증후군 예방, 처치 연구 및 대책의 수립, 학생들의

정서와 건강과 같은 역기능 예방과 해소’를 위한 노력을 완수하는 데에는 너무나 짧은 기간이다. 디지털 교과서가 이를 사용한 학생들의 정서와 품성, 인격에 미친 영향은 오랜 기간 관찰되어야 하지만, 현재의 교육인적자원부는 이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단지 일부 시범 학교의 실험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만일 디지털 교과서 수업이 학생들의 정서나 품성, 인격 형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면, 시범 학교의 학생들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디지털 교과서 실험은 보상될 수 없는 귀중한 인간의 품성과 관련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충분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와 자료 없이 학생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5. 학생들의 건강 문제

학교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PC나 단말기를 이용해서 공부할 때, 헤드폰을 착용해야 한다. 그러나 헤드폰이 학생들의 청력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이미 상식이 되어 버렸다. 이미 아침부터 저녁까지 디지털 문화의 세례를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MP3 등의 과도한 사용으로 청력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에서도 헤드폰을 써야 한다면 학생들의 건강은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이다.

컴퓨터의 사용으로 나타나는 VDT 증후군은 현

재의 상용 기술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일반 CRT 모니터는 물론, LCD 모니터에서도 상당한 전자파가 방출되며, 무선 인터넷의 위해성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신체적으로 미숙한 학생들에게는 더욱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디지털 교과서는 학생들이 고정된 위치에서 모니터를 장시간 지속적으로 주시하게 함으로써 시력을 매우 해칠 것이다. 교육 당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개발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이런 시력 저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첨단 제품이 있다고 해도, 엄청난 가격의 첨단 제품을 구입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은 현재의 우리나라 교육 예산상 헛된 꿈일 뿐이다.

또, ‘인터넷 중독 해소를 위한 노력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라고 주장하지만, 탁상공론일 뿐이다. 정부와 학교가 인터넷 중독 해소를 위한 정책을 아무리 추진한다고 해도, 어린 학생들은 아직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하지 못하다. 대학교에서 컴퓨터 관련 강의를 하고 있는 A씨는 강의를 할 때 강의실의 뒤편에서 강의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학생들이 인터넷을 이용한 채팅과 웹서핑 등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물며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인터넷 중독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이 학생들에 대한 건강과 품성, 인격 형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무책임한 탁상 행정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Ⅲ. 나가며

우리 사회가 정보화 사회로 접어든 이후 교육 현장의 디지털화는 여러 분야에서 시도되었다. 여

러 종류의 교육용 소프트웨어, CAI 프로그램, 멀티미디어 타이틀, 웹 기반의 교수 학습 자료 등이 개발되고 보급되어 왔으며, 이것들은 지원하기 위한 교육 환경의 디지털화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정보화 시대에 IT 기술을 빼고 미래 사회를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모든 것을 디지털화하려는 지나친 디지털 맹신주의는 정작 인간을 소외시킨다.

현재 인터넷과 컴퓨터는 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수업을 지원하고, 종이 교과서의 문제를 보완하는 보조적인 매체로서 적절히 활용되고 있으며, 여러 성과도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교과서의 상용화에 대한 교육 현장의 반응은 기대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러한 교육 현장의 우려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디지털 교과서는 아직 콘텐츠 개발이 완성되어 있지 않다. 디지털 교과서를 상용화하려면 교과서의 콘텐츠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교과서는 교과 전문가로 구성된 집필자들의 교육과정에 대한 해석과 철학이 압축되어 있고, 교과서를 도구로 학습할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배려와 고민이 담겨져 있다. 그런데 디지털 교과서가 정보 기술을 주로 다루는 기업에 의해서 개발된다면, 이러한 교육적 고민을 잘 담아 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생긴다.

교육인적자원부 관료 주장대로라면, 디지털 교과서의 전면적 도입에 관한 문제는 시간을 두고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교육의 기능적 측면에서의 변화에 앞서 교육의 본질적 측면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에서는 학습 효과와 학생들의 건강, 정보 인프라 등 여러 면에서 문제가 드러나서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해 시범 실시하다 중단했다는 사례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디지털 교과서의 가능성 탐색

교과서의 디지털화가 출판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소고

글 조성준(금성출판사 교과서연구개발실장)



I. 시작하는 말

2007년 3월 7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디지털 교과서 상용화 개발 본격 착수, 유비쿼터스 시대의 미래 학교 교육 현실로 다가와’라는 제목으로 보도 자료를 내놓자마자 언론에서는 ‘2013년부터 책으로 된 초 중등 교과서 사라진다.’, ‘미래의 교실에는 교과서가 없다.’, ‘교실에서 교과서 공책 사라진대요.’ 하며 떠들썩하게 보도한 바 있다.

이후 1개월여가 지나 열린 ‘디지털 교과서 정책과 교육 출판의 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포럼에 발표자 또는 토론자로 참여한 교육 출판업계 관계자들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는 알 수 없다. 해 보아야 한다.”라고 신중한 자세를 취하였다. 이 때, 출판업계 관계자들은 왜 한결 같이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을까?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교과서에서 콘텐츠가 가장 중요하고, 이 콘텐츠의 개발 주체가 출판사인데, 디지털 교과서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교육 출판업계가 철저히 배제된 데 대한 아쉬움이다.

둘째, 디지털 교과서의 개발 방향이 콘텐츠보다는 단말기나 솔루션에 무게 중심이 쏠려 있다는

문제 의식이다.

셋째,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논의 및 개발이 무소불위의 능력을 가진 일부 대기업 위주로 전개될 때, 상대적으로 미약하기 짝이 없는 교육 출판업계가 안방까지 내줄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다.

포럼의 분위기가 그러했음에도 ‘언젠가 그 시대가 올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었다.

2013년, 디지털 교과서가 한 과목이라도 학교 현장에서 사용될지 안 될지는 누구도 확인하기 어렵다. ‘그 때 가 보아야’ 알 수 있다. 다만, 우리가 중시해야 할 점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 아래 초등학교 5학년 9개 교과에서 디지털 교과서 원형(Prototype)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다.

디지털 교과서 시대의 도래 여부 문제는 다각도로 논의되어야 할 별도의 과제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디지털 교과서 시대의 도래를 가정하고, 교과서의 디지털화가 교과서 출판사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출판사는 이 때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다만, 그동안 교과서 콘텐츠 개발 주체가 교과서 출판사였으므로, 여기에서는 논의의 대상을 교육 출판업계로 범위를 넓히기보다는 교과서 출판사에 한정하고자 한다.

아날로그 교과서 시대에는
교과서 개발비 소요 항목이나 비용 부담이 비교적 단순하고 적었다.
그러나 디지털 교과서 시대에는 개발비 소요 항목이 대폭 늘어날 것이고,
추가 항목별 비용을 추산하기는 어려우나, 기존의 교과서 개발비의 몇 갑절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하기에 따라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수도 있다.

II. 논의 전개

그 동안 교과서 편찬 과정에서 출판사의 역할이 다소 평가 절하된 측면이 강하다. 출판사는 저작자의 옥고(玉稿)를 번각(翻角)이나 하는 정도의 역할만을 한다는 것이 정부나 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이 아니었을까? 인식이 부정확했던 것이다. 그러나 미흡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검정 교과서는 편찬의 주체, 곧 콘텐츠 기획 개발의 주체가 출판사’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여러 곳에서 감지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그 동안 교과서 콘텐츠 기획 개발에서 출판사가 비중 있는 역할을 해 왔음을 전제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1. 정부의 개발 계획과 대상 과목의 문제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디지털 교과서를 학교급별로 연차적으로 시범 개발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계획대로 된다면 초등학교 5, 6학년 9개 과목(국어 도덕 사회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영어), 중학교 3개 과목(수학 과학 영어), 고등학교 2개 과목(수학 영어) 등 총 14개 과목의 디지털 교과서가 시범 개발되고, 일부 학교에서 시범 사용된다.

위의 개발 교과서는 2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즉, 국정 교과서와 검정 교과서를 토대로 개발

된다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국정 교과서의 저작권은 교육인적자원부에 있고, 검정 교과서의 저작권은 저작자에 있다. 따라서, 디지털 교과서 개발 절차가 다소 다를 수 있다. 국정 교과서야 정부에서 원하기만 하면 콘텐츠를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검정 교과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시범 개발 디지털 교과서의 구분

- ▶ 국정 교과서: 초등학교 5, 6학년 9개 과목
- ▶ 검정 교과서: 중학교 3개 과목, 고등학교 2개 과목

2007, 2008년도 개발 대상 과목은 모두 국정 교과서이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2009, 2010년은 양상이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또는 KERIS)에서는 다음의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할 것이다.

- 시범 개발 디지털 교과서는 현행 교과서를 바탕 자료로 이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출판사와 저작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검정 교과서 출판사 또는 저작자가 허락하지 않으면 디지털 교과서 개발이 불가능하다.
- 해당 검정 교과서 출판권을 가진 출판사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 디지털 교과서 개발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하다.

○ 현행 교과서 내의 타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상금 지급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상의 문제는 정부나 KERIS가 나서서 해결하기 어렵다. 특히, 2007~2011년은 출판사에서 차기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를 개발하는 시기로, 디지털 교과서 시범 개발 사업에 참여할 여력이 별로 없다. 그렇다고 정부에서 콘텐츠만을 사용하자고 출판사에 요구하기도 어렵다. 교과서 내의 타인 저작물에 대해서 출판사가 권한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교과서’라는 이름을 붙이려면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우리나라의 교과서 제도가 발목을 잡아, 설령 대기업이나 교과서 출판업체에서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 콘텐츠를 만들었다 하여도 여기에 ‘교과서’라는 이름을 붙일 수도 없는 것이다.

중 고등학교 5개 과목의 디지털 교과서 시범 개발이 과연 가능할까?

2. 교과서 편찬에서 출판사의 역할 및 비용 비교

현행 교과서를 굳이 아날로그 교과서라고 할 때, 디지털 교과서 시대에는 아날로그 교과서 시대에 비해 교과서 출판사의 역할과 투자 규모가 다를 수밖에 없다.

우선 지금까지 교과서 출판사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아날로그 교과서 시대에는 크게 ‘교육인적자원부-교과서 출판사-편찬 기관(또는 저작자)’ 3자에 의해 교과서가 편찬되었다. 이 때, 교과서 출판사의 역할은 서책형 교과서의 콘텐츠를 질 높게 만들고 규정에 맞도록 외양을 제작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모든 기능이 이와 같은 일들을 잘 수행하는 데 특화, 집중되어 있었다. 특히, 검정 교과서의 경우는 편찬 교과목을 정하고, 원고 집필 능력이 우수한 저작자를 선정하며, 교과서

다경험 편집자들로 팀을 구성하고, 창의성 높은 검정본을 외형적 규정에 알맞게 제작하며, 검정 심사를 받고, 수정하는 것이 역할의 큰 열개였다.

그러나 디지털 교과서 시대에는 그 역할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상의 기능 외에 여러 가지 기능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즉, 콘텐츠의 기획 개발, 학습 콘텐츠의 사용 및 관리 시스템(LCMS: Learning Contents Management System) 구축 및 활용, 각종 콘텐츠의 디지털 DB화 및 활용성 제고(상용화 및 서비스)를 위한 인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교과서의 제재 학습 활동 과제 활동과 연계된 동영상 자료 및 참고 자료’, ‘자기 주도적 예 복습 자료’, ‘교과서 내용의 보충 심화 학습 자료 등을 비롯하여 동영상, 애니메이션’, ‘음향 효과’, ‘사진’, ‘일러스트’ 등도 디지털 형태로 개발 제공해야 한다. LCMS를 통한 콘텐츠 및 소비자 관리도 해야 한다.

디지털 교과서의 콘텐츠는 한도 끝도 없는 것이 특징이다. 지금까지는 편집부와 생산부만 있으면 되었으나, 이 시대에는 부서가 여러 개 더 늘어나야 한다. 물론, 아웃소싱이나 컨소시엄 등을 통해 분담해야 할 부문도 있겠으나, 교과서 개발비의 정가 반영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출판사가 안고 가야 할 일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투자 부문도 마찬가지이다. 아날로그 교과서 시대에는 교과서 개발비 소요 항목이나 비용 부담이 비교적 단순하고 적었다. 그러나 디지털 교과서 시대에는 개발비 소요 항목이 대폭 늘어날 것이고, 추가 항목별 비용을 추산하기는 어려우나, 기존의 교과서 개발비의 몇 갑절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하기에 따라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수도 있다.

【표 1】 교과서 개발비 예상 항목(예)

공통 항목	○ 저작자 계약금(선인세), 편집자 인건비, 그림 사진 등 시각 자료 제작 및 대여비, 편찬 진행비, 검정본 제작비, 검정 출원료 등
디지털 교과서 개발에 따른 추가 예상 항목	○ 교과서의 제재, 학습 활동, 과제 활동과 연계된 디지털 동영상 자료 및 참고 자료 ○ 자기 주도적 예 학습 디지털 자료 ○ 교과서 내용의 심화 학습 디지털 자료 ○ 애니메이션(또는 플래시), 음향 효과, 사진 일러스트 등의 디지털 자료 ○ 각종 보조 학습 자료(학습 사진, 내신 강화 문제, 중간 기말 고사 문제, 대학 입시 정보 및 문제, 독서 논술 지도 및 학습 자료 등의 데이터베이스화) ○ 교과서에 따른 교수법 및 학습 방법 설계 ○ LCMS(Learning Contents Management System) 구축

3. 교과서의 디지털화에 따른 출판사의 위기

오랜 동안 교과서 편찬은 출판사 고유의 몫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정부 주도 아래 편찬된 검정 교과서의 역사가 100년이 훨씬 넘었고, 우문관(右文館), 휘문관(徽文館), 보성관(普成館) 등이 초창기 교과서 편찬을 주도한 출판사¹⁾였으며, 오늘날도 교과용 도서의 개발 주체가 변함없이 출판사임을 생각해 볼 때, 교과서 편찬, 발행은 교과서 출판사 고유의 영역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는 교과서 편찬을 ‘그들만이 할 수 있어 그들만의 영역’이라고도 할 수 있었으나, 디지털 시대에도 마찬가지일지는 의문이다.

엄청난 재력과 조직을 가진 A, B라는 전자 회사가 디지털 교과서 개발 사업에 참여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 회사에서는 어렵지 않게 웬만한 규모의 교과서 출판사를 인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출판사 등록을 하고, 교과서 편집 및 디자인 유경험자를 모집한다면 현재 교과서 출판업계의 유능한 인재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저작자도 마찬가지이다. 그렇게 되면 대외 경쟁력, 정보 수집력으로 무장한 이들 회사는 순식간에 교과서 출판업계의 최강자가 될 것이다. 이들이 디지털 교과서 개발 및 토털 서

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내의 교과서 및 사교육 시장을 잠식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또, 자유 경쟁 체제 안에서 누가 막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그 동안 이들이 왜 교과서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을까? 국정 도서는 정부의 교과서 정책에 따라 그 동안 국정교과서(주)와 대한교과서(주)가 독점적 발행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 검정 교과서는 이들이 관심 갖기에 수익금 규모가 적어서가 아니었을까? 만일 교과서가 황금 알을 낳는 사업이었다면 이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디지털 교과서 시대는 다르다. 정부의 교과서 예산이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 지배의 절대 요건이 되는 콘텐츠 제작에 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그러면 기존의 교과서 출판사는 어떻게 될까? 출판사는 어떤 특화된 장점으로 이들에 맞설 수 있을까?

한편 생각해 보면 기우일 수도 있다. 가령 디지털 교과서 시장이 몇 조 원이 될지는 모르나, 이들의 관심사는 불과 몇 천억 원에 불과한 투자 대비 수익성 낮은 콘텐츠보다는 보다 손쉽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단말기에 집중될 수도 있다.

이른바 아날로그 교과서 시대에는
교과서 한 권만 정성껏 잘 만들면 되었기 때문에
경쟁의 형태와 방법이 비교적 단조로웠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 교과서 시대에는 무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
콘텐츠의 종류가 무궁무진하고,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 수용 여부가
생멸(生滅)을 가름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설령 그렇다 하여도 대다수의 교과서 출판사는 앞서 제시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비를 감당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 또, 차제에 시장 경쟁 원리에 따라 교과서 수익금 배분, 발행사별 교과서 개발비의 정가 차등 적용 등이 합리화되면 교과서 편찬 개발비의 투자 규모가 크게 늘어날 텐데, 그렇게 되면 교과서 출판사에 가중되는 부담 때문에 이를 감당할 출판사의 숫자는 더욱 줄어들 것이다.

이른바 아날로그 교과서 시대에는 교과서 한 권만 정성껏 잘 만들면 되었기 때문에 경쟁의 형태와 방법이 비교적 단조로웠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 교과서 시대에는 무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 콘텐츠의 종류가 무궁무진하고,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 수용 여부가 생멸(生滅)을 가름할 것이기 때문이다.

4. 출판사의 생존 요건

이제 교과서 출판사는 두 가지 측면에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하나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준비 및 전문성 확보와 집중할 교과목의 전략적 선택을 통한 특화된 서비스 제공이다.

- 확보하고 있는 콘텐츠를 디지털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활용성 제고 방법을 집중 모색해야 한다.

전문성이란 해당 분야에 대한 남다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지식과 기술이란 앞으로 만들 콘텐츠의 기획, 개발, 생산, 판매에 대한 인식과 이해, 그리고 기능을 말한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에는 이미 만들어 놓은 콘텐츠의 데이터베이스화 및 활용성 제고가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전자의 지식과 기술은 어쩌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관련 분야 고급 인력 확보와 지원만 충분하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자는 단기간에 이룩할 수 없는 부문이다. 현재의 출판사가 가진 가장 큰 강점이 바로 많은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대부분 아날로그 형태라는 것이다. 따라서, ‘구슬이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 것처럼 써 먹을 수 있도록 디지털 데이터베이스화해야 한다. 그래야 보배로운 유용성이 생겨난다.

- e-Learning 시대의 대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유비쿼터스(Ubiquitous)라는 말도 이제는 다소 빛바랜 느낌이 들 정도로 우리는 이미 그 시대에 젖어들었다. U-City, U-Learning, U-Campus 등 ‘U-’가 붙은 용어들이 앞다투어 생성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진작부터 e-Learning 사업을 추진하여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고, 알맹이 콘텐츠와 경험이 차곡차곡

츠의 기능을 다양화하고 강화해야 한다. 여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학습 콘텐츠 관리 시스템(LCMS)의 구축이다. LCMS의 가장 큰 기능은 '① 맞춤형 개별 학습을 할 수 있고, ② 학교-교사-학부모-학생이 연동된 진도 관리, 평가 및 성적 관리, Feed back 과정 결과 관리'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전문화할 교과목을 전략적으로 선택(Strategic choice)하고, 서비스 방법을 특화시켜야 한다.

일부 교과서 출판사에서 자사의 전문성, 능력, 경험 등을 고려하지 않고 편찬 과목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무분별한 선택, 능력의 한계를 벗어난 개발 과목 선택이 그것이다. 이것이 과거에는 통했는지 모르나 디지털 시대에는 허용되기 어렵다. 또, 비교적 규모가 큰 출판사에서 흔한 일이지만, 동종 교과목의 다중 개발도 절제해야 한다.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일 수도 있고, 시장 과점을 위한 전략일 수도 있겠으나, 이는 '선택과 집중'의 원리와 거리가 멀다. 재력이 워낙 뛰어나다면 몰라도 현재의 출판사 규모 정도로는 '선택과 집중'이 전문화의 길이고 살 길이다. 전술하였듯이 디지털 교과서 시대에는 전과 비교할 수 없는 투자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한 정책을 펴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

투자 부족(인식 부족)→인력 부족, 지속성 부족, 전문성 부족, 값싼 시각 자료 제작, 데이터베이스 미구축, LCMS 미구축 및 학교 서비스 미흡
→시장 상실 및 퇴출

Ⅲ. 맺는말

출판사의 입장에서 교과서의 디지털화가 어떤 영향을 끼칠까를 생각하다 보면 '부정'과 '성토'

의 과정을 먼저 거치게 된다. 그러다가 결국 '그래도 무엇인가를 준비해야 한다.'로 귀결되고 만다. 그 준비라는 것이 꼭 집어 미래의 디지털 교과서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출판사나 편집자도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금 그것의 준비가 요구되고 있고, 앞으로 그 요구가 더욱 강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 이것이 싫든 좋든 미래의 교과서—그것이 디지털 교과서든 아니든 간에—메커니즘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의 전환이다. 미래의 시장에서 생존 발전하고자 한다면 '긍정'의 인식, 즉 '그런 시대가 올까?' 보다는 '그런 시대는 온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만일 누구나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일찍 일어나는 새가 많은 모이를 찾는다.'라는 속담처럼 남들보다 먼저 준비하면 된다. **연**

참고 문헌

- 조성준. 교과서 편집 실무론. 서울:금성출판사, 2007.
- _____. 교과서 출판사 및 저작자 관련 현안. 교육과정교과서연구 제4권 제1호. 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 2006. 2.
- _____. 한국 검정 교과서 출판사의 어제와 내일. 교육과정교과서연구 제5권 제1호. 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 2007. 2.
- 연합뉴스. 디지털 교과서 상용화 개발 본격 착수, 유비쿼터스 시대 미래 학교교육 현실로 다가와, 2007. 3. 7.

1) 조성준. 교과서 편집 실무론. 서울:금성출판사, pp. 136~137, 2007.

디지털 교과서의 가능성 탐색

디지털 교과서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역기능 탐색

글 성윤숙(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정 부는 최근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디지털 교과서를 보급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정보 통신 기반 구축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앞서 가는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정보 통신 기반을 교육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꾸준히 추진해 온 학교 정보화와 사회 정보화 기반을 연계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왜냐하면 미래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오늘의 청소년들이 디지털 정보화의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교과서는 많은 장점들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초 중 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을 위한 디지털 교과서가 이들의 삶과 관련하여 발생시킬 수 있는 문제점 또는 역기능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I. 심리적 측면

전자책 또는 e-Book 도입을 논의할 때 학계와 산업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심리적 측면에 관한 논의는 거의 없었다. 전자책의 하나인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는 청소년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심리적 측면에서의 역기능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디지털 기기 의존성'을 손꼽을 수 있

다. 맥루한(McLuhan, M.)의 매체는 곧 메시지라는 지적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같은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지닌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 이를테면, 한 사건에 관한 뉴스를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DMB라는 서로 다른 매체를 통해서 내보낼 때, 그 뉴스를 접하는 독자나 시청자들은 그 의미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

또다른 예로, 인터넷/PC방을 생각해 보자. 인터넷/PC방을 우리 사회가 도입할 때, 원래 그 목적은 가정에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손쉽게 접근하여 값싸게 유용한 정보를 검색하고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요한 정보 생산, 가공, 유통 및 활용의 터(場)로 만들자는 데 있었다. 그런데 오늘날 인터넷/PC방의 사회적 기능을 보라. 과연 정보 활용의 터로 활용되고 있는가? 오히려 인터넷/PC방은 정보를 생산하고 활용하는 터전이기보다는 청소년들의 오락장으로 전락하고만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청소년들의 휴대 전화 사용 행태도 마찬가지이다. 비상시나 평상시 부모나 친구들 간의 연락을 위하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휴대 전화를 사 주는 게 보통이다. 그러나 청소년 자녀들은 이 휴대 전화를 사용해서 친구들 간에 문자 교환이나 모바일 게임을 하는 데 오히려 더 많이 활용하고 있다.

MP3도 외국어 회화를 터득하기 위하여 사 주었지만, 청소년들은 그것을 음악을 감상하기 위한 기기로 주로 활용하였다. PMP나 전자 사전도 청소년들은 음악이나 엔터테인먼트 동영상 감상을 위해 주로 사용하고 있다.

그 결과 청소년들은 컴퓨터 게임, 온라인 게임 또는 휴대 전화 중독에 빠져 이러한 디지털 기기에 심하게 의존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디지털 교과서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 청소년들이 디지털 교과서의 본래 목적, 즉 정보를 습득하고 학습을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그것을 오락 매체로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의 디지털 교과서 악용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디지털 교과서가 오락 매체로 활용될 수 있는 기능들을 탑재하지 않는 것이다. 휴대 전화를 생각해 보자. 휴대 전화의 본래 목적은 전화 통신이다. 그런데 여기에 게임이 내장되고 또 카메라가 내장되면서 청소년들은 휴대 전화를 게임용 기기나 이른바 열짱 사진을 찍고 놀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디지털 교과서는 멀티미디어 기능을 갖추고 무선 인터넷 기능을 갖추게 되면, 이것이 오락기기로 전락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II. 신체적 측면

디지털 교과서가 갖는 문제점 또는 역기능을 신체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눈의 피로를 가장 먼저 손꼽는다. 예를 들어, 휴대 전화를 통하여 제공하는 디지털 교과서 내용을 30분 이상 들여다보게 되면, 청소년들의 눈은 쉽게 피로해진다. 그리고 디지털 교과서의 장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청소년들이 집에서 책을 읽거나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면서 계속 이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매체라고 지적

한다.

그러나 이동하면서 휴대 전화를 통해 보는 디지털 교과 내용은 더욱더 쉽게 눈의 피로를 가져온다. 그리고 단말기 화면이 작기 때문에 글씨가 작아 눈이 피로해지기 쉽다.

따라서, 이러한 눈의 피로를 덜기 위해서는 자주 눈을 깜빡거리려 눈에 물기를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20~30분 동안 디지털 교과서로 공부하고 10분씩 눈의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휴대 전화나 PDA와 같은 단말기를 사용해서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할 경우 이어폰을 사용해서 듣게 된다.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어폰을 사용하게 되면, 귀가 손상될 수 있다는 것이 최근 밝혀지고 있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지나친 휴대 전화 문자 사용으로 인한 문자 중독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문자 중독을 경험하는 엄지족들은 지나친 손가락 사용으로 인해 손가락이 손상될 수 있다. 작은 단말기를 사용할 경우 10개의 손가락을 모두 사용하기보다는 소수의 몇몇 손가락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다.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가급적 다양한 손가락을 사용하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또, 청소년들의 전자 기기 사용과 관련하여 전자파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영국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에서는 휴대 전화 및 네트워크 기지국의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사람들이 휴대 전화의 각 모델로부터 얼마나 많은 전자파를 받는지, 이것을 측정하는 구체적인 전자파 흡수율(Specific Absorption Rate, SAR)에 대한 유럽의 표준화된 방법이 2001년부터 정립되어 있다. 따라서, 2001년부터 영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휴대 전화의 전자파 흡수율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영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휴대 전화는 국제 노출 가이드라인을 충족시키고 있다.

영국 보건부는 휴대 전화가 아동과 청소년의 인체에 미치는 유해한 영향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주의 사항을 공지하고 있다. 현재, 휴대 전화 이용 및 기지국의 전자파 배출과 관련된 16세 이하의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정책 사항으로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아동과 청소년의 휴대 전화 이용은 반드시 필요한 통화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도록 정부는 예방적 접근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시간 통화는 전자파의 노출을 증가시키므로 휴대 전화 통화를 가능한 짧게 하도록 강력한 홍보를 전개해야 하며, 부모들은 자녀들이 휴대 전화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생활에 불편함이 없음을 훈련시켜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전자파 중첩 지역이 학교 건물이나 운동장의 특정 부분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학교 또는 부모들이 우려를 표명하면, 기지국 운영자는 전파 방출 패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1996년부터 미국 FCC는 자국에서 판매되는 휴대 전화와 개인 통신 장비에 대한 전자파를 규제하기 시작했다. FCC는 전자파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이드라인에서는 전자파의 수준을 앞서 언급한 SAR에 의해서 측정하며, 전자파가 암, 두통, 현기증, 기억 감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FCC와 FDA는 휴대 전화의 전자파에 대해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공동으로 웹사이트(<http://www.fcc.gov/oet/rfsafety>)를 운영하고 있다. 웹 사이트에서는 휴대 전화를 포함하여 개발되고 있는 모바일 미디어의 현황, 전자파의 피해를 다루는 연구의 결과들, 모바일 미디어와 전자파 관련 여러 이슈들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하고 있다. 또, FCC는 전자파에 대한 피해를 상당할 수 있는 전화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FCC는 전자파 기준을 초과한 휴대 전화의 판매를 승인하지 않고 있으며, 단말기 제조자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전자파와 관련된 건강상 위험을 반드시 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FCC는 제조사가 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최대의 SAR값을 공개하도록 요청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업체들은 자신들이 생산하는 단말기의 SAR값을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FCC는 웹 사이트에서 이러한 정보에 링크를 연결하고 있다. 흥미로운 정책 가운데 하나는 휴대 전화가 맥박 조정기의 정상적 작동을 막을 수 있으므로, FCC와 FDA는 웹 사이트에서 두 기기의 동시 사용이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서 알리고 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 계층이 전자파의 위험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휴대 전화의 사용 시간을 줄이고 이용자와 무선 미디어와의 거리를 멀게 하는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다(성윤숙 박한우, 2006).

이상에서 언급한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정보 통신 선진국에서 전자파가 인체에 끼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휴대 전화나 개인 통신 장비와 같은 전자 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인체에 유해할 수도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디지털 교과서는 청소년들의 신체 발달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디지털 교과서가 한창 성장 발달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연구가 국내에서도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

III. 경제적 측면

현재 디지털 교과서를 볼 수 있는 기기는 하나에 30~60만 원씩 하고, 또 디지털 교과서 파일도

디지털 교과서 저작권자는 복제 방지를 위해서 특수한 장치를 해 둘 것이지만, 해커들은 이러한 장치를 무력화시키고 복제를 시도할 것이다. 해킹 기술을 익힌 청소년들도 이러한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 만일 복제 방지 장치를 해 두지 않은 디지털 교과서의 경우 손쉽게 복제 및 변조가 가능하여 무의식중에 청소년들이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

종이 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다. 따라서, 학교나 정부의 보조 없이는 모든 학생들이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기는 어렵다.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디지털 기기는 다른 전자 제품과 같이 분실, 도난 또는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충격에 약한 전자 기기는 장난을 좋아하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쉽게 손상될 수 있다.

새로운 디지털 교과서를 살 때, 기존의 것과 호환성이 없을 경우 새롭게 기기를 사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 또, 종이책은 친구들끼리 돌려가며 읽을 수 있지만,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복제 방지 장치를 해 둔 디지털 교과서의 경우 다른 사람들과 돌려가며 읽기 어렵다.

IV. 법적 측면

디지털 교과서에 관한 논의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저작권 문제이다. 디지털 교과서 저작권자는 복제 방지를 위해서 특수한 장치를 해 둘 것이지만, 해커들은 이러한 장치를 무력화시키고 복제를 시도할 것이다. 해킹 기술을 익힌 청소년들도 이러한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 만일 복제 방지 장치를 해 두지 않은 디지털 교과서의 경우 손쉽게 복제 및 변조가 가능하여 무의식중에 청소년들이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에게 지적 재산권 또는 저작권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또 윤리 도덕적으로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도록 교육과 홍보를 해야 할 것이다.

디지털 교과서 내용을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청소년 이용자들이 어떤 내용을 얼마나 활용하는지 점점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에게 사생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디지털 교과서를 이용할 때 개인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V. 기술적 측면

최근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와 관련 기술 분야에서 잘 알려진 이브러리(ebrary)는 2007년 3월 전세계 552개 학교 도서관, 공립 및 사립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서 583명으로부터 모은 설문 조사 결과를 지난 6월 12일 발표했다. 이 ‘글로벌 전자책/e-Book 설문 조사(Global eBook Survey)’ 결과에 따르면, 전자책 사용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은 ‘전자책(의 존재)에 대한 인식(인지) 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응답자들은 ‘읽기 어려움’, ‘플랫폼 사용의 어려움’, 그리고 ‘사용 방법에 대한 훈련 부족’을 손꼽았다.

이 설문 결과는 비록 도서관 사서(응답자의

77%는 학교 도서관 사서들임.)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향후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교과서, 즉 전자책 보급 및 활용을 위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디지털 교과서는 많은 정보를 작은 기기에 담을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교과서는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수한 장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읽기 위해서는 그에 알맞은 기기가 필요하다. 그런데 디지털 교과서를 보기 위한 소프트웨어나 기기가 아직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학생들은 특정 디지털 교과서를 살 때마다 새로운 기기를 사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디지털 교과서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전송하는 컴퓨터 서버는 마그네틱 하드 드라이브 디스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깨지거나 데이터가 완전히 삭제될 위험을 안고 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나 코딩 방법이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오늘 저장한 디지털 교과서의 데이터를 내일 볼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다. 이를테면, 1990년대 중반까지도 사용하던 5.5인치 컴퓨터 플로피 디스크에 저장한 데이터를 지금 읽으려면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 크기의 디스크 드라이브를 장착한 컴퓨터를 생산하지 않기 때문이다.

스크린 해상도나 명암이 종이책에 비하여 훨씬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눈을 해칠 수 있다. 그리고 스크린은 보통 유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깨질 경우 청소년들의 신체를 손상시킬 위험이 있다.

또, 어떤 경우 디지털 교과서는 인쇄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고, 배터리가 사용 중에 떨어질 수 있어 사용하기 불편한 점이 있다. 디지털 교과서는 종이 책과는 달리 해변에 가져갈 수 없는 불편함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왜냐하면 무겁고 배터리가 제한되어 있고, 또 물에 묻으면 망가지기 때문이다.

VI. 맺음말

디지털 교과서는 많은 장점도 지니고 있지만, 단점 또한 지니고 있다. 디지털 교과서는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을 디지털 기기에 의존 또는 중독되도록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글은 이 점을 가장 강조하였다. 디지털 교과서는 청소년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고, 종이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비싸고, 저작권 침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디지털 교과서의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가 표준화되지 않아 이용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겨 주며, 청소년들은 부정확한 웹 정보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면서 개인 정보를 잘 관리하지 않을 경우 사생활 침해를 당할 수 있다. **연**

참고 문헌

- 성윤숙 박한우. 청소년의 뉴미디어 이용 현황과 문제점 및 대응 방안:바일을 중심으로. 서울:한국청소년개발원, 2006.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해외 디지털 콘텐츠 산업 조사 연구:디지털 콘텐츠유 통편, 2004.
- E-book. http://en.wikipedia.org/wiki/E-book#_note-0
- James, B. F.. *The Electronic Book and PDA:Looking Beyond the Physical Codex*, 2004. <http://www.scinet.cc/articles/ebook/electronicbook.html>.

어머님들의 높은 요구에 부응하는 학교로

-전국 교육과정 100대 우수 학교-

글 김병규(청주원평중학교 교감)



I. 학교 교육에 대하여 획기적인 구상의 시작

2005년 9월 1일자로 원평중학교에 부임한 다음 날, 어머니회장단의 방문이 있었다. 교장실로 어머니회 장단에게 인사하러 들어갔더니 두 가지 질문이 들어왔다. 하나는 “이 학교에 얼마나 계실 건가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어떻게 가르치실 건가요?”이었다.

전임 교감들이 대부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떠난 형편이라 처음 질문은 예상하고 있었으나, 전혀 예상치 않던 두 번째 질문은 부임을 앞두고 점검해 본 내용들을 전면 수정하여 획기적으로 학교를 변화할 구상이 있어야 함을 느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추진 과제를 설정하였다.

원평중학교 단기 추진 과제

- 학생들의 실력을 증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
- 안방처럼 편안한 학교로 폭력이 제로화된 학교를 만들려면 ?
- 다양한 체험 활동으로 훗날 원평중학교를 회상할 때 행복한 추억만 남게 하려면 ?

위의 과제를 염두에 두고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입안하였다. 교육의 시작은 교실에서 비롯되므로 학급 중심, 담임 중심의 학교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로써 작은 결과이지만, 전국 교육과정 100대 우수 학교 중에서 최우수 학교로 선정되어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표창도 받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우리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력 제고와 품성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몇 가지만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II. 학생 중심 맞춤형 수준별 교육 활동 전개

학생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한 수준별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과 함께 다양성을 중시하고 창의성을 신장시키는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학습자 중심의 교육으로, 평등성과 수월성이 조화롭게 추구되는 교육으로, 그리고 획일적인 지식 위주에서 다원적인 가치와 다양성을 강조하는 교육으로 탈바꿈하며 21세기 사회 전반의 총체적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는 선구적인 인재를 양성한다.

1. 운영의 실제

가. 원평 e-class(사이버 가정 학습) 운영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 환경 조성

‘원평e-class’는 교과별 사이버 학습이다. 본교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시간은 20~30분 내외로 하였고, 2006년에는 아침 자습 시간(08:30~08:50)에 학급별로 실시하였으며, 2007년에는 독서 시간 운영 후 방과 후 교육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에게 학급에서 학교 홈 페이지에 접속하여 학습하고, 가정에서도 자율적인 학습을 유도하였다.

나. 상위 수준 학생에게는 WISE 멘토링제 실시

6월 상위권 학생의 수학, 과학에 대한 흥미 유발 및 학력 제고와 학생들의 이공 계열 진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자 추진하였으며, 토요 휴업일에 수학과 과학 분야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월2회 수학, 과학 수업을 실시하였다.

1학년 상위권 희망 학생으로 30명 내외로 학급을 구성(여학생 50% 이상)하여, 금년 4월부터 토요 휴무일에 각 2시간(10:00~12:00)씩 학기당 4일 8시간씩 운영하고 있다.



다. 중상위권 학생에게는 대학생 멘토링제로 운영

대학생 멘토링은 중상위권 학생으로 희망자에게 대학생 멘토를 지정하여 학력을 올리고자 하였다. 서원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하여 1, 2학년 대학생들이 4월부터 12월까지 매일 방과 후 2시간씩 5개 과목별로 희망하는 학생을 지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대학생은 교생 실습 이전에 현장 교수 기회를 갖는 동시에 봉사 학점을 이수받고, 학생은 잘 모르는 내용을 언니와 누나에게 배우는 것처럼 정확한 지도를 받게 되었다.



라. 방과 후 학교 특기 적성 프로그램 운영

학생의 수준과 희망을 고려하여 학생 선택형 수준별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맞춤형 방과 후 프로그램으

로 방과 후 교육의 활성화를 기하였다. 이로써 학생의 특기와 적성을 계발함과 동시에 학원으로 물리는 현상을 막고자 함이었다. 교과협의회를 통하여 49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가을의 원빛 한마당은 이들 방과 후 교육 참여자들의 결과를 위주로 구성하고자 한다.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하여 도교육청 연구 학교로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다.



마. '수학 사랑반' 운영으로 협동 학습 전개

2007년도 입학생이 줄어 3개 학급이 남게 되어 그 중의 하나로 수학을 모둠별로 충분히 전개할 수 있는 교실을 구성하였다. 교실 이름을 '수학 사랑반'으로 명명하여 모둠 학습과 협동 학습을 실시할 수 있도록 탁자와 의자를 배치하였다. 수학 사랑반에서는 정규 교과 및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으로 수학 심화와 보충 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바. 관심과 대화로 상호 이해 증진하며, 평생 잊지 못할 추억 공유하기

(1) '아버지와 의 정감 있는 대화 캠프' 운영

학생들의 문제는 부모님과 의 대화 부족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아 부모님과 만남의 기회를 통하여 학생 지도와 더불어 화목한 가정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2006년 9월에 보은 알프스 수련원에서 처음 실시한 캠프에는 38명이 참가하였는데 입소문이 좋은 때문에 2007년 5월 청천 자연 학습원의 캠프에는 69명이 참가하였으며, 참가 아버지들이 '좋은 아빠'라는 모임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다음 학년에는 더욱더 많은 참가가 있을 것으로 보여, 프로그램도 대폭 수정하고 있다.



캠프 참가자 기념 촬영



심성 수련 활동

(2) '사제 간 숲 속의 대화' 운영

흥금을 터놓은 대화는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과 교사들이 고민과 장래 진로 문제 등을 대화로 조언을 해 주는 시간을 '사제 간 숲 속의 대화'로 명명하여 직원 체육 시간에 운영하였다.

학기 중에 1회씩 실시하되, 1학기에는 학급 실장과, 2학기 중에는 대화가 집중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여 2006년 10월에는 단풍이 멋진 낙가산을 요선도 학생들과 등산하였고, 2007년 5월 4일에는 학급 실장과 백화산을 오르며 담임과 학급 경영에 대한 계획을 논의하도록 하였다. 가을에는 다시 대화가 필요한 학생들과 등산을 계획하고 있다.



사. 배움터 지킴이로 학교를 편안하게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이 없고 웃음, 사랑, 꿈이 넘치는 화목하고 안방처럼 편안한 교실을 만들고자 배움터 지킴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배움터 지킴이는 교육계 원로와 경찰계 원로가 상시 학교에 근무하면서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제도이다.

전년도에 이어 계속 사업으로 추진한 때문에 학생이나 교사들의 호응 속에서 안방처럼 편안한 학교 환경을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Ⅲ. '꿈과 보람의 산실, 미래의 정원' 원평중학교

원평중학교 현관에는 교직원들의 소망을 담아 적은 글귀가 있다. '꿈과 보람의 산실, 미래의 정원'. 교육 계획서를 비롯하여 각종 인쇄물의 표지에 반드시 강조하고 있는 이 말은 원평인의 밝은 미래를 예측하며, 우리가 키우는 학생들이 글로벌 시대의 리더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함의가 있다. 학생들의 보람찬 현재와 보다 행복할 미래는 우리 가르치는 사람들의 몫이다. **연**



국기 교육과정 기준 개발에서 사회적 요구 분석



글 백경선(서울도곡초등학교 교사)

I. 들어가며

흔히 근대 민족 국가 성립 이후 학교 교육은 사회의 유지와 개선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 교사, 재정, 교육 제도 등 사회적 자원을 동원해서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들의 사회적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적 과업(social enterprise)으로 인식되어 왔다. 또,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역할을 수행하는 교육과정에도 사회적 요구가 반영되도록 많은 압력을 행사해 온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에서 교육과정 기준을 개발하고, 개발된 국가 교육과정 기준은 그 영향력이 모든 초 중등학교의 학생에게 미치며, 단위 학교에 대해서도 상당한 강제성을 띠고 있다. 또, 의무교육기의 교육과정은 한 국가 사회의 역사, 전통, 문화, 언어 등을 전수함으로써 사회 공동체의 형성과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기초적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더욱 사회 지향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가 교육과정 기준 개발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요구 분석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국가 교육과정 기준 개발에서 사회적 요구 분석은 학습자, 교사, 교육 관련 종사자, 학부모 일부에게 교육 및 교육 과정에 대한 인식, 만족도 또는 요구 등을 단순한

설문 방식으로 조사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사회적 요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 또, 각 교육 관련 집단 요구의 상충으로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권력 투쟁’으로까지 표현하기도 한다. 다원화 사회에서 교육과정에 대한 사회 각 집단의 요구는 더욱 커질 것이며, 교육과정에 이들의 요구를 모두 담아 낼 수 없는 상황에서 사회적 요구를 분석하는 체제를 확립하지 않으면 교육과정 개발 과정의 혼란은 계속될 것이고, 그러한 혼란의 제1차적 피해자는 학습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한다.

교육은 현재 그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에게 미래를 준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과정은 미래 지향적이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것이 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전제를 두고 우리나라의 국가 교육과정 기준 개발에서 사회적 요구 분석의 실태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국가 교육과정 기준 개발에서 사회적 요구 분석의 문제점

사회적 요구 분석이란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사회의 유지와 개선을 위하여 교육과정 총론의 교



기존의 요구 분석은 일회성 분석에 그쳐 사회적 요구의 변화 추이를 관찰할 수 없다. 요구 분석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져 자료가 축적되면, 그것을 통해서 사회적 요구의 일정한 형태의 패턴을 파악할 수 있고, 사회적 요구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될 수 있으나 일회성 요구 조사는 이러한 자료의 축적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육 목표와 기본 방향 및 교과 교육과정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에 대하여 사회 변화의 흐름과 거시적 요구, 사회 구성원들의 의견 등을 찾아 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존 교육과정 개발시 요구 분석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기존 국가 교육과정 기준 개발에서의 요구 분석에 대한 문제점을 그 대상 집단, 내용, 방법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

첫째, 요구 분석 대상 집단이 지니는 한계성을 지적할 수 있다. 요구 분석의 목적 자체가 사회적 요구를 수렴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나, 요구 분석 대상자를 대부분 교육계 내부인 교사, 학생, 학부모, 교육 전문직 등으로 국한하여 교육 및 교육과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폭넓게 수렴하는 데 한계를 지니게 되었다.

둘째, 요구 분석 내용상의 문제점이다. 한 국가의 교육과정 기준 개발에서의 요구 분석은 최소한 사회의 변화상과 그에 따른 사회적 요구를 총체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나, 기존의 요구 분석 내용은 그러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또, 요구 분석 대상자의 수준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 요구 분석 대상자들의 개별 성향을 고려하지 않는 내용 등으로 이루어져 요구 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저하시켰다.

셋째, 요구 분석 기법이 가지는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기존의 요구 분석 기법은 요구 분석의 내용과 관계 없이 대부분 설문 조사에 의존하고 있는

한계를 지닌다. 즉, 요구 분석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요구 분석의 기법이 달라져야 하나, 대부분 설문 조사에 의한 정량적 분석 기법에 치중하였다. 때로는 설문 조사보다 기존의 자료나 연구 결과 등이 요구 분석의 자료로 더 신뢰받을 수 있으며, 몇몇 전문가의 토론이 수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보다 심도 있는 요구를 추출해 낼 수 있다.

넷째, 요구 분석의 횟수가 일회성에 그치거나 기간이 단기적이다. 기존의 요구 분석은 일회성 분석에 그쳐 사회적 요구의 변화 추이를 관찰할 수 없다. 요구 분석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져 자료가 축적되면, 그것을 통해서 사회적 요구의 일정한 형태의 패턴을 파악할 수 있고, 사회적 요구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될 수 있으나 일회성 요구 조사는 이러한 자료의 축적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아울러 요구 분석의 기간이 2~4주로 너무 짧아 다양한 사회의 목소리를 듣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사회의 대표적 인사, 학습자 등의 교육과정적 요구를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하기 위한 전집, 또는 표집한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어떠한 인프라도 구축해 두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요구 분석 결과 제시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요구 분석을 통해 사회적 요구가 확인되면 요구의 원인과 함께 해결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 해결 방안의 제시에는 우선 순위가

결정되어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선 순위 결정은 요구 분석의 실효성을 높여 주는 중요한 과정이다. 왜냐하면 의사 결정자들의 선택을 돕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의 요구 분석 보고서의 결과 분석은 대부분 설문 순서에 의한 나열에 그쳐 의사 결정자로 하여금 요구 분석 결과의 활용을 어렵게 만들어 이를 활용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의문을 가지게 한다.

Ⅲ. 국가 교육과정 기준 개발에서 사회적 요구 분석의 개선 방향

국가 교육과정 기준 개발에서 사회적 요구 분석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여기서는 요구 분석의 절차와 내용, 대상 집단, 방법 등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나라 국가 교육과정 기준 개발에서의 사회적 요구 분석의 문제점, 요구 분석의 이론 및 사회의 변화상 등에 비추어 탐색함으로써 국가 교육과정 기준 개발에서 요구 분석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 교육과정 기준 개발에서 실시하는 요구 분석의 일반적인 절차 확립이 필요하다. 이는 기존의 국가 교육과정 기준 개발시 요구 분석이 그 실행자에 따라, 그리고 교육과정 개정 시기에 따라 천차만별로 진행되어 온 요구 분석의 난맥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정한 요구 분석 절차를 확립하고 그 절차에 따라 요구 분석을 실시하면 요구 분석의 결과를 누적시켜 교육과정 개정에서 요구 분석에 대한 변화의 추이, 일정한 패턴 등을 확인하고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질 수 있다.

둘째, 국가 교육과정 기준 개발을 위한 요구 분석은 공간적으로는 세계의 변화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유지와 존립 및 변화와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국가 교육과정 기준 개발에서의 요구 분석은 세계 수준, 국

가 수준, 지역 수준에서 요구의 원천을 추출하여야 한다. 국가 교육과정 기준 개발에서도 세계의 변화와 흐름에 대처할 수 있고, 우리나라가 처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각각의 지역이 가진 개별적 요구를 국가 교육과정 기준에 반영할 수는 없지만, 지역 수준에서 사회적 요구를 수렴하고 반영하여 지역적 특성을 살리는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교육이 사회의 산물이며, 교육과정이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적 역할을 수행하기에 교육과정 개발에서 사회적 요구 분석은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협의의 교육 관련자를 대상으로 요구 분석을 실시하는 관행을 버리고 각 분야의 석학, 각 분야의 실천가, 정부, 지역 사회 전문가, 교육학자, 교과 교육 전문가, 교원, 학부모 등에 대한 폭넓은 요구 분석이 필요하다.

넷째, 요구 분석 기법의 다양화가 요구된다. 그동안 요구 분석에서 사용된 연구 기법은 대부분 정량적 방법인 설문 조사에 의한 통계 처리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단일의 정량적 연구 기법으로는 사회적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요구 분석의 대상, 내용 등에 따라 요구 분석의 기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으며, 미래와 연결된 사회적 요구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양한 미래 예측 기법이 동원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요구 분석이 주기적,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요구 분석이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교육과정 개정 목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회적 요구는 일정한 주기로 지속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미래 예측에 대한 신뢰성 제고는 충분한 데이터를 기초로 과학적 조사 방법론의 적용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적어도 4, 5개의 방법론과 10년치 이상의 데이터가 요구된다.



사회적 요구를 교육과정에 담아 내야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유용한 교육을 전개할 수 있다는 명제가 참이라면 기존의 피상적인 요구 분석의
관행을 깨고 새로운 요구 분석의 틀을 확립해야 한다. 또, 수시로 정치적 영향이나
특정 집단의 요구를 교육과정적 정당성 검토 없이 졸속적으로 반영하는
현실도 바꾸어 나가야 한다.



또, 직업과 고용 분야의 패널 데이터 구축을 통해서 사회의 교육과정적 요구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인프라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요구 분석 결과는 다양한 준거를 통해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우선 순위를 제시해 주는 것은 의사 결정자로 하여금 의사 결정을 수월하게 해 주는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요구의 우선 순위 결정의 준거는 중요도와 실현 가능성이다. 그러나 중요도와 실현 가능성 사이에 조정 준거가 없어 어느 것에도 무게를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준거 외에 조정 준거로서 긴급성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IV. 맺으며

사회적 요구는 학습자의 요구와 더불어 교육과정을 결정하는 양대 축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사회적 요구를 교육과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당위론에는 많은 교육과정 학자들과 교육과정 개발자들이 동의하면서도 총론과 교과 교육과정과의 괴리, 교과 간의 영역 다툼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요구가 교육과정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현대와 같이 다원화된 사회에서 다양한 사회적 요구의 공통 분

모를 추출하고, 교육적으로 유목적적이며, 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회적 요구를 찾아내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다.

그러나 사회적 요구를 교육과정에 담아 내야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유용한 교육을 전개할 수 있다는 명제가 참이라면 기존의 피상적인 요구 분석의 관행을 깨고 새로운 요구 분석의 틀을 확립해야 한다. 또, 수시로 정치적 영향이나 특정 집단의 요구를 교육과정적 정당성 검토 없이 졸속적으로 반영하는 현실도 바꾸어 나가야 한다.

현대는 지식 기반 사회이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예측하였듯이 미래 또한 지식이 사회의 생산성을 창출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될 전망이다. 또, 지식관의 변화로 기존 지식을 습득하는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닌 기존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 내거나, 새로운 지식을 창조해 내는 능력이 필요한 사회가 되었다. 이러한 지식관의 변화는 학교 교육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와야 함을 의미한다.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학교 교육이 그 동안 내용 중심에 치우쳐 있었으며, 이러한 교육으로는 지식 기반 사회에서 요구되는 능동적인 창조인을 육성하기에 부족하다는 반성과 함께 학교 교육에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변화의 공통점은 학생들에게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시키기 위해 핵심 역량(key competencies)들을 분석하고 그러한 핵심 역량

을 달성시키기 위해 교육과정, 교수 학습 방식, 평가 등에 있어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교육과정 측면에서는 교과라는 틀만으로 지식 기반 사회에 적절한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과 사회적 요구는 현대 사회의 변화의 속도와 함께 긴급성과 복잡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존의 교과 중심 교육과정 설계로는 이러한 요구에 대처할 수 없다는 인식이 그 기저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교육과정도 이제 교과 중심 교육과정 설계에서 벗어나 범교육과정(cross-curricula)적 설계를 시도할 때이다. 이를 위해 현행의 교육과정처럼 모든 학년에 필수 교과를 과다하게 부과하지 말고, 학생의 발달과 교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수 교과 중에서 상대적으로 개인과 사회에 유용성이 적은 교과의 수업 시수를 줄이고, 특정 학년에서 집중적으로 이수하게 하여 교육과정에 여유를 줌으로써 범교육과정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여 지식 기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신장시켜 줌으로써 사회적 요구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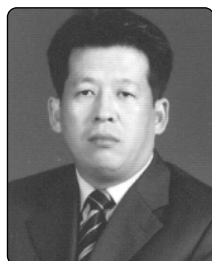
참고 문헌

- 강신웅 김기석 이은진 김정원.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학생 교원 학부모의 요구 및 의견 조사 연구. 교육부, 1991.
- 권영민.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개발 체제 분석 : 1954~1997년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개발 과정을 중심으로. 박사 학위 논문. 인하대학교, 2004.
- 김기석 문용린 박성익 김재춘.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요구 조사.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1996.
- 김성기 성열관. 미래 교육 전망에 대한 선행 연구 분석. 교육인적자원부 정책 연구 과제, 2005.
- 김재복 김경자 김규환 김두정 김용식 박순경 이용숙. 현행 교육과정의 분석 평가 연구: 제6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1996.
- 박도순 홍후조. 교육과정과 교육 평가(제3판). 문음사, 2006.
- 박순경 허경철 이광우 김평국 이미숙 정영근. 교육과정 개정 관련 국가 사회적 요구 조사. 연구 보고 CEC 2004-4-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4.
- 백경선 홍후조. 국가 교육과정 기준 개발에서 사회적 요구 분석 방법 연구. 한국교육학연구 12(1) 5-30, 2006.
- 소경희. 학교 지식의 변화 요구에 따른 대안적 교육과정 설계 방향 탐색. 교육과정연구 24(3) 39-59, 2006.
- 안귀덕 배호순 현주. 한국 중 고등학교 학생의 관심 및 요구 조사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80.
- 최정임.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한 요구 분석 실천 가이드. 학지사, 2002.
- 최현규. 미래 분석은 추적 게임이다. KISTI 동향과 분석, Vol. 4(10월 12일자), 2006. <http://www.yeskist.net>.
- 허경철 김재복 박혜정 조영태 김양분 조덕주 박순경 외.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86.
- Witkin, B. R., & Altschuld, J. W.. *Planning and conducting Needs Assessments : A practical guide*. CA: SAGE Publications, 1995.

1) 이 글에서 제기하는 국가 교육과정 기준 개발에서의 사회적 요구 분석의 문제점은 제4차 교육과정기부터 2007년에 개정된 '2007년 개정 교육과정'까지의 국가 교육과정 기준 개발시 수행되었던 요구 분석 관련 문헌을 분석하여 추출한 것이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바람직한 사회과 교과서 개발



글 **한춘희**(서울천동초등학교 교사)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월 28일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을 수정 보완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을 개정 고시하였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은 2009년부터 초등학교 1, 2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초·중등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교육과정이 개정된 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좋은 교과서를 개발하는 일이다. 여기에서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개발시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I.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사회 교과서

아직도 교과서는 교사 및 학부모, 학생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교육 내용이자 교수 학습 자료이다. 교과서의 역할은 다양하지만, 교사들에게는 학생들에게 가르쳐 줄 기본적인 교육 내용을 알 수 있고, 학생들에게는 배우고자 하는 교육 내용 및 방법을 알고 자기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학습할 수 있고, 학부모들에게는 학생들이 배운 교육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친절한 교과서가 되어야 한다. 제5차 교육과정부터 사회과는 사회 교과서와 사회과 탐구 2종이 발행되고 있다. 사회 교과서는 사회과에서 다루어야 할 기본적인 사실과 개념, 일 변화 등 교육 내용을 문제 해결형으로 개발한 교과

서이고, 사회과 탐구는 사회 교과서의 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자료와 활동으로 구성된 보조 교과서이다. 사회과를 가르치는 데 있어 다양한 교수 학습 자료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지금까지 사회 교과서와 사회과 탐구를 따로 개발하여 보급하지 말고, 한 권으로 통합하여 사회과의 기본 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여기에 필요한 교수 학습 자료(읽기 자료, 도표, 사진, 지도, 조사, 토의 등)를 함께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권으로 개발되어 보급된 교과서를 한 권으로 통합하여 보급하고, 외국 의 워크북(workbook)처럼 우리나라도 사회과 학습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모아서 만든 워크북도 개발되어 보급되어야 한다.

II. 질 좋은 사회과 교과서

질 좋은 사회과 교과서는 크게 내용 구성의 내적 측면과 외적 체제 면에서 높은 질을 유지하고 있는 교과서이다. 질이 좋은 사회과 교과서는 내용 구성에서 사회과 교육과정의 취지를 잘 구현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이 적절한 수준에서 학생들의 흥미와 경험을 잘 살린 교과서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효율적인 ‘교수 학습 자료’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사회과 교과서이다. 곧, 본문, 사진, 삽화 등의 제시가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에 도움

을 줄 수 있도록 구성하고, 질문, 탐구 과제, 선택 학습 활동 등이 적절히 제시되어 있으며, 사회과 교과서의 학습에 보완적인 기능을 하는 다양한 교수 학습 자료가 동시에 개발되어 교사나 학생이 교수 학습 활동을 하는 데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과 교과서가 개발되기 위해서는 사회과 교과용 도서 개발에 대한 과감한 예산 지원과 이에 따른 법령의 개정, 그리고 교과서 집필자들의 전문화 및 상시적이고 충분한 연구 개발 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질 좋은 사회과 교과서는 제시된 교육 내용뿐만 아니라, 내용을 제시하는 외적 체제의 질도 좋아야 한다. 곧, 학생들이 흥미 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아름답게 구성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현재 판매되고 있는 다양한 일반 도서 수준 이상으로 사회과 교과서도 편집이나 디자인 등의 측면에서 심미적인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과 교과서는 학생과 교사들이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주된 교육 자료이므로 미적으로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견고하고 실용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과 교과서의 크기, 지질, 제본 등의 측면들이 종합적으로 연구되고 개선되어야 한다.

Ⅲ. 다양한 매체와 형태가 어우러진 사회과 교과서

사회과의 교과 특성, 수업과 학습의 교과서 의존도에 따라 사회과 교과서를 학생 개인용, 교사용, 학급용, 학년용, 다학년용, 학교용 등으로 다양하게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 현재는 사회과의 특성이나 수업과 학습에서 교재 의존도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교과에 걸쳐 학생이 1인 1책을 소유하도록 하고 있다. 즉,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목은 모두 교과서로 만들고, 교과별로 학생 1인당 1책 이상 주어야 한다는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회과는 초등학교 교과목 중에서 교과의 특성상 가장 많은 교수 학습 자료가 필요하다. 다양한 학생용, 학급용, 학년용 사회과 교과서들이 보급되어

야만 사회과의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탐구 및 문제 해결, 의사 결정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현행처럼 일률적인 사회과 교과서와 사회과 탐구 발행 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 또, 미래의 정보 사회에 대비하여 사회과 교과서를 서책, 지물류의 자료에 한정하지 말고, 다양한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에서 개발 보급되어야 한다. 학교의 사용 여건과 사회과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가능한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CD-ROM 타이틀, ON-LINE 전자 매체로 전환하여 나가도록 한다. 요즘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e-Learning 체제와 연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풍부한 사회과 교과서가 개발 활용되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Ⅳ. 학생들의 수준별 학습이 가능한 사회과 교과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사회과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심화 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반영하지 않고, 교수 학습에서 수준별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흥미, 적성, 학습 능력 등에 따른 수준별 수업은 중요하다. 그러므로 제재 내용 속에서 보충 및 심화 과정이 적절하게 조화된 사회과 교과서, 학생들의 흥미와 능력의 차이에 따른 다양한 수준별 활동의 전개가 가능한 사회과 교과서, 하나의 주제에 읽기와 활동을 하면서 저절로 핵심 개념을 터득할 수 있는 사회과 교과서가 개발되어야 한다. 특히, 사회과 교과서는 학생들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학생들의 창의력과 사고력, 탐구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학생 중심의 사회과 교과서가 되도록 내용을 구성하고, 학생들이 학습 과정의 단계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 과정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 사회과 교과서는 학생들이 학습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실생활 중심의 사례와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의 효과를 올릴 수 있고,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내용이 학생 중심으로 구성



기본적으로 사회과는 교과 특성상 알아야 할 기본적인 사실과
개념, 그리고 일반화 등이 다른 교과서에 비하여 많은 것이 사실이다.
사회과에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개념 및 일반화 지식을 중심으로 사회과 수업을
전개하되, 사회과의 다른 영역의 목표도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사회과 교과서 구성도 달라져야 한다.



되어야 한다. 학생들의 학습 활동과 교사의 수행 평가가 통합되어 학생의 사고력 평가가 가능한 사회과 교과서가 개발되어야 한다. 사회과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학습 의욕을 유지시키고, 학습자의 지식 구성이 가능하고, 지역 사회의 실제적 과제를 통해 학생들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사회과 교과서가 개발되어야 한다.

V. 지식, 기능, 가치 태도 목표와 조화된 사회과 교과서

사회과의 목표는 크게 지식, 기능, 가치 태도로 나눌 수 있다. 학생들이 사회과를 싫어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암기 위주의 사회과 수업이다. 기본적으로 사회과는 교과 특성상 알아야 할 기본적인 사실과 개념, 그리고 일반화 등이 다른 교과서에 비하여 많은 것이 사실이다. 사회과에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개념 및 일반화 지식을 중심으로 사회과 수업을 전개하되, 사회과의 다른 영역의 목표도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사회과 교과서 구성도 달라져야 한다.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사회과의 목표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각 목표를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미국 사회과교육협의회(NCSS)에서 제시한 기능 목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 획득과 관련된 기능이다. 정보 획득과 관련된 기능은 크게 세 가지, 즉 읽기 기능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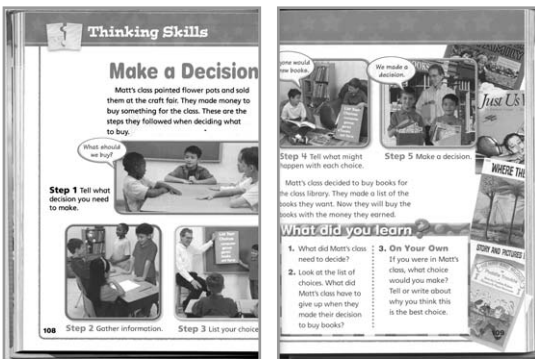
연구 기능, 참고 문헌과 정보 탐색 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 읽기 기능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알기 위해 읽는 것, 주제를 선택하기 위하여 단원과 주제를 활용하는 것, 중심 생각과 종속 생각을 구별하는 것, 공부하고 있는 주제와 관련된 문장을 선택하는 것, 그림이나 설명을 활용하는 것,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문맥적인 단서를 활용하는 것, 필수 용어와 어휘의 의미를 알기 위해 적절한 출처를 활용하는 것, 목적과 자료의 난이도에 적합하게 읽기 속도를 조절하는 기능이 포함된다. 연구 기능에는 책의 다양한 부분을 활용하는 것, 정보를 찾기 위해 핵심 단어, 굵은 글자, 색인을 활용하는 것, 여러 가지 지시 사항을 따르는 것이 포함된다. 참고 문헌과 정보 탐색 기능에는 백과 사전, 사전, 색인, 지도에 대한 안내와 방향 알기, 지도와 지구본에서 위치 찾기가 해당된다.

둘째, 정보를 조직 활용하는 기능은 말이나 글로 의사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이 여기에 해당된다.

셋째, 개인 간 관계 및 사회 참여에 대한 기능이다. 여기에는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쟁점들에 대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는 것, 사회적 행동이 요구되는 상황을 인식하는 것, 행동을 취하는 적절한 수단에 대해 개인 또는 타인들과 같이 하는 것, 자유, 사회적 정의, 그리고 인간의 권리 확대를 위해 힘쓰는 지배층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시민성과 관련된 사회적인 책임을 받아들이고 완수하는 것이 해당된다.

아울러 사회과 교과서와 관련하여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기능 목표를 따로 제시하고는 있으나 교과서에서는 기능 영역을 별도로 지도하도록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미국 사회과 교과서는 기능 영역의 지도를 단원이나 주제의 마지막 부분에 제시하여 별도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이 사고 기능(Think Skills) 중에서 의사 결정(Decision Making) 기능을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5단계로 나누어 지도하고 있다. ‘① 우리가 결정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기’, ‘② 필요한 정보 모으기’, ‘③ 선택한 목록 쓰기’, ‘④ 선택을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야기하기’, ‘⑤ 의사 결정하기’로 진행된다. 사회과의 중요한 목표인 기능 목표를 지도하기 위하여 교과서의 일정 부분을 할당하여 지도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기능 지도법이다. 우리나라 사회과 교과서도 기능 영역을 별도로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Ⅶ. 다양한 검정 사회과 교과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초등학교에서는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영어가 국정 교과서 체제에서 검정 체제로 옮겨 갔다.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는 여전히 국정 교과서이다. 교과서 제도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지만, 국가에서 많은 예산과 과감한 정책 지원을 할 수 없다면 과

감하게 사회과도 검정 교과서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초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은 공통 필수 교육과정이지만 다양한 검정 교과서 도입으로 한 단계 상승된 사회과 교과서가 되도록 해야 한다.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사회과 교과서도 이전 교과서보다는 나은 모습으로 태어났지만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사회과 교과서는 제7차 사회과 교과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학생들이 수준, 적성과 흥미, 관심을 가지고 탐구거리가 풍부한 교과서가 개발되어야 한다. 모든 교과서를 일률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과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교과서가 개발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학교에서 교육 내용을 안내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교과서이기 때문이다. **연**

참고 문헌

- 류연수. 제7차 교육과정에 의거한 초등학교 교과용 도서의 현황 타당도 분석 평가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2.
- 이종국. 한국의 교과서.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2.
- 이종국. 한국의 교과서 출판 변천사. 일진사, 2001.
- 최용규 외. 초등 사회 모범 교과서 연구 개발. 한국교원대학교 모범 교과서 개발위원회, 2003.
- 한국초등교육과정연구회.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교과서 활용 방법 개선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2001.
- 한춘희. 사회적 역할 중심의 초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탐색.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2007.
- NCSS Ad Hoc Committee.. *In Search of a Scope and Sequence for Social Studies: Report of the National Council for the Social Studies Task Force on Scope and Sequence*, Social Education, 53 October, 376-387, 1989.



글 김차진(주 프랑스 한국교육원장)

프랑스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정책

I. 들어가는 말

최근 우리나라 교육인적자원부가 중등 학교 국어, 국사, 도덕 교과를 검정화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교과서 제도의 한 획을 긋게 되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그 동안 ‘자유 발행제’로만 알고 있는 프랑스의 교과서 정책을 일괄함으로써 우리나라 교과서 제도의 방향을 잡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¹⁾

교과서 정책은 관계자 및 관계 기관이 많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하는 바이다. 다만 다른 나라와 특정 제도를 비교하는 데는 주제국의 역사와 문화, 교과서 정책의 변모 과정이 우리나라와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수용 가능한지 여부 등을 우리나라와 대등한 입장에서 판단해 보는 정책 입안자의 안목이 중요하다고 본다.

II. 프랑스의 교과서 제도 변천사

프랑스에서도 처음부터 자유 발행제가 시행된 것은 아니었다. 1793년에 프랑스 정부는 국민들에게 기초 지식을 전수하고 공화국 이념에 일치하는 시민의 도덕성을 기르기 위해 국정 교과서 제도를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그 후, 초등(1833년 Guizot

법), 중등(1850년 Falloux법) 교육이 자유화되면서 교과서 제작은 사립 출판사의 몫으로 넘어가게 된다.

19세기 전반부터 크고 작은 출판사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남에 따라 교과서 생산도 급증하게 되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교과서 생산을 조정하고자 교과서검정위원회 주관으로 ‘사전검 인정’을 받는 제도를 도입한다. 그 후에는 ‘거부제(veto)’를 도입하여 금지 대상으로 찍힌 책이 아니라면 전부 사용할 수 있도록 묵인하기도 했다.

또, 교사가 임의로 이미 골라 쓰고 있는 책을 검열해서 수준 미달이거나 내용상 위험하다고 판정되는 것만 제외시키는 ‘사후 인정’ 식으로 완화하다가 많은 교사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교과서 출판업계의 요구를 수용하여 19세기 말 줄르 페리 장관에 의해 지금과 같은 자유 발행제를 도입하게 된다.

프랑스 교과서 제도 변천 과정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정부가 교사들의 교과서 선택권을 일부 제한하고²⁾ 출판업계를 통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였겠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교사 노조와 출판업계의 요구에 따라 자유 발행제로 변모하여 온 일련의 과정을 엿볼 수 있다.

III. 프랑스의 교과서 제작, 보급 및 구입 절차

프랑스에서 교과서가 제작되고 학생들에게 보급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교과서 출판 시장과의 관련성, 시행상의 문제점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교과서 제작은 교육부가 교육과정을 고시하는 첫 단계로부터 시작된다. 둘째 단계는 고시된 교육과정 내용에 따라 책으로 엮어 내는 단계를 거쳐 일선교사들이 교과서를 선택하는 셋째 단계, 마지막으로 교과서를 보급하고 구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출판사(저작자 포함)는 교과서 내용 및 형식, 판매 등 일련의 과정에서 완전 자유경쟁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1. 교육과정 개정과 교과서

교육과정 개정 주기는 일정하지 않으나 전반적으로 한 교육과정을 상당히 오랜 기간 유지한다. 교육과정안이 바뀌게 되면 출판사들은 새로운 교육과정 안에 따라 교과서를 준비해야 하는데, 얼마만큼 정보를 빨리 입수해서 다른 회사보다 앞서 교과서를 퍼내느냐에 따라 판매 실적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정보 수집에 온 힘을 기울인다.

전 학년에 걸친 대폭 개정을 할 경우에는 학년별로 나누어 몇 년에 걸쳐 차등 실시를 하게 되므로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특정 학년만 개정하는 부분 개정인 경우에는 실행 시기도 빨라져 출판사들로서는 시간을 다투는 일이 된다. 그리하여 남보다 빠른 정보 수집을 위해서 온갖 종류의 정보망을 짜게 되는데, 교육부의 정책 관련 인사로부터 구역 장학관, 인맥이 넓은 교사에 이르기까지 모두 포섭의 대상이 된다.

최근 프랑스 교육부에서 ‘보충서’라는 이름으로 개정안에 관한 상세한 해설과 지시를 하면서 출판사들의 자유에 제동을 걸고 있다. 한편으로는 출판 시장이 교육학과 사회학 분야의 연구 및 학문 대상으로 정착되어 몇몇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기도 하다. 하지만 현행법에 의하면 이미 유효 기간을 넘긴

기존의 교과서들도 계속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교과서 시장에는 최근에 출간된 교과서뿐만 아니라 몇십 년 전에 출판된 것까지 그야말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교과서가 난무하고 있다.

게다가 출판사들이 교묘한 상술로 출판 연도를 눈가림하는 일도 많아서 교사들에게는 교육과정 개정 내용에 알맞은 교과서의 선택이 큰 문젯거리로 남아 있다. 출판 노조에서 해마다 신간 서적 목록과 통계 자료를 발행하여 길잡이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출판 연도, 해당 학년 등의 정확한 명시를 요구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보강되어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다.

2. 교과서 집필자 선정

교과서 집필진은 대부분 출판사 쪽에서 먼저 집필할 만한 사람을 선정하여 청탁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많은 현직 교사들이 자신들의 실제 수업 경험을 기초로 하여 원고를 만들어 출판사로 보내오기도 하지만 출판거리로 선택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한다. 출판사는 아무리 좋은 수업 내용이라든 그것을 곧바로 교과서화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다.

출판사들이 집필진을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는 것은 지은이의 능력보다는 지명도이다. 집필진의 유명세가 교과서 판매고를 올리는 데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출판사들로서는 학생들의 학업 수준을 잘 알고 있는 현직 교사의 참여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대부분의 출판사들은 직책상 교사들 사이에 많이 알려져 있고 영향력도 있는 장학관들을 선임하고 있다.

공동 집필자가 될 교사 선정은 대부분 선임된 장학관이나 출판사 자체의 교육위원들의 중개로 이루어지는데, 그 이유는 이들 모두 현직 교사와의 접촉이 잦아 가장 손쉽게 경험과 능력 있는 교사를 찾아 낼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평소에 많은 학교를 드나들면서 독창적인 교수 학습 자료집을 만들어 실제로 교실 수업에 적용하고

집필진의 유명세가 교과서 판매고를 올리는 데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출판사들로서는 학생들의 학업 수준을 잘 알고 있는 현직교사의 참여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대부분의 출판사들은 직책상 교사들 사이에 많이 알려져 있고 영향력도 있는 장학관들을 선임하고 있다.

있거나 교수 방법에 관한 남다른 아이디어가 있는 교사들을 눈여겨보아 두었다가 필요할 때 접촉하는데, 시장 가능성이 있을 만한 교수법은 상품화 대상으로 선택되기도 한다.

3. 교과서 집필

기존에 개인 또는 1~3명이 집필하던 방식에서 보통 5~6명이 모둠으로 집필하는 방식으로 대체되고 있다. 초등의 경우에는 선임된 구역 장학관이나 국립 사범대학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두서너명의 현직 초등 교사들로 짜고, 중등은 구역의 교수법 담당 장학관을 중심으로 현직 경험이 많은 1급 정교사, 즉 대학 교수 자격증을 갖춘 아그레제들로 짜는 것이 일반적인데 대개 대학 전공 교수들의 자문을 받는다.

이 때, 초 중등 교과서 모두 집필자 가운데 1명은 반드시 ‘교수자문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현장 교사들을 항상 접촉하며 지도와 연구를 해 오고 있는 이 교수위원들의 축적된 경험과 능력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기 위해서이다. 교수법 전공이 아닌 일반 장학관들은 학생용 교과서보다는 교사 양성용 책이나 자료 제작에 비교적 많이 참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출판사 쪽에서 미리 조사 연구해서 집필진을 구성하는 만큼 편찬되는 교과서의 질은 대부분 우수한 편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출판되는 양과 종류가 워낙 많아 전공 능력이 없는 이들

이 지은 수준 미달의 교과서도 상대적으로 많은 것도 사실이다. 저작자 인세는 출판사와 지은이들의 지명도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개 5%에서 10%정도가 되는데, 대부분이 공동으로 집필하기 때문에 판매에 크게 성공한 몇몇의 교과서 이외에는 집필진에게 큰 수입은 되지 못한다.

4. 내용 실험과 교정

교과서 내용 구상 및 집필이 끝나면 실제 편찬에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그 전에 내용 실험을 한다. 특히, 아동들의 반응을 예상하기 어려운 초등용 교과서는 이 내용 실험이 반드시 필요하다. 내용 실험이란 교과서 내용 중에서 몇 단원 또는 연습 문제들을 골라서 표준 선정 집단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 수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실험 후, 교사의 의견과 관찰한 학생들의 반응을 토대로 교과서의 내용이나 형식을 수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때, 실험을 맡아 줄 교사의 물색은 보통 학교 방문이 잦은 출판사의 교육위원들이 한다. 요구되는 실험 교사의 자질은 교수 경험이 많고 개방적이어야 하며 새로운 것에 대한 적응력이 있어야 하는데, 출판사들로서는 이러한 자질을 다 갖춘 믿을 만한 교사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게다가 실험 수업용으로 넘긴 자료가 경쟁 출판사로 흘러들어가 출판을 포기해야 하는 사태도 적잖게 생긴다고 한다.

출판된 교과서들을 보면 완전히 새로운 교수 방법을 채택한 것은 드물고 대개가 옛날 방식이나 내

용을 조금씩 고친 것들이거나 아니면 겉모양만 살짝 바꾼 것들이 많은데, 그 까닭으로는 기존의 교수법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교수법이 드물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장 교사들의 보수적인 수업 관습으로 인해 교과서로서의 판매는 안 되기 때문에 출판사 쪽에서 출판을 꺼리는 데 그 이유가 있다.

내용 실험이 끝나면 실제 편찬에 앞서 내용 검사와 표현 검사를 하기 위해 ‘세밀히 읽기’로 들어가는데, 각 출판사에서는 이를 위해 분야별 전문 요원을 비밀리에 따로 두고 있다고 한다. 철자법, 구두법에서부터 내용상으로 맞지 않는 부분까지 살살이 찾아 내는 것이 이들의 업무이다. 교과서 출판 과정에서 이 세밀히 읽기가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올바르게 분명한 국어 사용을 강조하는 프랑스 사회에서 잘못 쓰인 교과서는 많은 학생들의 언어 사용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하기 때문이다.

5. 출판 홍보 및 증정

여러 단계를 거쳐 교과서가 완성되면 출판사들은 판매를 위한 제품 홍보에 들어가게 된다.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출판사들은 연대 조직망을 짜서 전국의 교사 명세서를 만들어 공동 관리하고 있다. 이 교사 명세서를 참고로 각 출판사들은 전국의 학교로 홍보 자료를 보낼 뿐만 아니라 관련 교사들에게 신간 교과서를 증정하고 있다.

19세기 말에 출판사들이 판촉을 위해 스스로 시작한 이러한 교과서 증정 관습은 교육이 대중화된 오늘날에는 그 숫자도 만만치가 않은데다가 권당 책값도 많이 올라서 출판사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상당히 안겨 주고 있지만 판촉 전략상 계속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한다. 책을 실제로 보지도 않고 선택할 교사는 없기 때문이다.

증정 시기는 학년 말을 두 달 앞둔 5월이다. 그리하여 교사들은 방학 전에 개인적으로 증정본을 검토하고 교과 회의 및 교직원 심의를 거쳐서 선택

하기까지 2개월 정도의 시간을 가진다. 이 때, 출판사 쪽에서는 주문량을 잘 가늠해야 적정량의 교과서를 생산하여 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의 위험을 줄일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9월 새 학년에 맞추어 충분한 양의 교과서를 전국의 서점망에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교사들의 여론 및 결정 동향을 미리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출판사들끼리 ‘국제 교육 판촉 자문기구(CICEM)’라는 상설 연대 기구를 결성하여 지역별, 과목별로 선정 표준 집단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에 걸친 단계별 설문 조사를 실시하는데, 보통 여름 방학 전인 6월 말쯤이면 시장 판도가 드러난다. 조사 결과에 맞추어 7월에 재판 인쇄를 하여 8월까지의 전국의 지방 서점들에게 공급해서 9월 새 학년 개학에 맞추어 판매하게 된다. 내용 집필에서 완성본이 서점에 비치되기까지 실제로 교과서 제작에 필요한 시간은 최소한 24개월 정도이다.

6. 교과서 공급

교과서 공급은 공립학교에 한해서 중학교까지 무상 대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고등학교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지방 자치 단체나 국가가 교과서를 구입하여 각 학생에게 1년 동안 무료 대여를 해 주는 방식이다. 이러한 무상 대여는 19세기 말(1882년 줄르 페리법) 초등 교육이 의무화되면서 학습에 필요한 교과서도 함께 공급해야 한다는 방침 아래 1887년에 처음으로 무상 공급을 시도했다.

처음에는 각 학교나 지방 자치 단체 차원에서 초등용 교과서를 무상으로 대여해 오다가 1963년에 이르러 정식으로 법안을 수립하여 전국적으로 실행하게 되었다. 그 후, 1977년부터 1981년까지 중학교용을 점진적으로 무상화했으며 최근에는 고등학교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 자치 단체의 교과서 구입 원조는 의무 사항이 아닌 권장 사항이지만 대부분의 지방 자치 단체(91%)가 이를 실행하고 있다.

하지만 교과서 구입 보조금의 할당은 지방 자치 단체별로 경제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새 책을 정기적으로 구입하기 어려운 지역의 학교도 많다. 그래서 교육부가 정한 교과서 교체 연한은 4년이지만 실제로는 초등은 9년마다, 중학교는 6년마다 교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7. 교사들의 교과서 선택

교사들은 자신들이 가장 좋다고 판단되는 책을 선택할 수 있지만 각 교사가 개별적으로 교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장의 책임 아래 초등은 전체 교직원 회의, 중등은 교과별로 토론을 통해 결정하게 된다. 학교장은 교사들이 선택한 교과서가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의 보조금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고 구입한 교과서를 4년간 활용해야 한다는 방침이 준수되도록 감독할 의무가 있다.

현재 프랑스의 교사들은 교육부나 공신력 있는 공공 기관에서 펴낸 출판 목록이 없어 출판사 및 그 연합 단체에서 판매 홍보용으로 제작 배부하는 목록에 의거하여 교과서를 선택하고 있는 형편(약 70%)이다. 그리하여 교사들에게 교과서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급선무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75%의 교사들은 교과서 연구를 전담하는 연구 기관을 설치하여 분석과 비평을 근거로 한 정확한 교과서 정보와 교사 스스로 교과서를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 및 도구를 제작하여 공급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프랑스 교육부는 각자의 자유와 권리 존중이라는 명분으로 지은이와 출판사들에 대한 간섭과 통제를 꺼려, 소극적이고 분명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교사들 쪽에서는 어렵게 얻은 교과서 선택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 차원의 통제나 검열이 아닌 학술 연구 단체 차원의 중립적인 개입을 원하고 있다. 그리하여 최근에 이러한 실정을 잘 알고 있는 대학의 교사 양성 담당 교수들과 교수법 관련 연구자들이 앞장서서 사설 연구회를 만들어 교과서와

부속 교재들을 연구 분석하여 발표하는 연구 잡지를 펴내게 되었다.

8. 프랑스 교과서 제도의 문제점

하지만 프랑스도 나름대로의 문제점은 가지고 있다.

첫째, 교육부가 교육과정을 고시하는 과정에서 교과서 출판사, 구입 비용을 대는 지방 자치 단체(또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또, 교육과정 고시 내용이 교과서에 제대로 실렸는지, 교실에서 쓰이고 있는 교과서들이 고시된 교육과정에 알맞은 것인지 제대로 감독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둘째, 교과서 출판사 및 저작자들이 상업적인 이익과 목적에 맞추어 책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교과서에 대한 일정한 평가나 검증이 없다는 점이다.

셋째, 교사들이 교과서 시장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고 수많은 교과서 간의 차이점을 자세히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교사들은 개인의 의견이나 교육적인 신념을 바탕으로 교과서를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교과서를 구입하는 쪽에서 볼 때도 선택된 교과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검토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없이 대금만 지불해야 한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는 점이다.

IV. 프랑스의 교과서 출판 시장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프랑스도 출판 시장의 규모는 엄청나다.³⁾ 교과서 편찬에 참여하는 출판사들의 숫자도 방대하며 질도 다양하다. 주요 출판사들의 한해 교과서 출판 현황을 보면 나땃(Nathan), 아세뜨(Hachette), 아띠에(Hatier)와 같은 대형 출판사는 초·중등용으로 500여 종에 가까운 교과서 및 교수 학습 자료를 펴내고, 마냐르(Magnard), 보르다스(Bordas)는 각각 300여 종

을 내놓고 있으며 다른 출판사들도 보통 100여 종 이상을 펴낸다. 이로 말미암아 현장의 교사들은 사실상 교과서 선택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교수법의 최근 동향이나 관련 정보를 알아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출판사들은 다른 분야 기업체에 버금갈 정도로 조직적으로 움직인다. 경영진 아래에 유치부, 초등부, 어문, 인문 과학, 과학, 외국어, 기술, 교외 및 가정 학습 등의 부서로 세분하여 각 부서의 장과 그 산하 조직을 두어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방문 교사를 두어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까지 갖추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교육위원’이라고 불리는 임시직 판촉 담당을 20~30명씩 두어 일선 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방문 판촉도 하는데, 대부분이 일선 학교 경험이 있는 전직 교사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참고로 1789년부터 현재까지 생산된 교과서 중을 보면 모두 합쳐 10만 권에 이르고 있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도 국어 교과서, 수준별로도 초등용 국어 교과서 종류가 타 교과 5~10배나 되고 중학교 과정에서도 그 종류가 수학, 과학, 역사 지리에 비해 보통 서너 배가 넘는다고 한다. 1990년대 들어와서 세계화 물결과 함께 외국어 과목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그 교과서 수도 많이 늘어났지만 아직 국어 교과서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중학교 시기까지는 자기 나라의 말과 글을 철저히 훈련시켜 올바르게 정확한 국어 사용을 강조하는 프랑스의 모국어 교육 정책이 출판업계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외국어, 과학, 수학, 역사 지리와 같은 과목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그 출판되는 책의 종류도 증가하지만 여러 외국어를 합친 외국어과를 빼고는 그 어느 과목도 국어 교과서 출판량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세계화 바람을 타면서 외국어 열기에 들떠 영어 교육이 자기 나라 국어 교육보다 더 중요시되고 있는 우리나라 교육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V. 교사들의 교과서관과 활용 상황

그러면 이러한 교과서 홍수 속에 있는 이 곳 교사들의 교과서관은 어떠한지, 또 실제 수업 활용도는 어떤지를 알아보자. 국가교육개발원(INRP)에서 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교사의 31%가 교과서를 ‘필수적’인 것으로, 29%는 ‘상당히 유용’한 것으로, 34%는 ‘그런 대로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교사의 58%가 교과서는 어떤 교재와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교재라고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교사들도 교과서는 교사들의 수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위한 학습용(40%), 연습 문제용(27%), 자료 모음집(19%)으로 보고 있다. 18%의 교사만이 교과서를 자신의 수업 보충용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마디로 말해서 대부분의 교사들은 교과서의 학습 기능을 더 중요시하여 교과서를 학생들의 연습용, 참고용, 익힘용, 정리 및 암기용으로 보고 있고 자신의 수업용으로 생각하는 교사는 20% 안팎이다. 실제 수업을 위해서는 중학교 교사 76%, 고등학교 교사 83%가 스스로의 수업 계획에 따라 이리저리 짜 맞춘 복사물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업 방식은 초등도 마찬가지여서 교사가 교과서만으로 수업하는 경우는 드물고 학급마다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책이나 사전, 그림 자료집(83%의 학교), 백과 사전류(50%), 만화(7%) 등을 갖추어 놓고 교사 나름대로의 교육 계획에 따라 자유로운 수업을 하고 있다. 자료는 대부분 교사 스스로의 역량에 따라 다르게 수집한다.

초등 교사들의 수업 자료는 인쇄물(93%), 슬라이드 자료(72%), 복사물(61%), 활용 예문지(60%), 주제별 활동집(48%) 등으로 다양하다. 초등 교사의 70%가 교과서 보충 자료를 직접 만들어 쓰고 있고 56%의 교사들은 자신이 만든 자료를 아예 교과서 대신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렇게 프랑스의 교사들은 교수 학습 설계

및 실행면에서 상당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반면에 교사들은 자신이 선택한 수업 방법 및 학습 자료에 대해 완전한 책임을 진다. 대내외적으로 자신의 교수 방법과 선택 자료에 대한 교육적인 이론과 근거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교수 방법 이론과 실천에 관한 확고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학습 지도안을 자세히 써 놓아야 한다.

프랑스의 교사들이 정규 교과서를 마다하고 개인적인 노력과 부대 경비가 적잖게 들어가는 복사물을 굳이 사용하는 것은 ‘수업 내용상 필요해서’라는 교수 방법론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자신의 수업은 ‘스스로 설계하고 구상해서 자신의 방법대로’ 하겠다는 프랑스 교사들의 강한 독립심과 철저한 직업 정신에서 비롯된 태도라고 볼 수 있다.

어쨌든 이러한 현장에 만연하고 있는 교과서 경시 풍조와 과다 복사로 인한 과대한 경비 지출이라는 문제에 봉착하여 프랑스 교육부는 오히려 교사들이 교과서로 돌아가 주기를 바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에 따라 일선 교사들의 교과서 활용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산하 연구기관과 연수 기관의 협력을 주도하여 교과서와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수립, 교과서의 역할과 기능의 재정립, 현장 교사들의 실제적인 교과서 선택과 활용 상황 조사 등 심도 있는 연구를 추진 중이고 그에 맞춘 교사 연수도 계획하고 있다.

Ⅶ. 교과서의 모양새와 짜임새

참고로 프랑스 교과서의 외형도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기로 한다. 현재 교과서값은 학년 수준에 따라 2~4만 원 정도로 꽤 비싼 편인데, 자유 경쟁 시장 체제 아래 소비자를 끌기 위해 출판사들이 계속 호화 장정을 해 온 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 출판사들 쪽에서는 텍스트에 익숙한 기성 세대로

다는 비주얼 세대로 일컬어지는 청소년 세대 소비자들의 기호를 맞추지 않으면 판매가 부진하므로 교과서를 호화롭게 만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프랑스의 교과서가 외양을 강조한 것은 1930년 대부터였다. 학생들의 연령을 고려하고 흥미를 북돋우기 위해 지리, 역사 과목에 삽화를 그려 넣기 시작하면서 이른바 교과서에 혁신을 일으키게 되는데, 삽화의 도입과 함께 교과서의 크기도 늘어났다. 오늘날 교과서 규격은 19.5×28 cm, 21×28.5 cm, 22×28.5 cm 등 다양하며, 천연색 삽화나 사진의 분량도 전체 내용의 50%에 이르고 있다. 글씨의 모양이나 색깔, 구문이나 문장 배열 등도 아주 다채롭다.

프랑스 교과서가 따르고 있는 교수법도 중세에 유행하던 영웅전이나 서사문 나열식, 교리 문답식, 19세기 중엽에 문법이나 역사 교과서에 많이 이용하던 법률 목차와 같은 조항식, 19세기 말의 온갖 지식을 다 싸잡아 넣던 이른바 백과 사전식에서 발전하여 오늘날에는 거의가 놀이 학습식을 따르고 있다. 학습자 중심의 교수 학습의 발달과 함께 교과서도 학습 주체인 아동이나 학생들의 나이와 기호에 맞추어서 학습 내용을 짜게 된 것인데 재미있게 놀면서 따르다 보면 어느 새 학습이 된다는 방법이다.

이러한 놀이 학습은 특히 유치원과 초등 교육에서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교과서 이름과 길장 그림도 아동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동화책처럼 만든다. 예를 들어, 현재 초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어책, ‘Gafi le fantome(유령 가피)’은 학습자들 나이 또래의 몇몇 주인공들과 유령 친구 가피가 벌이는 기상천외한 사건들이 각 권 1과에서 45과까지(총 2권) 단편 형식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야기 줄거리와 결들인 만화를 따라가다 보면 읽기와 쓰기 학습이 저절로 이루어지도록 학습 요소가 전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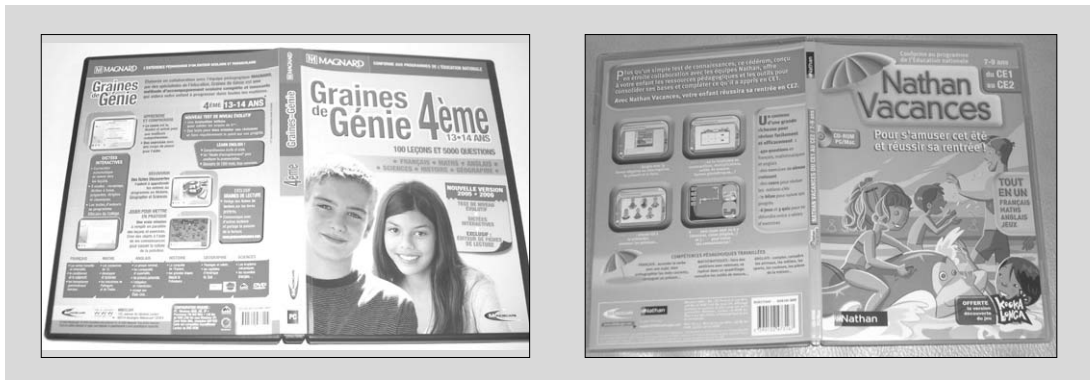
VII. 가정 학습용 자료 출판

정규 교과서 이외의 출판으로 그리스, 라틴 어 고전 문학이나 국어와 외국어 고전 문학, 각종 사전류, 글, 그림 자료집의 발간도 출판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의 출판은 교사에 따라서 정규 수업의 보충 교재로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가정 학습에 꼭 필요한 도구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또, 학생들의 개인 학습용인 가정 학습 자료의 출판도 중요하다. 이러한 가정 학습용 자습서 및 자료 출판이 프랑스의 교과서 출판 시장에서 차지

하는 비율은 엄청나다. 시장에 나와 있는 온갖 종류의 자습서들은 사실상 교과서보다 더 많이 팔려 교과서 시장 총 매출액의 1/4이나 차지하고 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교과서 시장의 한계를 일찍이 깨달은 프랑스의 출판사들은 상품의 다양화를 꾀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에 따라 국가 무상 대여에 포함되지 않는 자습서 출판에 온 힘을 기울이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리하여 현재 출판사당 보통 50여 종의 자습서들을 펴내고 있으며 분야별로는 크게 방학책, 응용 연습 문제, 각종 시험 대비용으로 나누어진다. 그 중에서도 긴 여름 방학을 겨냥한 방학책의 판매는 몇백만 권에 이르고 있다.⁴⁾



자습서의 값은 대체적으로 6천~1만 2천 원 정도로 저가 정책을 펴고 있으므로 품질 면에서는 정규 교과서보다 훨씬 떨어진다. 오늘날에는 실력과 경험이 있는 지은이들이 펴낸 좋은 자습서들은 현장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적극 권유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수업에 직접 활용하기도 해서 교과서와 자습서 사이의 구분이 점점 모호해지는 경향이 있다.

VIII. 나가는 말

교과서를 검 인정으로 전환할 때 필수적인 조치는 ‘교과서 평가’ 제도를 수립하는 일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처럼 교과서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교과서 평가 기준을 객관화하여 전 교과서에 공평

하게 적용할 수 있는 ‘교과서 평가표’를 만들어 내는 일이 중요하다. 평가 내용은 단순히 교과서의 이념적 또는 과학적인 내용의 검증에만 그쳐서는 안 되며, 교과서의 총체적인 면을 연구하고 평가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교과서 평가는 언어학적, 시각적, 과학적, 교수 학습 방법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교과서 평가에 관한 오늘날의 국제적인 동향을 보면 각기 다른 교과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괄 평가를 지양, 교과목별 평가를 추구하고 있다. ‘좋은 교과서’라는 일반적인 평가에서 벗어나 ‘국어과(또는 수학과)의 좋은 교과서’라는 전문적인 평가로 넘어가고 있다. 평가는 공정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 차원이 아닌 독립 전문 기관이나 연구원들에게 맡기는 것이 좋을 것이다. 보다 효율

적인 교과서 평가를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들에 의한 실제적인 교과서 활용 상황을 조사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학부모와 관계 기관 및 인사들의 견해를 알아볼 수 있는 사회적 관점의 연구도 병행되어야 한다.


앞으로는 세계화의 물결에 따라 교과서도 당연히 이 나라와 인종 사이의 이해를 돕는 내용을 필요로 할 것이고 그에 따라 국제적인 차원의 협력 연구도 내다보아야 할 것이다. 근시안적인 국가 이념이나 가치관 체계에서 벗어나 평화, 인권, 성의 평등, 환경 존중, 소수 민족과 문화 존중 등의 세계 인류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유럽의 여러 나라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교과서의 공동 연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들은 각국의 교과서들을 비교 연구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 들어와서는 유럽의 역사, 지리, 문화에 관한 교과서를 공동으로 제작하여 각국의 학교에 일괄적으로 공급하고 있다.⁵⁾ 이러한 학술 차원의 공동 연구는 교과서를 통하여 국가의 경계선을 초월하여 인류적인 가치를 추구한다는 이상적인 학습 목표의 추구 외에도 교과서 내용의 왜곡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나라 사이의 분쟁도 막아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구해 온 교과서 전문출판사 제도가 하루 빨리 도입되어 교과서의 질을 담보할 수 있고 출판사에서도 적절한 이윤을 보장할 수 있는 기제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일반 출판시장과 달리 교과서는 국가의 백년대계가 달린 중요한 교육 내용을 담고 있는 그릇이다.

프랑스의 교과서 제도 중에 걸으로 드러난 것처럼 교사들이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서를 자유롭게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도 눈여겨볼 점이지만 속내에서 일어나는 과도한 시장 경제 논리 접근, 교사들의 교과서 회피 등의 문제점이다. 그들은 자유를 너무나 소중한 사회 가치로 인식하고 투쟁해 온 역사가 있는 반면에 아직 동양의 정신 세계가 지배하는 우리나라에서 서구의 제도를 일방적으로 따라

가기에는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보다는 우리 실정에 알맞은 제도를 창안하여 착실하게 가꾸어 나가는 지혜를 이제는 정부와 관계 기관, 출판사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제도와 관행을 국제적 기준(global standard)에 알맞게 고쳐 나가는 노력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제도는 그 나라 국민들의 오랜 역사적 경험과 철학이 배어 나온 결과임을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제도 이면에 녹아 있는 정신 세계를 철저히 천착하여 우리나라의 정신 세계와 접맥할 수 있는 요소를 중심으로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주재국과 우리나라가 서로 다른 역사, 철학, 사회 발전 과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두 인식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알맞고 유익한 교과서 정책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1) 이 원고 내용은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언어 문화 교육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파리 8대학 외국어 교수법을 가르치고 있는 이부련 선생님의 도움이 컸다는 점을 미리 밝혀 두는 바이다.
- 2) 우리나라에서 현재 채택하고 있는 국정, 검정, 인정 교과서 제도를 프랑스에서도 예전에는 도입했던 것으로 보인다.
- 3) 출판되는 교과서의 책 수, 총 수입금, 매출액, 출판사 매출액 대비 교과서 매출액 비율 등은 해마다 변동이 생길 수밖에 없으므로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 4) 마침 필자의 자녀들에게 부족한 불어 실력을 개인적으로 보충해 주고 있는 프랑스인 교사가 여름 방학을 맞이하여 학습용으로 선물한 CD-ROM(초등학교용 Nathan 출판사, 중학교용 Magnard 출판사에서 펴냄.)을 사진으로 첨부한다. CD-ROM 속의 내용은 초등학교의 경우에 프랑스어, 수학, 영어, 놀이 6가지 등이 들어 있으며, 중학교용의 경우에는 프랑스어, 수학, 영어, 역사, 지리, 과학 등이다.
- 5) 프랑스와 독일이 공동으로 교과서를 제작하여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는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익히 알려진 바이다.



새색시 같은 마음으로 시작한 교과서 편집

글 우상원((주)지학사 과학부장)

1. 교과서를 시작하다

한가로운 봄날에 아지랑이 가물거리듯 아련한 옛날 생각이 떠오른다. 내가 처음으로 교과서를 접하게 된 것은 아마도 1993년도일 것이다. 부서 내의 과장님이 참고서 업무를 스스로 겨우 진행할 정도의 경력을 가진 우리를 회의실로 불러 모았다. 당시 우리는 1992년 7월과 9월에 입사한 입사 동기였다. 가만히 보니 물·화·생·지 담당자가 한 명씩이었다.

“어때, 이렇게 네 명이 중학교 과학 교과서 한번 만 들어 보지.”

“예? 우리끼리 어떻게요, 과장님! 방금 하신 말씀이 진짚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서 제 6차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생전 처음으로 교과서를 편집하게 되었다. 아니 편집 이라기보다 교과서에 덤벼들었다는 표현이 더 옳을 것이다. 없으면 만들어 넣고 부족하면 채우고 넘치면 빼기를 반복했다. 우리는 거의 매일 늦도록 자료실에서 사진을 찾고, 사무실에서 교정지와 힘겨운 싸움을 벌였다. 선생님들도 처음으로 집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고생을 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처음 하시는 선생님들은 처음 하시는 분대로, 경험 있는 선생님들은 경험 있는 대로 모두가 열심히 했다.

우리 팀은 경험도 없고 화려한 경력도 없었지만, 좋은 팀워크를 바탕으로 어느 팀 못지않게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한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고생한 만큼

편집에 대해 많이 배우고, 책을 만드는 기량이 일취월장한 느낌이었다. ‘교과서 편집을 제대로 하다 보면, 자신의 역량이 많이 성장했음을 느낄 것이다.’ 라고 했던 선배님들의 말씀이 새삼 와 닿았다.

아무튼 나는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중학생이 공부하는 과학 교과서를 편집함으로써 역사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다.

2. 교과서를 만들다

지금으로부터 꼭 10년 전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의 과학은~’ 이렇게 시작하는 제 7차 교육과정(과학과)이 고시되었다. 이름하여 교육부 고시 제 1997-15 호(별책 9). 2001년부터 적용되는데 벌써부터 여기 저기에서 가계약을 한다고 야단이었다. 우리 회사도 경쟁사들처럼 가계약을 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는 나에게 성공적인 유경험자로 인정하며, 한 팀의 교과서를 맡긴다고 했다. 곰곰이 계산해 보니 우리 회사에서는 2팀을 하려고 하는데, 나 정도의 경력은 팀장을 할 수밖에 없었다. 경력자를 다수 확보한 회사에서는 일개 팀원에 불과한 경력이지만, 우리 회사에서는 어엿한 팀장의 서열이었다. 걱정과 두려운 마음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내 생각을 마음껏 펼쳐 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선생님들에게도 나의 전력을 쏟아 부을 테니 나를 믿고 절대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부탁했다. 경험이 없어 죄중우돌식으로 경험

한 제6차 교과서 개발 때와는 달리 한결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저자들도 상당 부분은 우리와 실제 일한 사람들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나는 선생님의 장단점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막상 과목의 팀장을 맡고 보니 많은 부담을 느낀 것도 사실이다. 때때로 12명이나 되는 선생님들과 다른 세 명의 편집자들이 내 눈만 쳐다보는 것 같아 몹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3개 학년을 동시에 심사한 제6차 때와 비교해 보면 3년간 심사를 받아야 하니 심적인 부담은 한층 더 했다. 한 번의 교과서 경험으로 대리인 직급에 이렇게 중책을 맡길 수 있을까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나는 제7차 교육과정의 중학교 과학 교과서를 시작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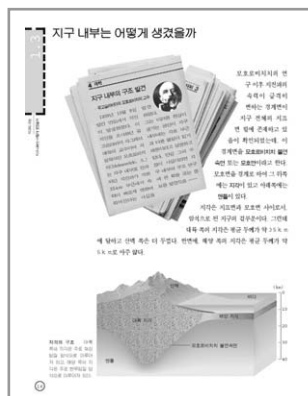
중학교 과학 교과서는 물리, 화학, 생물, 지구 과학 영역이 골고루 구성되어 있는 종합 교과목이다. 그러므로 전공별 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진과 그림 등이 많아 편집자가 해야 할 작업량도 만만치 않았다. 그래서 팀원들의 호응 일치, 즉 개인별·과목별 조화로운 운영이 매우 중요했다.

본격적인 집필에 앞서 편집부와 저자들의 전초전이 한판 벌어졌다. 드디어 교과서의 체제를 결정하는 첫 날이 왔다. 편집부와 저자들이 각각 좋은 시안을 만들어 오기로 했는데, 저자들의 체제는 제6차의 것과 큰 차이가 없었다. 더욱이 과목별로 서로 주장하는 차이도 매우 컸다. 그래서 저자들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었다. 하는 수 없이 나는 편집부의 체제를 설명하기로 했다. 떨리는 목소리를 최대한 진정시키면서 하나 하나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다. 처음 보는 체제에 대다수 선생님들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다. 순간 나는 얼큰하게 취한 사람처럼 얼굴이 발갱게 달아오르고 온몸이 후끈거리는 기분을 느꼈다. 하지만 나름대로 확신을 가진 체제였기 때문에 나중에 견본 원고를 만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했다.

나는 혼자말로 ‘그 동안 편집부에서 심혈을 기울이며 만든 체제인데, 그걸 몰라 주다니.’라고 중얼거렸다. 사실 체제를 결정하기 이전에 우리는 호주의 Heinemann Science(교육 출판 부문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은 책) 교과서를 참고 도서로 연구했고, 개인적으로 이미 100여 명의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체제의 합리성을 검증받았다.

쉽게 흥미를 느끼고 쉽게 지루해하는 젊은 학생들의 취향을 고려했을 때, 기존의 서술 방식(대단원·중단원·소단원·항목 순의 스토리 형식)으로는 자유분방한 학생들과 젊은 교사들의 시선을 끌기에 역부족이라는 확신을 가졌다. 몇몇 저자들과 의견을 나눈 후 보고 실제적인 설득 작업을 거친 뒤 이제 어느 정도의 분위기가 조성되었음을 느꼈다. 며칠 동안의 검토 기간이 끝난 후 처음에는 낯설고 비평적인 생각을 가진 선생님마저도 새롭고 신선하다는 이야기까지 했다. 지금은 몇몇 과학 교과서가 우리와 유사한 체제도 있지만, 개발 당시에는 상당히 독특한 체제였다.



우리가 시도한 다양한 형식의 도입문



**교과서 진행은 하루에도 몇 번씩
희비의 쌍곡선을 그리면서 수개월 간 계속되었다.**

**모두가 고생한 보람인지, 매일 밤마다 하느님과 부처님을 귀찮게(?) 한 덕택인지
우리가 만든 책이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정말 그 때의 상황을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교과서의 매력은 바로 이 맛이야!’이다.**



우여곡절 끝에 팀 내에서는 내가 만든 체제대로 집필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회사의 담당 임원에게 결재를 받으려는데, 예기치도 않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한 달 이상 심혈을 기울여 만든 체제를 이사님께서 아주 보잘것 없는, 교과서답지 않은 체제라고 혹평을 했다. 뜻밖의 난관에 부딪치게 되자 나는 힘을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수록 사람들은 숙연해지고 나약해지는 존재가 되는 것 같았다. 우스운 이야기이지만, 나도 평상시에는 모른 척하고 지낸 하느님과 부처님을 매일 찾았으니 말이다(이렇게 일방적으로 맺은 하느님과 부처님과의 인연을 교과서 작업 내내 유지하며 기도하게 되었다.).

교과서 개발의 깃발을 올린 후 팀장으로서 저자들과 첫 대면을 할 때, 나는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각오를 공언한 바 있다. 그러므로 이번 문제도 당연히 내가 책임지겠다고 이사님에게 강경하게 맞섰다. 시간을 흘러가는데 하는 수 없었던지 이사님께서 강경한 어조로 ‘이 교과서는 당신이 모든 걸 책임지시오.’라며 결재를 해 주셨다.

결국, 약간의 진통과 비장한 각오 끝에 우리는 본격적으로 교과서 작업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원했던 것처럼 다양한 도입문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천편일률적인 교과서의 시작을 배제하고 주제별로 다양한 도입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단순하게 한 가지 형식으로 집필한 것이다.

대단원 - 중단원 - 소단원 - 항목 순으로 전개되는 이전의 체제에 익숙한 선생님들이 새로운 형식의 도입문을 쓴다는 것이 어디 말처럼 쉬웠겠는가.

하지만 교과서에서 ‘체제의 꽃’이라는 도입문을 함부로 처리할 수는 없었다.

선생님들과 우리는 이리저리 빈 회의실을 찾아다니면서 심오한(?) 편집 회의를 거듭했다. 회의를 거듭할수록 우리 팀의 원고는 점점 좋아졌고, 그럴 듯하다는 느낌마저 갖게 되었다. 회의는 우선 과목별로 진행한 후 종합적인 검토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했다. 집필진 전원이 같은 대학 동문이라 큰 마찰 없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가끔씩은 과목별 저자들끼리, 혹은 과목 내의 저자들끼리 의견차가 발생하여 큰 소리가 오가기도 했지만, 교과서 개발이라는 중대사에서 흔히 있는 일이라고 가볍게 생각하기로 했다. 그 때마다 좋은 결과만 만들어 내면 모두들 이해하고 재미있는 추억거리가 될 것이라고 세뇌시켰다.

교과서 진행은 하루에도 몇 번씩 희비의 쌍곡선을 그리면서 수개월 간 계속되었다. 모두가 고생한 보람인지, 매일 밤마다 하느님과 부처님을 귀찮게(?) 한 덕택인지 우리가 만든 책이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정말 그 때의 상황을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교과서의 매력은 바로 이 맛이야!’이다. 같이 고생하면서도 좋지 못한 결과를 얻은 팀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벌어지는 입을 그 때 어떻게 단속했는지 기억조차 없다.

3. 교과서에 의미를 부여하다

학습용 교재를 출간하는 편집자는 흔히 교과서의 작업을 ‘편집의 꽃’이니 ‘반드시 넘어야 할 산맥’이니 하는 표현을 한다. 분명 교과서 작업은 힘이 들지만 그만큼 매력적인, 그리고 보람 있는 일임에 틀림없다. 또 편집자의 개인적인 역량 향상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 그러나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노력과 자기 희생이 반드시 필요하다. 희생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무엇이 있던가? 누군가가 ‘피할 수 없다면 즐기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혹자는 ‘교과서처럼 쉬운 것이 어디 있느냐? 며 반문하는 사람도 있다. ‘발표된 교육과정의 지침대로 따르고, 편찬상의 유의점에 명시한 것을 준수하면 되는 것을 왜 부담스러워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한다. 역시 옳은 말이다.

하지만 교과서 개발은 한 사람이 진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한다. 그러므로 편집자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부 수렴할 수 있는 스펀지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하며, 집필자가 옳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방향이면 과감하게 바꿀 수도 있어야 한다. 즉, 교과서를 집필하는 여러 선생님의 의견을 조율하고 수정하여 교육과정에 맞도록 인도해 가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면 아무리 경쟁률이 높은 교과서라도 절반은 성공한 것이다.

진정한 스포츠맨십은 경기의 참여에 있다고 하지만, 솔직히 교과서 개발의 의미는 합격에 있다. 약간 각박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가장 현실적인 답이다. 하얀 교과서(백표지 상태의 제출본)는 합격이라는 검정 의식을 통과해야 비로소 진정한 교과서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그래서 편집자가 생각하는, 아니 교과서 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의미의 교과서는 최종까지 합격하는 데 있다.

4. 이제 다시 시작하자

과학을 포함하여 주 5일제 교과목에 대한 제 7차 개정 교육과정이 지난 2월 28일에 고시되었고, 6월 21일에 확정 발표되었다. 이번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국가·사회의 다양한 요구 사항과 주 5일제 수업 실시에 따른 교육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한다.

교과서를 비롯해 학습용 교재를 주로 출간하는 출판사에서는 지금과 같이 교과서 개발 시기가 오면 편집자들은 설렘과 부담을 동시에 느낀다. 지금 개발 중에 있는 영어나 수학 담당자들은 벌써부터 긴장하거나 신경이 예민해 보일 때도 있다. 이제 과학을 포함하여 주 5일제 교과목들도 새롭게 시작해야 할 문턱에 서 있다.

그러나 학습용 교재를 출간하는 출판사에 몸을 두고 있는 한, 또는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교과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맥이 아닌가! 힘들고 어렵다고 회피하거나 포기하는 사람과 슬기롭게 극복하는 사람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대수롭지 않은 성공에 우쭐대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급변하는 시대에 과거의 성공에만 안주하는 것은 지금까지 쌓아 온 성공마저 빛을 잃게 한다. 교과서를 통해 과거의 영광을 맞본 사람은 또다시 재현하고자 노력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성공의 기분을 맛보기 위해 새롭게 노력할 것이다. 나도 이제 새색시 같은 마음으로 다시 교과서 개발에 임하고자 한다.

제 7차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개발을 앞두고 여러 곳에서 많은 전문가와 출판사(편집자), 그리고 저자들이 노력하고 있다. 아무쪼록 지금보다 더 세련되고 인기 있는 교과서를 개발하는 그 날까지 모든 관계자들이여 선의의 경쟁을 하자!

그리고 최전선에서 교과서 개발에 관여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편집자들이여, 파이팅 합시다! **연**



교과서 편집 기획자 입문기

글 김용묵((주)영진닷컴 대리)

일 반적으로 교과서 편집 기획자는 교과서와 관련된 일들을 담당하여 책을 편집 기획하고 진행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편집 기획자들이 좋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 저자들과 같이 호흡하며 양질의 교과서를 만들어 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실이다. 교과서와 교과서 관련 참고서를 만드는 것만이 교과서 편집 기획자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필자가 근무하는 출판사에서는 조금 다른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

교과서 담당 편집 기획자에게는 일상적인 편집 기획 업무가 다른 기획자들보다 조금 더 적게 할당되고 대신 교과서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기본적인 업무에 추가적으로 교과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과서를 해야 할 시기에는 교과서를 중점적으로 하고 교과서를 하지 않는 시기에는 컴퓨터 관련 교재나 IT 도서들을 진행하게 된다. 어떻게 보면 교과서 진행에 대한 전문성이나 집중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IT 전문 출판사이기 때문에 필자가 담당하고 있는 '정보' 교과서를 진행할 때 급변하는 컴퓨터 분야에 대한 실무 능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 주고 있어 교과서가 집중적으로 진행돼야 되는 시기가 왔을 때 관련 전문 지식들을 별도로 공부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도와 주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교과서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들보다 어떤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해당 분야의 교과서도 좀더 잘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전문성이란 갑자기 준비한다고 만들어지거나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해당 분야에서 계속적으로 종사하고 있을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최신기 술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일반 컴퓨터 교재를 하다가 교과서란 도서를 맡게 되어 교과서 편집 기획자로서의 길을 걸어가게 된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 교과서 편집 기획자로 발을 들여놓은 친구들에게 조금이나마 교과서의 편집 과정에서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에 대하여 필자에게 주어진 이 지면을 통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1. 교과서 편집 기획자로서의 입문

출판 일을 처음 시작할 때는 교과서 편집 기획 일을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출판사와 인연을 맺은 것이 어찌면 우연이었고, 또 당시 입사를 하게 된 회사는 컴퓨터 서적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던 회사였기 때문에 입사할 당시에는 교과서와 관련된 생각은 미처 하지 못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편집 기획을 시작하는 편집 기획자들은 처음 입사할 때부터 교과서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교과서를 하는 회사들은 교과서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회사가 많은데다 한쪽 분야에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출판사들이 교과서를 만들거나 하지는 않는 것이 현

실이기 때문이다.

입사를 하고 나서 출판이라는 일이 낯설기도 했지만 초·중·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보던 교과서를 내가 선생님들과 함께 만들게 된다는 사실은 매우 색다른 문제가 되어 버렸다. 입사했을 1999년 8월 당시에는 제 7차 교과서를 접수하기 위해 원고 집필이 한참 진행되고 있을 시기였다. 한참 집필을 하고 있을 당시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교과서를 한다기보다는 컴퓨터 관련 교재를 만드는 것이 주 업무였고 교과서와 관련되어 저자 선생님들과 미팅을 통해 업무 조율을 한다거나 필요한 자료를 찾아 주거나 하는 일을 병행하고 있어서 교과서를 만든 다기보다는 일반 컴퓨터 교육 교재를 만들었다는 게 입사 당시의 업무였을 것이다. 하지만 접수일이 조금씩 다가 오면서 선생님들의 야간 집필도 잦아지게 되고 또 주말이면 합숙을 해 가며 집필을 하게 되면서 “아, 지금 나는 정말로 교과서를 만들어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모든 업무는 교과서에 집중되게 되었다.

접수를 앞둔 1999년 겨울 방학 때에는 선생님들은 거의 합숙과 가까운 생활을 하게 되었고 또한 내가 봐야 할 원고들과 찾아야 할 자료들이 점점 늘어가면서 나 또한 회사에서 밤을 새거나 집을 가더라도 단순히 옷만 갈아입고 나오는 일이 잦아졌다.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주시는 원고는 교육 현장에서의 원고이다 보니 교육 현장에 적합한 아이디어와 교육과정에 맞는 체계를 갖추고는 있으나, 한편으로는 여러 선생님들이 공동 집필을 하다 보니 도서로 구성되어질 수 있을 만큼의 체계성이나 전문성 면에서 약간 부족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부족 성을 채워 주는 것이 편집 기획자들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된다. 진행하던 책이 컴퓨터 교과서다 보니 아무래도 교과서만 하는 편집 기획자이나 다른 일을 하고 있는 편집 기획자들보다는 컴퓨터 관련 지식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질 수 있었고, 또 관련 인프라 역시 다양하게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다른 출판사를 두고 영진을 선택하고 집필을 하게 된 선생님들도 이러한 기대 심리가 있어서가

아닐까 싶다.

선생님들이 원고를 써 주시면 바로 교정을 봐서 편집 디자이너에게 넘기고 편집된 원고를 다시 보고 또 다시 수정을 의뢰하고 하는 일의 연속, 보통 교재들은 한 달 걸릴 모든 일들이 교과서에서는 한 주 만에 이루어지는 일도 생겼다. 정신 없는 나날을 보내며 교과서 접수일을 며칠 앞두고 드디어 고생한 결과물이 나왔을 때에는 교과서를 만들어 냈다는 환호보다는 ‘드디어 쉴 수 있는 시간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앞섰다. 하지만 여기서 일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마지막 서류 점검을 하면서 미숙한 부분이 발견됐고 그 미숙한 부분을 수정하느라고 접수 전 날까지도 밤샘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정신 없는 시간이 지나가고 교과서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접수하였을 때의 기쁨은 교과서의 검정 통과를 발표받았던 날의 희열과 비슷했을 것이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열정적으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교과서를 처음 해 보는 회사에서 처음 교과서를 집필하는 선생님들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접수를 마치고 정신이 돌아오고 있을 때 제출한 도서가 문제가 없을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해 왔다. 교과서의 경우 오타자나 오류는 당락에 영향을 끼치기도 할 뿐더러 학교에 배포되었을 때 엉뚱한 지식이 학생들에게 습득되는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아마 작업 초기에 생각이 들었던 색다른 문제란 ‘내가 참여했던 교과서가 학교에서 사용되어졌을 때 올바른 내용만을 담고 있을 수 있을까.’라는 문제였을지도 모르겠다.

다행히도 진행했던 도서가 제 1차 검정에 합격하여 수정·보완 사항이 나왔을 때 또다시 이어지는 작업에 대한 생각 때문에 잠깐 골머리가 아프기는 했지만 지난 노력이 헛수고로 돌아가지 않고 내가 편집 기획자로서 참여하면서 쏟은 많은 열정과 시간이 좋은 결과로 나왔기 때문에 편집 기획자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가 있었다.



편집 기획자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방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결과물은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원고의 상태나 디자이너의 능력 등도
좋은 교과서를 만들어 내기 위한 요소일 것이다.
편집 기획자는 전체적인 디렉터의 입장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컨트롤 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2. 끝나지 않는 수정

교과서는 접수를 하고 검정 결과 발표를 한다고 해서 모든 수정·보완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심사 접수 후에 검정 심사를 하고 나면 바로 합격 여부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제1차 수정 내역서라는 엄청난 수정 지시서가 내려오게 된다. 이 수정 지시서는 집필 저자 선생님의 의도나 의견이 전혀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위원 선생님들이 심사를 하는 것이어서 집필 의도와는 다르게 판단되어 수정이 나오기도 하고, 또 미처 생각하지 못한 내용들이 꼼꼼하게 체크되어 수정 지시서가 내려오기도 한다. 물론, 교육과정의 이행 충실도와 학교 수업에 사용이 적합한 경우에만 이 수정 지시서가 내려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검정 불합격 통지서가 내려온다. 이 지시서에 따라 수정할 것은 수정을 하고 의도가 잘못 전달된 것은 제2차 접수 때 수정 내역서를 작성하면서 비수정 사유를 적어 제출하면 담당 편수관이 이 내역을 보고 다시 판단을 하게 된다. 수정을 할 때는 집필을 할 때 만큼의 열정은 들어가지만 그래도 엄격한 검토에 의해 발행된 지시서이므로 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수정을 해야만 한다.

제1차 수정이 끝났다고 해서 검정에 관련된 모든 수정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검토를 하신 선생님이 제1차 검토에서 놓쳤던 부분이 다시 수정 지시서로 내려오기도 하고, 또 수정 지시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

했다고 판단이 되면 여기서 검정 불합격 통지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후, 제2차 수정을 하고 나서 최종 합격 통보를 받게 되는데 이 합격 통보를 받게 되면 정말로 교과서 검정은 끝나게 되는 것이다.

이쯤이면 한시름 놓게 되지만 검정이 끝났다고 해서 더 이상 교과서의 모든 수정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컴퓨터 과목이 특히 심하겠지만 집필한 교과서 내용은 사용 시점의 사용 사양이나, 사용 프로그램, 사용 환경 등이 변해 가기 때문에 이 변화에 맞춰 계속적으로 수정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교과서를 사용하다 보면 검정 때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발견하게 되고, 내용을 매년 갱신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교과서가 사용되는 한 수정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컴퓨터의 경우 제7차 검정 합격 이후에 전체 필름을 다시 뽑을 정도의 수정을 두 번이나 했으며 매년 내용 중에 일부분을 조금씩 갱신해 가고 있다.

이렇게 교과서는 만들어 놓으면 끝나는 도서가 아니라 사용하는 학생들의 환경에 맞게 매년 수정과 보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정 업무는 해당 차시가 끝나 더 이상 교과서가 사용되지 않아야지만 수정 업무가 끝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3. 누가 만드는 것일까?

일반 도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교과서는 편집 기획자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잘 써지는 것도 아니고

좋은 교과서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다. 물론, 편집 기획자 개인의 능력에 따라 방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결과물은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원고의 상태나 디자이너의 능력 등도 좋은 교과서를 만들어 내기 위한 요소일 것이다.

편집 기획자는 전체적인 디렉터의 입장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컨트롤 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편집 기획자가 교정·교열을 잘 본다고 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풀어 내는 방법을 모른다면 그건 헛지식일 것이다. 교과서를 시작하고 진행하다 보면 저자 선생님들과의 끊이지 않는 회의와 논의를 거치게 되고 어느 한쪽으로 끌려가지 않게 중심을 가지고 좋은 결과물이 될 수 있도록 핸들링하는 능력 그것이 전문 지식만큼이나 중요한 편집 기획자로서의 자질이 아닐까 생각한다.


어떤 사람들은 교과서는 운 때가 맞아야 한다고들 이야기한다. 좋은 저자 선생님들을 만나느냐, 디자인을 해 주시는 분들이 나의 생각을 잘 이해하고 표현을 해 주느냐, 삽화거나 사진가가 수준 높은 결과물을 만들어 내느냐 하는 것도 따라야 하고 또 최종 검수를 보는 선생님들도 교과서를 만든 저자 선생님과 편집 기획자의 생각과 어느 정도 생각이 맞아야 한다고들 한다.

또, 교과서는 검정을 통과하는 그 순간부터 (사)한국검정교과서와의 업무 관계를 유지해 가게 된다. (사)한국검정교과서는 검정 교과서를 생산,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합격된 출판사의 편집 기획자가 만들어야 하는 각종 서류들과 수정 필름들에 대한 업무 지시 및 서류 재검토와 필름 재검토를 해 주고 있다. 물론, 교과서를 담당하고 있는 각 출판사의 편집 기획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본인이 참여했던 교과서의 수정 및 필요 서류들을 작성해 가겠지만 이를 (사)한국검정교과서에서 한 번 더 검토해 줌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최소화시키고 각 출판사의 편집 기획자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대신해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교과서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톱니바퀴 구조를 가지며 유기적으로 돌아갈 때 만들어지는 것이 어느 한 톱니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금 와서 제7차 교과서를 진행했던 때를 생각하면 출판사라는 곳을 처음 들어와서 출판에 대한 적응 기간이었고 사회로의 첫발이어서 정신 없을 때 편집 기획 업무를 했기 때문에 그 때만큼 열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런 열정이 있었기에 매일같이 반복되는 밤샘 작업에도 열심히 할 수 있었고 또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다.

교과서 편집 기획자는 저자 선생님이나 출판사와 비교할 때, 투지한 열정과 시간에 비해 결과물은 적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직업적인 정신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교재를 만든다는 입장에서 바라볼 때 다음 세대를 이어갈 학생들이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교과서를 만든다는 보람된 일을 하는 것은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일이 아닐까 싶다.

원활한 편집 기획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열정도 준비하여야 하며, 교육과정을 실현하는 사람으로서의 자부심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어떤 일이든 혼자만 잘나서 되는 일은 없다고 한다. 하지만 혼자 잘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면 그 편집 기획자는 교과서를 만들어 가기 위한 가장 적합한 편집 기획자일 것이다. 



글 신순웅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부회장)

교과서바로보기

변화하는 역할과 시대적 욕구

1. 들어가며 - 달라지는 교과서관

학부모의 세대에게 교과서는 학창 시절에의 향수를 느끼게 해 주며 친구들과 교실, 그리고 선생님에 대한 아련한 그리움의 이미지로 다가온다. 새 학년이 되면 비닐이나 예쁜 종이로 교과서 표지를 싸서 혹시 책이 닳을까 애지중지하고 한 학기가 지나면 껍질을 벗겨 내어 다시 교과서를 새 책처럼 아꼈던 추억! 그러나 이제는 교과서를 그렇게 신주단지 모시듯 깨끗이 쓰는 아이들도 거의 없고, 교과서는 종종 오류와 상반된 이념 때문에 사회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 펜과 종이가 사라지는 디지털 교과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시대에 와 있다.

우리의 교과서가 외형적으로는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그리고 단계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과서에 대한 인식은 지나치게 전통적인 관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경전화된 지식 중심의 교과서는 학생과 교사로 하여금 경직되고 권위주의적 사고를 가지게 한다고 비판받는다. 이는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교육에 적합한 교과서는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새로운 지식 정보화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력과 사고력을 육성하는 바람직한 교과서는 아직 만들어 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학부모 세대가 가지는 교과서관은 우리가 속칭 ‘교과서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인식과 다르지 않다. 즉, 학교에서 제공되는 교육 내용은 누구나

일률적으로 습득해야 할 대상이며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은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언제나 우리가 사고의 행동의 근거로 삼아야 하는 주체 같은 것이었다. 교과서에 담긴 내용은 오류가 없다고 생각하고 쉽게 변경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했으니 과히 닫힌 교과서관이 아닐 수 없다. 1990년대까지는 주로 국정 교과서 체제가 지배적이라 교육과정이 곧 교과서라는 등식이 성립되었던 때였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출판사가 개발 주체가 되어 편찬하는 검 인정 교과서와는 달리 연구 기관의 연구진, 심의위원, 집필진의 심의된 원고로 편집했던 시기였으니, 그 때는 교과서 만들기가 기획이라기보다는 편집 요소가 더 강했던 일종의 편집 업무였다고 생각된다. 편집 기획 요소가 더해져 교과서의 변화를 찾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이후의 일이다.

이제 그런 교과서관을 가진 사람은 주변에서 그리 많지 않다. 특히, 해외에서 공부했거나 자녀를 유학시킨 경험을 가진 학부모들은 우리가 학창 시절에 가졌던 교과에 대한 인식은 경직되고 고루한 사고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제 그들은 학교에서 제공되는 교육 내용은 문제 해결을 위한 가능한 대안 중 하나라고 생각하며, 교과서는 학습을 위한 가능한 자료 중의 하나로 본다. 교과서를 통한 교육 내용은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의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신장됨에 따라 새롭게 수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교과서가 곧 교육과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이제 우리도 검 인정 교과서 시대와 함께 정기 검정제가 도입되었다.
정기 검정제를 실시하게 되면, 교육인적자원부의 담당 부서와 검정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체계적인 연구 및 업무 추진은 물론 교과서 전문 출판사의
안정적 투자와 편집 인력 확보 양성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2. 교육과정과 교과서 제도 개선

2007 개정 교육과정과 함께 다시 교과서의 전면 개편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현행 초등 교과서가 무려 9년에 걸쳐 장기간 사용된 점을 고려한다면, 본질적인 교과서 제도 변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제였다. 이제는 교육과정이 개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회의 변화와 학문 발전을 교과서에 반영하기 위해 주기적인 검정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진 것이다.

그 동안 교육계에서 국정 교과서를 줄여 나가고 검 인정 교과서를 확대하며 점차 자유 발행제 도입에 대한 논의를 거듭해 왔다. 최근에는 교육혁신위원회가 교과서 발행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팀을 구성하여 개선안 초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준비까지 마친 상태에서 공청회를 보류하면서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기도 하였다.

그러한 노력에 힘입어 드디어 지난 6월 20일, 교육인적자원부는 2010년부터 중·고등학교 국어, 도덕, 역사 교과서가 현행 국정에서 검정으로 바뀐다고 발표했다. 또, 검정 교과서들의 사용 연한도 5년으로 한정하고 5년마다 교과서를 개편한다는 것이다. 또, 교육과정 개정이 없더라도 해마다 정한 시기에 검정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 점은 일단은 괄목하다고 보여진다. 그 중에서 이들 교과서의 검정 전환으로 빚어질 수 있는 이념 편향성 시비(역사, 사회), 문법 일관성 문제(국

어), 통일 교육의 방향 논란(도덕, 윤리) 등을 고려해,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국어원, 통일연구소 등 전문기관의 감수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이제 우리도 검 인정 교과서 시대와 함께 정기 검정제가 도입되었다. 정기 검정제를 실시하게 되면, 교육인적자원부의 담당 부서와 검정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체계적인 연구 및 업무 추진은 물론 교과서 전문 출판사의 안정적 투자와 편집 인력 확보 양성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또한 교과서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검토 보완 및 국가 사회적 변화상의 적시적인 반영이 가능하여 궁극적으로 질 높은 교과서 개발과 관리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본다. 출판사들의 질적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검정 시기에만 교과서 시장에 철새처럼 뛰어들어 수익 사업만 교과서를 인식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과 품질 유지를 위한 노력하지 않는 후진적 상업주의를 종식시켜야 할 것이다.

3. 교과서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과제

첫째, 교과서는 단순히 지식 전달의 역할에서 벗어나야 한다.

요즘 시대적 사고의 트렌드는 개별성, 자율성, 창조성을 중시한다. 전체보다는 개인을, 통일성보다는 나만의 독특한 개성 추구가 삶의 목표이다. 역시 이와 같은 이념들이 교육의 이상으로 강조되

.....

.....

**좋은 교과서에 대한 생각이 모두 다르겠지만, 필자가 생각하는 좋은 교과서란,
학생들에게 학습에 대한 흥미를 일으키고 교사에게는 다양한 학습 자료의 계발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학생들이 교과서의 매 페이지를 열 때마다 새로운 내용에 대한
호기심과 도전 의식이 생긴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

.....

고 있다. 이제 더 이상 공동체적 규범을 중시하는 문화 환경만이 최고의 선이 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제 교과서는 개인과 전체가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다양한 방법과 모델들을 보여 주어야 한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교과서가 암기 위주의 교육 내용과 평가 방법을 보여 준 가치 주입식 스타일은 벗어나 교과서를 살아 숨쉬는 유기체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지식의 홍수 속에서 지식의 양이 확대, 확산되어 가는 양상과 속도를 감안한다면 이제 더 이상 지식 전달의 교과서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갈 수 없음이 자명하다. 그렇다고 그 본래의 위상을 저버리라는 것은 아니다. 내용물을 다시 채우자는 것이다. 지식을 얻는 지식, 올바른 지식을 분별하는 능력이 필요한 시대에 걸맞게, 과정을 찾아 내고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내용으로 교과서는 구성되어야 한다. 여전히 교과서는 유일무이한 안내서가 되어야 함이다.

둘째, 교과서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교사의 권한과 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

교과서는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가 함께 공유하는 중요한 교육용 텍스트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고 하나 교과서는 아직도 다소 추상적이고 어렵다. 이는 곧 교과서가 현장감과 현실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습에 필요한

자료 개발을 위한 교사의 권한과 역량이 절실히 요구된다.

셋째, 편향성 논란과 내용상의 오류를 줄여야 한다.

신문에서 교육인적자원부가 발간한 초등학교 교과서에 일본 요괴 오니가 우리 도깨비로 둔갑해서 잘못 실렸다는 기사를 읽었다. 이것은 민족의 보편적 심성을 반영하는 부분에서의 오류이지만, 때때로 관점의 차이로 생기는 편향성 논란과 이념 갈등의 요인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 동안 언론을 통해 격렬한 갈등 상황을 보여 준 ‘한국 근현대사’와 ‘경제’ 교과서가 그 예이다. 또, 시민 교육에 노동 교육이 포함되지 않은 또는 지나치게 축소된 것을 두고 노동계가 반발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교과서가 가지고 있는 위상과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 주는 것이다. 또, 집필진의 역량과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을 말해 주고 동시에 국정 교과서 유지의 한계점을 나타내어 주기도 한다.

교과서상의 내용이나 표현상의 오류는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신뢰를 상실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검정 제도가 확대되고 교과서 선정을 시장 원리에 맡기고 있는 외국의 경우, 오류는 출판사의 책임이라는 의식이 지배적이지만 우리나라처럼 국정 교과서로 관리된 나라는 정부의 책임으로 많은 부분이 남게 된다. 우리

는 현실적으로 교과서의 오류 문제를 출판사의 노력으로만 메울 수 없고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의 해당 조항도 미흡하여 연구진들이 오류를 바로잡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오류를 만들어 내지 않기 위해서는, 교과용 도서의 개발자는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바르게 적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편집자로서 소명감, 자긍심, 책임감이 강하며, 출판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전략적 사고를 가진 자를 필요로 한다. 더불어 교육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교육과정의 해석 능력, 분석 능력, 적용 구성 능력이 요구된다.

4. 나가며-좋은 교과서를 기다리며

이번 교육인적자원부의 국정 교과서 제도 개선 방안은 일단 환영할 만한 변화라고 받아들여지지만, 창의적 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는 국 검정 기준 마련이나 투명한 운용, 교과서 연구 개발 기능 강화, 사고력과 창조성을 높일 수 있는 교과서 내용을 담아 내는 작업, 집필자 선정, 교과서 출판 업계의 전문성 강화 등과 같은 보다 근본적이고 시급한 문제들이 산재하다. 그 밖에 교과서 외형, 가격, 공급 제도(유 무상제) 등의 문제도 계속 고민하고 협의해 나가야 할 문제들이다.

검 인정을 확대했을 경우 문제점도 있다. 검정을 통과하는 교과서 수를 무제한으로 늘리게 되면 한정된 교과목에서 학교가 선택할 수 있는 교과서 종류만 늘어나고 교과서의 질적인 면에서는 획기적인 변화를 나타내지 못할 수도 있다. 초등 교과서 전체를 한꺼번에 실시하는 것에도 무리가 있으므로 연차적인 검 인정 실시도 고려되어야 한다.

좋은 교과서에 대한 생각이 모두 다르겠지만, 필자가 생각하는 좋은 교과서란, 학생들에게 학습에 대한 흥미를 일으키고 교사에게는 다양한 학습 자료의 계발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학생들이 교과서의 매 페이지를 열 때마다 새로운 내용에 대한 호기심과 도전 의식이 생긴다면 얼마

나 행복한 일인가! 교과서를 만드는 데에 있어, 10대 청소년들의 수준에 맞게 직관적이고 창의적인 감각으로 접근한다면 학습 동기를 자극하는 데 기대 이상의 큰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지금까지 교과서의 연구는 지속적으로 발전, 진화되어 왔다. 좋은 교과서를 만드는 사람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지원과 프로그램 계발에도 미약하나마 획기적인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본다. 그러한 변화는 마침내 교사와 학생, 학부모에게도 교과서에 대해 열린 교과서관을 가져다 줄 것이다. 모든 문제에 한 가지만의 정답이 존재한다는 강박 관념에서 벗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교과서의 내용을 다르게 해석하고 생각하는 것이 허용되며, 교과서는 여러 학습 자료의 일부로서 이해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교과서 의존 교육에서 탈피하여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학습이 촉진되어 창의성과 자기 주도적인 학습 태도가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질 좋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대적 흐름을 잘 반영하고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명확한 교육과정의 수립이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리하여 교육과정상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방향 집필상의 정확한 목표, 수정 보완의 관리 능력이 발휘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지적 욕구를 채워 줄 수 있는 것이다. 좋은 교과서에 대한 욕심은 아무리 과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질 높은 교과서 공급은 곧 수준 높은 공교육으로 직접 연결되기 때문이다. **연**



글 윤보근(진안제일고등학교 교사)

교과서와수능의 관계

~~국어교과서의내용수준을적정화하여야한다~~

1. 논의의 출발점

거의 교직 생활의 대부분을 일반계 고등학교 국어 교사로서 근무하면서, ‘왜 교과서는 교수 학습의 중심에 있지 않고, 많은 학습지와 재구성한 자료와 모의 고사에 밀려 수업 뒤편에 있어야 하는가?’, ‘과연 교과서는 국가의 이념적 수준에 머물며 기본 기초적 개념과 원리를 제시하고 다만 단위 학교 시험, 즉 내신에 대비하기 위한 수준에 불과한 것인가?’, ‘왜 교과서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출제 내용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가?’에 대한 끊임 없는 의문과 생각을 하게 되었다.

물론, 국가 수준이나 학교 단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과정이 당연히 대학 수학 능력 시험보다 상위의 철학과 이념을 담고 있으며, 교과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과서가 편찬되었고, 교사와 학생의 유기적 교수 학습 상호 작용과 교과서의 재구성을 통하여 구성주의적으로 교수 학습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당면하고 있는 대학 입시의 현실은 이와는 사뭇 다르다. 우리나라의 정서상 대학 진학에 온 교육적 정열의 초점을 두고 수능, 논술, 면접에 예민한 촉각을 드러내는 현 상황에서 과연 교과서가 제 위치를 찾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어 교과로서의 언어의 본질과 국어 교육이나 국어의 교과적 정체성, 그리고 고등학교 국어 교육에 대한 바람직한 관점으로 제시하고 있는 개인의 성장

을 도모하는 교육, 문화의 전승과 창달을 도모하는 교육, 사회의 변화를 내다보는 미래 지향적 교육 등의 상위적 방향 제시는,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이 미래 사회 발전의 축으로서 당연히 습득해야만 하는 기능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이념들이 목전의 평가와 괴리되어 있을 때, 특히 과연 현재 대학 입학을 준비하고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가에 대한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1994년부터 시행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초기의 반응은 매우 신선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전 교과서에서만 출제되던 학력 고사에서 벗어나 학생의 사고력, 적용력, 응용력, 확산적 사고 등 많은 찬사들을 쏟아 내었고, 일선 국어 교사들도 교과서를 중심으로 그 정도의 수준까지 교수 학습이 가능하도록 교재의 재구성이나 교수 학습 방법의 다양화, 개별화를 통하여 대응할 수 있었다. 그런데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실시 후 14년이라는 세월 동안 언어 영역에 출제되는 제반 문제의 유형이나 수준을 보면 과연 어느 수준까지 지도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수준까지 지도할 만한 역량, 시간, 자료가 과연 구비되어 있는지를 의심할 정도로 쓰기, 듣기, 문학, 비문학, 문법 등의 영역이 전문화, 세분화, 현대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언어 영역’과 국어 교과서와의 관계를 재조명해 봄으로써 학생과 밀착된 교과서, 학생이 현실적으로 방

향을 잡고 실제적인 적응력을 기를 수 있는 교과 서로의 발전을 기대하면서 감히 제언으로 언급하기로 한다.

참고적으로 국어 교과서의 내용 체계와 관련한 내용은 국어 교사용 지도서(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편찬)를 참고하였고,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언어 영역’ 학습 방법과 관련한 내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2007년 3월에 각 학교에 배부한 내용을 참고하였다.

2.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편찬 방향

- 가. 교육과정의 정신을 반영하는 교과서
 - 나.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교육 체제에 적합한 교과서
 - 다. 학습자 중심의 다양하고 질 높은 국어 교과서
 - 라. 국어과 교수 학습 평가의 방법
- 학습자의 성취 수준을 판단할 때에는 과제의 성격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 방법을 활용한다.
- (가) 듣기 영역의 평가는 관찰에 의한 누가 기록, 지필 검사 등의 방법을 활용한다.
 - (나) 말하기 영역의 평가는 직접 평가 방법을 위주로 하되, 관찰에 의한 누가 기록 등의 방법을 활용한다.
 - (다) 읽기 영역의 평가는 선다형 검사, 빈 칸 메우기 검사, 중요도 평정법, 요약하기, 관찰에 의한 누가 기록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다.
 - (라) 쓰기 영역의 평가는 직접 평가 방법을 위주로 하되, 총체적 평가 분석적 평가 관찰에 의한 누가 기록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다.
 - (마) 국어 지식 영역의 평가는 지필 평가, 면접법, 조사법 등을 사용하여 국어 지식과 그 지식의 적응력을 평가한다.
 - (바) 문학 영역의 평가는 선다형, 논술형, 면접법, 관찰에 의한 누가 기록 등 다양한 방법

을 사용하여 작품의 수용과 창작 능력을 평가한다.

3.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언어 영역 학습 방법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언어 영역의 학습 방법은 국어 교과서 편찬 방향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세부적이고 심화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 가. 듣기에서는 음성 언어 자료를 바탕으로 듣기 능력을 측정한다.
 - 일상 대화, 토의, 토론, 광고, 뉴스, 강연 등을 폭넓게 접하면서 내용을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 창의적으로 이해하기
 - 듣는 내용이나 목적에 따라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거나 메모하며 듣는 습관 갖기
 - 듣는 내용을 바탕으로 생략된 내용이나 이어질 내용을 추론하며 듣기
 - 화자의 입장, 관점, 의도를 파악하며 듣기
 - 화자가 제시하는 주장이나 근거, 내용의 전개 방식이 적절한지 비판하며 듣기
 - 화자의 말하기에 나타나는 특징을 파악하며 듣기
 - 화자의 말하기가 어법과 맥락에 맞는지 평가하며 듣기 등
- 나. 쓰기에서는 내용의 생성과 조직, 표현, 고쳐쓰기 등 글쓰기의 과정과 기본 원리를 이해하여야 한다.
 - 주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양하게 생성하고 통일성 있게 정리하기
 - 주제에 적합한 자료들을 여러 가지 매체에서 수집하여 조직하기
 - 주어진 자료를 해석하고 내용을 생성하여 표현하기
 - 자료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 글에서 맞춤법, 표준어, 띄어쓰기 등 어문 규범에 맞지 않은 것을 찾아 고쳐 쓰기
- 글을 읽고 표현의 적절성을 판단하며 고쳐 쓰기
- 글의 개요를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평가하기
- 관점이나 표현 방식이 다른 글을 읽고 글의 효과 분석하기 등

다. 어휘 어법에서는 어휘의 지시적 문맥적 비유적 의미, 기초적인 한자, 속담이나 고사성어 등의 어휘 관련 내용 및 어문 규범과 문장 문단 쓰기, 문맥과 문체 표현 등의 어법 관련 내용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지 측정한다.

라. 읽기(문학)에서는 고전 시가, 고전 산문, 현대시, 현대 소설, 수필, 희곡이나 시나리오 등이 지문으로 제시된다.

- 주제 의식, 서술 방식 등에 주의하며 다양한 문학 작품을 두루 읽기
- 인물의 성격과 심리, 사건의 진행 과정, 갈등의 본질, 작가의 태도 등을 입체적으로 파악하며 읽기
- 사건과 배경, 작품에 반영된 사회 문화적 맥락 등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며 읽기
- 작품과 작품 비평, 고전 문학 작품과 현대 문학 작품 등을 서로 관련지어 감상하고 문학사를 이해하기
- 작품에 나타난 언어의 함축적 의미와 화자의 심정 등을 추측하기
- 작품 속의 상황을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파악하기
- 문학 작품이 주는 효용성을 생각하며 감상하기 등

마. 읽기(비문학)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글을 접하여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배경 지식을 넓히고, 어휘력을 신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읽기(비문학)에서는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생활, 언어 등의 분야에 대한 지문이 제시된다.

- 글에 제시된 정보를 정리하며 읽는 습관 갖기
- 평소 글을 읽을 때 글의 내용을 사실적으로 파악하며 꼼꼼하게 읽는 습관 갖기
- 폭넓고 다양한 독서를 통하여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생활, 언어 등의 분야에서 다루는 기본 개념이나 대상을 이해하기
-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글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상황과 연계하여 이해하기
- 글의 내용, 내용의 전개 방식, 표현의 적절성에 대하여 비판하며 읽기
- 글을 읽을 때 모르는 어휘는 사전을 찾아보거나 문맥을 통하여 의미를 파악하기
- 글의 내용과 관련하여 백과 사전, 책,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개념과 기능 파악하기 등

4. 국어 교과서에 대한 제언

현재 제7차 교육과정 10학년 ‘국어’(상 하)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는 출제되지 않는다. 한국 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국사’를 제외한 국민 공통 기본 교과와 제2외국어 및 ‘한문’을 제외한 일반 선택 과목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직접 포함시키기보다는 학교 단위의 시험을 통해서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고등학교 국어 교과의 2, 3학년 선택 과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국민 공통 기본 과목(10 학년)	선택 과목(1112 학년)	
국어(8)	일반 선택 과목	심화 선택 과목
	국어 생활(4)	화법(4), 독서(8), 작문(8), 문법(4), 문학(8)

이제는 언어 영역의 시험 수준과 제시 내용의 상향에 따라
10학년 ‘국어’ 교과서의 내용 수준도 상향될 필요가 있다. 교과서의 수준 높은 내용과
행동 영역에 따른 구성은 교과서의 질적 수준을 높임과 동시에 부교재로만 휘둘리는, 그래서
교과서는 그저 그런, 기본적 수준이며 ‘언어 영역에 출제도 되지 않는데
왜 깊이 파고드는가’ 라는 의식을 불식시킬 수 있다.

단위 학교에서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을 보면 일반 선택 과목에서 ‘국어 생활’, 그리고 심화 선택 과목에서 2~3과목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본 교사가 재직하는 학교는 전체 6학급 이하의 소규모 학교로서, 국어 교사 2명이 10학년 ‘국어’, 일반 선택 과목 ‘국어 생활’, 심화 선택 과목 ‘작문’과 ‘문학’ 2과목만 선택하여 수업하고 있다. 즉,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요구하고 있는 여러 영역과 학습 방법에 수준 높게 접근할 수 있는 선택 과목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 경우에 언어 영역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 영역, 즉 듣기, 쓰기, 읽기와 관련한 기본적 내용은 10학년 ‘국어’ 시간에 기본 원리나 개념 등에 대한 이해는 가능하다 하더라도, 행동 영역, 즉 어휘 어법, 사실적 사고 능력, 추론적 사고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 창의적 사고 능력 등은 보다 수준 높고 심화된 내용이 제시된, 실제 적용 가능한 심화 선택 과목 교과서를 통하여 접근할 수밖에 없다.

고등학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10학년 ‘국어’ (상 하)는 배우게 되어 있다. 이제는 언어 영역의 시험 수준과 제시 내용의 상향에 따라 10학년 ‘국어’ 교과서의 내용 수준도 상향될 필요가 있다. 교과서의 수준 높은 내용과 행동 영역에 따른 구성은 교과서의 질적 수준을 높임과 동시에 부교재로만 휘둘리는, 그래서 교과서는 그저 그런, 기본적 수준이며 ‘언어 영역에 출제도 되지 않는데 왜

깊이 파고드는가’ 라는 의식을 불식시킬 수 있다.

실제로 1994년에 시행된 언어 영역에 제시된 문학 관련 작품이나 작가를 보더라도 그 당시에는 이미 우리에게 알려진 한용운, 이육사, 조지훈, 박목월, 황순원, 정지용 등의 친숙한 작가의 작품이 주를 이루었으나 현재에 와서는 1980년대 이후의 시대 현실이나 그 시대에 활동하였던 작가 중심의 작품에 이미 출제되기 시작하고 있다. 갈수록 언어 영역에서 새로운 작가와 새로운 작품을 접하는데 있어 기존 10년 전 교과서 게재 작가와 작품에 대한 이해만으로는 시대의 변화 양상, 의식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등을 따라잡을 수 없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교과 교육과정의 내용적 적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학습 내용의 양과 난이도를 교육과정 수시 개정과 함께 수시로 수정 보완해야만 한다. 교과서 성격과 내용과 평가는 매우 밀접하다. 평가를 통하여 목표 도달 여부를 판별하며 환류되기 때문이다.

이제 전국의 대학 진학을 앞둔 고등 학생들이 정말로 국어 교과서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보다 효율적인 대처를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연**

오늘의
교과서

출판인(22)

고영목

-(주)도서출판 디딤돌 사장-

1 90년대 중반 대학 입시가 학력 고사에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으로 변화하면서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교수 학습의 방향을 잡지 못해 혼란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학습 참고서에 대한 기존의 고정 관념과 문법을 깨고 새로운 감각의 학습 방법을 제시하며 화려하게 등장한 출판사가 바로 디딤돌이다. 디딤돌 출판사는 이후 학습물 출판업계에 펼쳐진 새로운 패러다임 시대를 연 선도 출판사로 인정받고 있다. 이 회사의 고영목 사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니다. 또한 ‘개념 원리’라는 수학 기본서 브랜드와 월간 ‘봄봄’ 학습지를 펴내면서 1990년대 고등 학습서의 붐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현재는 초 중 고 전 학교급을 망라해 주도적인 학습서의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초등에서는 ‘디딤돌 초등 수학’을 필두로 전과목 상품이 각광받고 있으며, 중학에서는 교과서 연계 상품인 자습서, 평가집을 비롯해 ‘투탑’이라는 브랜드 상품이 지속적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고등의 내신서, 기본서, 수능서, 논술서까지 아울러 총 400여 종의 상품이 꾸준히 소비자와 만나고 있습니다.

① 현재 도서출판 디딤돌이 있기까지 성장 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회사는 출판 운동과 교육 민주화 활동 정력이 있는 몇몇 사람이 중심이 되어 1992년 설립하였으며, ‘깊이 있는 새로움’이라는 출판 이념을 토대로 중 고등 학습물 출판업계에 새바람을 일으키며 등장하였습니다.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기업 문화에 바탕을 두고 학습자의 입장을 고려한 개성 있는 책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수학 능력 시험 시대의 시작과 함께 수능 학습의 표준을 제시한 ‘수능 디딤돌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 상품은 특히 언어 영역 기본편, 종합편 등 지금은 일반 명사가 되다시피한 수능 학습서 라인업을 창조한 것으로 유명함

② 학습 출판 시장에서 디딤돌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시다시피 1990년대 중반 대학 입시가 수학 능력 평가 체제로 바뀐 것은 교육 당사자뿐만 아니라, 교육 관련 산업계에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수능 환경에 걸맞는 새로운 학습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당연히 교수 학습상의 변화를 요구받게 되었고, 출판계로서도 이전과 같은 지식 압축형 내지 지식 나열형 학습서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많은 부분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전 학력 고사 시대를 대표하는 출판사들은 이러한 수능 환경의 맥락을 정확히 짚어 내지 못하고 이전의 관성으로 학

습물을 재생산해 내는 오류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교사는 교사대로 합리적인 교수법과 자료에 목말라하고, 학생은 학생대로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학습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해 답답해하던 상황에서 학습자 입장에서 설계와 가공이라는 새로운 양식을 제시하면서 디딤돌 학습서가 등장한 것입니다. 즉, 디딤돌이 학습물 시장에 미친 가장 큰 영향의 하나는 학습자 중심의 사고와 개발이라는 패러다임을 만들어 냈다는 것입니다. '수능서'에서 출발한 이 패러다임은 '봄봄'이라는 학습지에 적용되고, 그 이후에 '제7차형 교과서'의 모델을 제시하면서 절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바탕에는 내용의 질 향상을 위한 원고에 대한 투자, 디자인과 재료의 향상, 수요자 중심의 조사와 기획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학습의 효율성 및 편의를 고려한 학습 설계와 디자인을 위해 소비자들로부터 상시적인 피드백을 받는 구조를 만드는 데도 집중했습니다. 이처럼 '학습자의 입장에서 책을 만든다.'는 기업의 정신과 이에 따른 새로운 시도들이 반영된 디딤돌의 책들이 기존의 학습물과는 다른 개성과 10대 학습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감성을 담음으로써 차별성을 만드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최근에 등장해서 각광받는 여러 신생 출판사들도 크게 보면 이 과정에서 다 저희가 제시한 모델을 차용, 확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창하게 표현하면 학습 참고서 시장은 디딤돌 전과 디딤돌 후로 나누어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③ 제7차 교육과정기에서는 교과서 개발도 두드러진 성과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성공의 이유와 시사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에는 한정된 지식을 암기하고 축적하는 방식으로는 더이상 사회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넘쳐나는

정보와 지식 중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선택할 수 있고, 자신의 필요에 맞도록 가공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급격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정보를 효율적으로 분석 종합해 새로운 지식을 창조해 나가는 능력 등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더욱 중요한 시대가 된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능력은 기존의 전통적인 교육이론에 기반한 단순한 지식 습득만으로는 길러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보화 시대의 변화하는 환경과 이에 걸맞는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교육 이론으로서 구성주의가 주목받게 된 것입니다. 구성주의가 호응을 얻는 가장 큰 이유는 21세기가 요구하는 인간상은 '창의적이며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자기 주도적 인간'이며, 구성주의는 이러한 자기 주도적 인간형을 길러 내는 데 적합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성주의'는 한 마디로 '자각'이 중요하다는 이론입니다. 좀 길게 말하면, 바로 결론을 주지 말고 학습자가 스스로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과정을 조직하라는 이론이죠. 즉, 교수자(필자)가 학습자(독자)에게 기성품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수하지 말고, 학습자가 스스로 그러한 깨달음에 도달하거나 새로운 지식을 창조(구성)할 수 있게 안내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디딤돌 교과서는 그 방법을 '과제와 활동 중심'에서 찾았습니다. 다양한 과제 풀이와 탐구 활동을 통해, 학습자가 개념과 원리를 스스로 습득해 가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 또한 앞서서도 말한 것처럼 학습자 입에서의 개발이라는 패러다임을 교과서에 적용한 것이고, 이러한 정신의 구현에 집중한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 비결이라면 비결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교과서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용적, 형식적 질 개선에 투자를 집중하였습니다. 오랜 현장 경험을 가지고 있는 현직 교사의 주도적 참여와 과목별 교사 모임의 오랜 연구



현재와 같은 교과서 가격으로는 이익을 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심을 이익 배분율의 문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익 구조의 개선에도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교과서의 원가를 이루는 많은 요소들 중에서 개발비에 대해 인색한 것도
사실입니다. 교육 당국도 이제 저가 교과서 정책을 폐기해야 합니다.



성과물의 결합 등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특히, 생산 과정에 참여하는 저자, 편집자, 검토위원, 디자이너, 사진가, 삽화가 등이 모여 생각을 공유하는 과정을 치열하게 거침으로써 보다 완성도 높은 교과서의 개발이 가능했습니다.

④ 교과서 정책이나 발행 제도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교과서 개발 과정을 거치고 교과서와 관련한 일들을 하면서 교과서 출판 환경이 개선되고 질이 향상되려면 어떠한 변화들이 필요한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의 질이 내적 외적으로 많이 좋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과서 출판 현장에서 보다 더 현실적으로 느끼는 문제 또한 적지 않습니다. 할 말이 많지만 우선 이번 기회에 교과서의 질 향상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두 가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차기 교육과정 과학 교과서의 외형 체제를 자율화한 것처럼 체제 형식상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훨씬 질 높은 교과서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규제를 풀어 교수 학습하기에 좋은 교과서가 공급된다면 이를 통해 공교육도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외국의 많은 학습 출판물들을 접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우리의 학습 참고서 출판 수준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 있어서는 외국 교과서의 질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질 높은 교과서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잠재해 있으나 제도나 정책상의 어떤 부분이 가로막고 있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물론, 외형 체제를 완전 자율화할 경우 교과서 분량이 늘어나 학습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가격 상승도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는 지식량 중심의 학습이 아닌 개념과 원리 중심의 교수 학습이 이루어진다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격 상승 문제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연간 사교육비가 17조 원인 것에 비해 교과서 구입에 들어가는 총 비용이 2400억 원 정도 규모인 것을 감안하면, 교과서 구입 비용이 조금 늘어나더라도 공교육 중심으로 갈 수만 있다면 감내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교과서 정책이 지금까지 처럼 저가 정책에 머물러서는 공교육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교과서 이익 구조의 개선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교과서 출판사들이 교과서를 출원해 합격되는 비율은 채 20~30%에도 못 미칩니다. 또, 현재와 같은 교과서 가격으로는 이익을 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심을 이익 배분율의 문제에

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익 구조의 개선에도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교과서의 원가를 이루는 많은 요소들 중에서 개발비에 대해 인식한 것도 사실입니다. 교육 당국도 이제 저가 교과서 정책을 폐기해야 합니다. 교과서를 통해서 적정 이익이 확보되는 구조가 된다면 발행사로서는 상시적인 전담팀을 운영해 관리해 나가고, 교과서 전문 출판사들의 탄생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보다 확실한 질 향상의 방법이 있을까요?

㉕ 우리나라의 교과서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진화, 발전해 가야 한다고 보시지요?

앞서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출판사 입장에서는 교과서 자체를 가지고 수익을 발생시키고 이를 토대로 재투자자의 재원이 마련되는 구조가 된다면 당연히 상시 조직을 통한 연구 개발이 이루어져 더 좋은 교과서 개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교과서 출판은 학습 출판사로서의 이미지가 관리나 저작권에 대한 대응 등의 이유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검정 확대, 수시 교육과정, 이익금의 차등 배분 등의 변화로 인해 자유 경쟁의 토대들이 확대되어 가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결국 교과서 출판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검정 대상의 확대와 검정 체제의 개선을 통한 다양하고 질 높은 교과서의 개발, 판매 이익금의 차등 배분 및 교과서 전문 출판사의 육성을 통한 적정 경쟁 시장 질서의 확립 등.

알면서도 빨리 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음도 미루어 짐작 가능합니다. 그러나 결국 도달할 곳이라면 이르고야 만다는 것은 인류 역사의 많은 부분이 보여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곁에서 자연스러운 많은 것들이 예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이었던 것처럼 말이지요.

㉖ 마지막으로 디딤돌 출판사의 향후 경영 비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디딤돌은 누가 뭐래도 ‘책 잘 만드는 회사’가 되고자 합니다. 입시 제도와 교육 환경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학습 도구 역시 함께 변화할 것입니다. 어떨 때에는 학원이나 과외가 될 수도 있고, 인터넷이나 또 다른 도구들이 당시의 메인스트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어디까지나 각 매체가 담아 내는 지식, 지혜, 정보, 느낌들을 잘 정리해 낸 콘텐츠입니다. 이러한 콘텐츠를 제대로 설계해 만들어 내고 가공하여 학습자의 근원적인 학습 능력의 향상을 가져 오는 것이 바로 디딤돌이 추구하는 가치이며, 외부 환경의 어떠한 변화 속에서도 가장 본질적으로 지켜 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980년대가 ‘학력 평가의 시대’였고, 1990~2010년이 ‘수능의 시대’ 라면, 앞으로는 고등과 대학의 ‘학교 시험의 시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위해 사고와 읽기 쓰기 등 근원적인 부분에서부터 그 가능성과 해결점을 다시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의 양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결국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창의적 인간형이 주도하는 역사가 될 것임은 자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 디딤돌은 단순히 주어진 지식을 습득하는 학습자가 아닌 자기 주도적인 학습자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콘텐츠와 방법론을 제공하는 학습 설계자로서 치열한 연구, 개발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㉖

■ 대담 / 최해홍(한국교과서연구재단 사무국장)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개발추진일정

(교육인적자원부 발표 : 2007. 6. 20.)

구분	학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영어 수학	초1, 2 중1, 고1	개발	→	실험(검정)	적용				
	초3, 4 중2 고3 선택		개발	→	실험(검정)	적용	적용(고3)		
	초5, 6 중3			개발	→	실험(검정)	적용		
과학	초3 초4		개발	→	실험	적용			
	초5 초6			개발	→	실험	적용		
초등 학교 (그 외)	1, 2		개발	실험	적용				
	3, 4			개발	실험	적용			
	5, 6				개발	실험(검정)	적용		
중학교	1			개발	검정 (현장 검토)	적용			
	2				개발	검정	적용		
	3					개발	검정	적용	
고등 학교 (인문계)	공통 교과				개발	검정	적용		
	선택					개발	검정 (현장 검토)	적용	
							개발	검정 (현장 검토)	적용
고등 학교 (전문계)	계열 필수				개발	검정	적용		
	선택					개발	검정 (현장 검토)	적용	
							개발	검정 (현장 검토)	적용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81 호(2007. 6. 21.)

초 중등학교교과용도서의구분고시

1. 초등학교

교과	국정 도서	검정 도서	인정 도서
우리들은 1학년			교과서, 지도서 : 우리들은 1학년(시도별) 【32책】
바른 생활	○ 교과서: 바른 생활 1-1, 2/2-1, 2 생활의 길잡이 1-1, 2/2-1, 2 ○ 지도서: 바른 생활 1-1, 2/2-1 【12책】		
슬기로운 생활	○ 교과서: 슬기로운 생활 1-1, 2/2-1, 2 ○ 지도서: 슬기로운 생활 1-1, 2/2-1, 2 【8책】		
즐거운 생활	○ 교과서: 즐거운 생활 1-1, 2/2-1, 2 ○ 지도서: 즐거운 생활 1-1, 2/2-1, 2 【8책】 ○ 보조 자료(CD): 4종		
국어	○ 교과서: 듣기 말하기 1-1, 2/2-1, 2/3-1, 2 읽기 1-1, 2/2-1, 2/3-1, 2/4-1, 2/5-1, 2/6-1, 2 쓰기 1-1, 2/2-1, 2/3-1, 2 듣기 말하기 쓰기 4-1, 2/5-1, 2/6-1, 2 ○ 지도서: 국어 1-1, 2/2-1, 2/3-1, 2/4-1, 2/5-1, 2/6-1, 2 【42책】		
도덕	○ 교과서: 도덕 3-1, 2/4-1, 2/5/6 생활의 길잡이 3-1, 2/4-1, 2/5/6 ○ 지도서: 도덕 3-1, 2/4-1, 2/5/6 【18책】		
사회	○ 교과서: 사회 3-1, 2/4-1, 2/5-1, 2/6-1, 2 사회 탐구 4-2/5-1, 2/6-1, 2 사회과 부도 4~6 ○ 지도서: 사회 3-1, 2/4-1, 2/5-1, 2/6-1, 2 【22책】		교과서: 사회과 탐구(시도별) 【16책】
수학	○ 교과서: 수학 1-1, 2/2-1, 2/3-1, 2/4-1, 2/5-1, 2/6-1, 2 수학 익힘 1-1, 2/2-1, 2/3-1, 2/4-1, 2/5-1, 2/6-1, 2 ○ 지도서: 수학 1-1, 2/2-1, 2/3-1, 2/4-1, 2/5-1, 2/6-1, 2 【36책】		
과학	○ 교과서: 과학 3-1, 2/4-1, 2/5-1, 2/6-1, 2 실험 관찰 3-1, 2/4-1, 2/5-1, 2/6-1, 2 ○ 지도서: 과학 3-1, 2/4-1, 2/5-1, 2/6-1, 2 【24책】		

교과	국정 도서	검정 도서	인정 도서
실과		○ 교과서: 실과 5/6 ○ 지도서: 실과 5/6 【4 책】	
체육	○ 교과서: 체육 3/4 ○ 지도서: 체육 3/4 【4 책】	○ 교과서: 체육 5/6 ○ 지도서: 체육 5/6 【4 책】	
음악	○ 교과서: 음악 3/4 ○ 지도서: 음악 3/4 ○ 보조 자료(CD): 2종 【4 책】	○ 교과서: 음악 5/6 ○ 지도서: 음악 5/6 【4 책】 ○ 보조 자료(CD): 2종	
미술	○ 교과서: 미술 3~4 ○ 지도서: 미술 3~4 【2 책】	○ 교과서: 미술 5~6 ○ 지도서: 미술 5~6 【2 책】	
영어		○ 교과서: 영어 3/4/5/6 ○ 지도서: 영어 3/4/5/6 【8 책】 ○ 보조 자료(CD): 8종(교사용, 학생용)	
특별 활동	○ 지도서: 자치 활동/적응 활동/계발 활동/봉사 활동/행사 활동 【5 책】		
총 계	185 책(교과서 117 책, 지도서 68 책) 보조 자료 6종	22 책(교과서 11 책, 지도서 11 책) 보조 자료 10 종	48 책(교과서 32 책, 지도서 16 책)

2. 중학교

교과	국정 도서	검정 도서
국어		○ 교과서: 국어 1-1, 2/2-1, 2/3-1, 2 생활 국어 1-1, 2/2-1, 2/3-1, 2 ○ 지도서: 국어 생활 국어 1-1, 2/2-1, 2/3-1, 2 【18 책】
도덕		○ 교과서: 도덕 1/2/3 ○ 지도서: 도덕 1/2/3 【6 책】
사회		○ 교과서: 사회과 부도/사회 1/3/역사 부도/역사(상)/(하) ○ 지도서: 사회 1/3/역사(상)/(하) 【10 책】
수학		○ 교과서: 수학 1/2/3 수학 1 익힘책/수학 2 익힘책/수학 3 익힘책 ○ 지도서: 수학 1/2/3 【9 책】
과학		○ 교과서: 과학 1/2/3 ○ 지도서: 과학 1/2/3 【6 책】
기술 가정		○ 교과서: 기술 가정 1/2/3 ○ 지도서: 기술 가정 1/2/3 【6 책】
체육		○ 교과서: 체육 1/2/3 ○ 지도서: 체육 1/2/3 【6 책】
음악		○ 교과서: 음악 1/2/3 ○ 지도서: 음악 1/2/3 ○ 보조 자료(CD): 3종 【6 책】
미술		○ 교과서: 미술(1, 2, 3) ○ 지도서: 미술(1, 2, 3) 【2 책】

교과	국정 도서	검정 도서
영어		○ 교과서: 영어 1/2/3/영어 1 학습 활동책/영어 2 학습 활동책/영어 3 학습 활동책 ○ 지도서: 영어 1/2/3 ○ 보조 자료(CD): 3종 【9 책】
한문		○ 교과서: 한문 1/2/3 ○ 지도서: 한문 1/2/3 【6 책】
정보		○ 교과서: 정보 1/2/3 ○ 지도서: 정보(1, 2, 3) 【4 책】
환경		○ 교과서: 환경 ○ 지도서: 환경 【2 책】
생활 외국어	○ 교과서: 생활 독일어/생활 프랑스어/생활 스페인어/생활 러시아어/생활 아랍어 ○ 지도서: 생활 독일어/생활 프랑스어/생활 스페인어/생활 러시아어/생활 아랍어 ○ 보조 자료(CD): 5종 【10 책】	○ 교과서: 생활 중국어/생활 일본어 ○ 지도서: 생활 중국어/생활 일본어 ○ 보조 자료(CD): 2종 【4 책】
특별 활동	○ 지도서: 자치 활동/적응 활동/계발 활동/봉사 활동/행사 활동 【5 책】	
총 계	15 책(교과서 5 책, 지도서 10 책) 보조 자료 5 종	94 책(교과서 55 책, 지도서 39 책) 보조 자료 8 종

3. 고등학교

가. 보통 교과

교과	국정 도서	검정 도서
국어		○ 교과서: 국어(상)/(하)/화법/독서/작문/문법/문학(상)/(하)/매체 언어 ○ 지도서: 국어(상)/(하) 【11 책】
도덕		○ 교과서: 도덕/현대 생활과 윤리/전통 윤리/윤리와 사상 ○ 지도서: 도덕 【5 책】
사회		○ 교과서: 사회/한국 지리/세계 지리/경제 지리/법과 사회/정치/경제/사회 문화/지리 부도/역사/역사 부도/한국 문화사/세계 역사의 이해/동아시아사 ○ 지도서: 사회/역사 【16 책】
수학		○ 교과서: 수학/수학 익힘책/수학의 활용/수학의 활용 익힘책/수학Ⅰ/수학Ⅰ 익힘책/미적분과 통계 기본/미적분과 통계 기본 익힘책/수학Ⅱ/수학Ⅱ 익힘책/적분과 통계/적분과 통계 익힘책/기하와 벡터/기하와 벡터 익힘책 ○ 지도서: 수학 【15 책】
과학		○ 교과서: 과학/물리Ⅰ/화학Ⅰ/생명 과학Ⅰ/지구 과학Ⅰ/물리Ⅱ/화학Ⅱ/생명 과학Ⅱ/지구 과학Ⅱ ○ 지도서: 과학 【10 책】

교과	국정 도서	검정 도서
기술 가정		○ 교과서: 기술 가정/가정 과학/창업과 경영/공학 기술/해양 과학/정보/농업 생명 과학 ○ 지도서: 기술 가정 【8 책】
체육		○ 교과서: 체육/운동과 건강 생활/스포츠 문화/스포츠 과학 ○ 지도서: 체육 【5 책】
음악		○ 교과서: 음악/음악의 이해/음악과 사회 ○ 지도서: 음악 ○ 보조자료(CD): 1종 【4 책】
미술		○ 교과서: 미술/미술과 삶/미술 감상/미술 창작 ○ 지도서: 미술 【5 책】
외국어	○ 교과서: 아랍어 I/아랍어 II 【2 책】	○ 교과서: 영어/영어 학습 활동책/영어I/영어II/실용 영어 회화/심화 영어 회화/영어 독해와 작문/심화 영어 독해와 작문/독일어I/프랑스어I/스페인어I/중국어I/일본어I/러시아어I/독일어II/프랑스어II/스페인어II/중국어II/일본어II/러시아어II ○ 지도서: 영어 【21 책】 ○ 보조 자료(CD): 1종(영어)
한문		○ 교과서: 한문I/한문II 【2 책】
교양	○ 교과서: 안전과 건강 【1 책】	
특별 활동	○ 지도서: 자치 활동/적응 활동/계발 활동/봉사 활동/행사 활동 【5 책】	
총 계	8책(교과서3책, 지도서 5책)	102책(교과서 90책, 지도서 12책) 보조 자료 2종

나. 전문 교과

교과	국정 도서	검정 도서
농업 산업계	○ 교과서: 농업 이해/농업 정보 관리/농업과 관광/재배/숲과 인간/원예/생활 원예/동물 자원/농업과 물/식품 과학/조경/농산물 유통/환경 보전/농업 기초 기술/생물 공학 기초/농업 경영/생산 자재/누에와 비단/농업 기계/농촌과 농지 개발/식품 위생/원예 기술I/사육 기술I/농업 기계 공작/농업 기계 기술I/농업 토목 기술I/식품 가공 기술I/조경 기술I/농산물 유통 관리I/환경 관리I/작물 생산 기술/산림 자원 기술/원예 기술II/사육 기술II/농업 기계 기술II/농업 토목 기술II/식품 가공 기술II/조경 기술II/농산물 유통 관리II/환경 관리II 【40 책】	
공업계	○ 교과서: 기초 제도/토목 제도/건축 설계 제도/디자인 제도/선박 제도/기계 일반/전기 일반/공업 영어/기계 설계/기계 공작법/기계 기초 공작/공작 기계I/전자 기계 이론/전자 기계 회로/금속 제조/재료 가공/주조/전기 회로/전기 기기/전력 설비I/전자 회로/통신 일반/디지털 논리 회로/역학/토목 설계/토목 재료 시공/건축 계획 일반/디자인 일반/색채 관리/공업 화학/기능성 세라믹/구조 세라믹/세라믹 디자인/발효 공업/섬유 재료/방직 방사/인쇄 일반/사진 인쇄 재료/평판 인쇄/자동차 기관/자동차 배기/선박 이론/항공기 일반/항공기 전자 장치/환경 공업 일반/컴퓨터 게임 기획/컴퓨터 게임 프로그램/컴퓨터 게임 그래픽/만화 애니메이션 기초/애니메이션 제작/만화 창작/영화 방송 제작/촬영 조명/방송 시스템/원동기/유체 기기/공기 조화 설비/산업 설비/금형 제작/전자 기계 공작/전자 기계 제어/로봇 기초/로봇 제작/재료 일반/금속 처리(상)/전기 응용/전기 전자 측정	○ 교과서: 공업 입문/기계 제도/정보 기술 기초 【3 책】

교과	국정 도서	검정 도서
	/자동화 설비/전자 기기/전자 전산 응용/계측 제어/정보 통신/통신 시스템/측량/토목 일반/수리 토질/지적 전산/지적 실무/건축 구조/건축 목공/건축 시공 I /조형/제품 디자인/공예/시각 디자인/컴퓨터 그래픽/단위 조작 공정 제어/제조 화학/ 분석 화학/세라믹 원리 공정/식품 제조 기계/식품 분석/식품 공업 기술/제조 봉제/염색 가공/특수 인쇄/사진 전자 제판/사진/자동차 건설 기계/자동차 전기 전자 제어/건설 기계 구조 정비/자동차 차체 수리/선박 구조/선박 건조/항공기 기계/항공기 기관/항공기 장비/대기 소음 방지/수질 관리/폐기물 처리/공작 기계Ⅱ /금속 처리(하)/전력 설비Ⅱ /건축 시공Ⅱ 【114책】	
상업 정보계	○ 교과서: 경영과 법/광고와 마케팅/기업 회계/금융과 생활/국제화와 기업 경영/창업 일반/전자 상거래 일반/멀티미디어 일반/기업 자원 관리/경영 정보 시스템/전산 회계/전자 무역과 국제 상무/커뮤니케이션 실무/유통 정보 관리/물류 관리 【15책】	○ 교과서: 상업 경제 / 원가 회계/세무 회계/무역 영어 / 회계 원리 / 컴퓨터 일반 / 기업과 경영 【7책】
수산 해운계	○ 교과서: 수산 일반/해사 일반/해양 일반/수산 해운 정보 처리/수산 생물/수산물 유통/해양 환경/해양 오염/열기관/잠수 기술/수산 경영 일반/해양 생산 기술(상)/수산 양식(상)/양식 생물 질병/수산 가공(상)/냉동 일반/냉동 기계/냉동 공조 실무/선박 보조 기계/선박 전기 전자/기계 설계 공작/항해/선박 운용/해사 법규/해사 영어/선화 운송/전자 통신 공학/전자 통신 기기/전자 통신 운용/생선회 실무/해양 레저 관광/항만 물류 일반/해양 정보 관리/해양 생산 기술(하)/수산 양식(하)/수산 가공(하) 【36책】	
가사 실업계	○ 교과서: 인간 발달/식품과 영양/급식 관리/의복 재료 관리/패션 디자인/자수와 편물/주거/영 유아 교육 원리/관광 일반/간호의 기초/기초 복지 서비스/헤어 미용/공중 보건/한국 조리/제과 제빵/한국 의복 구성/서양 의복 구성/실내 디자인/디스플레이/영 유아 교육 프로그램/관광 경영 실무/관광 서비스 실무/관광 영어/관광 일본어/관광 중국어/보건 간호/노인 생활 지원/피부 관리/메이크업/동양 조리/서양 조리/가구 디자인/영 유아 놀이 교육/영 유아 생활 지도/관광 외식 조리/기초 간호 임상 실무 【36책】	
과학계	○ 교과서: 물리 실험/화학 실험/생명 과학 실험/지구 과학 실험/정보 과학 I/과학사/전자 과학/환경 과학/현대 과학과 기술/정보 과학Ⅱ/고급 수학/고급 물리/고급 화학/고급 생명 과학/고급 지구 과학/과제 연구 【16책】	
체육계	○ 교과서: 스포츠 개론/스포츠 경기 과학/체육과 진로 탐구/육상 운동/체조 운동 【5책】	
예술계	○ 교과서: 음악 이론/미술 이론/무용의 이해/음악사 감상/미술사/문학의 이해/연극의 이해/영화의 이해/사진의 이해 【9책】	
외국어계	○ 교과서: 심화 영어/영어 청해/영어 회화Ⅰ/영어 독해/영어 작문/영어권 문화Ⅰ/영어 문법/기초 독일어/독일어 청해/독일어 독해/독일어 작문/독일어 문법/기초 프랑스어/프랑스어 청해/프랑스어 독해/프랑스어 작문/프랑스어 문법/기초 스페인어/스페인어 청해/스페인어 독해/스페인어 작문/스페인어 문법/기초 중국어/중국어 청해/중국어 독해/중국어 작문/중국어 문법/기초 일본어/일본어 청해/일본어 독해/일본어 작문/일본어 문법/기초 러시아어/러시아어 청해/러시아어 독해/러시아어 작문/러시아어 문법/기초 아랍어/아랍어 청해/아랍어 독해/아랍어 작문/아랍어 문법/독일어 회화Ⅰ/독일어권 문화Ⅰ/프랑스어 회화Ⅰ/프랑스어권 문화Ⅰ/스페인어 회화Ⅰ/스페인어권 문화Ⅰ/중국어 회화Ⅰ/중국 문화Ⅰ/일본어 회화Ⅰ/일본 문화Ⅰ/러시아어 회화Ⅰ/러시아 문화Ⅰ/아랍어 회화Ⅰ/아랍 문화Ⅰ/영어 회화Ⅱ/영어권 문화Ⅱ/독일어 회화Ⅱ/독일어권 문화Ⅱ/프랑스어 회화Ⅱ/프랑스어권 문화Ⅱ/스페인어 회화Ⅱ/스페인어권 문화Ⅱ/중국어 회화Ⅱ/중국 문화Ⅱ/일본어 회화Ⅱ/일본 문화Ⅱ/러시아어 회화Ⅱ/러시아 문화Ⅱ/아랍어 회화Ⅱ / 아랍 문화Ⅱ 【72책】	
총 계	343 책(교과서)	10 책 (교과서 10 책)

※ 인정도서심의회 심의 없는 인정 도서

고등학교 전문 교과: 총 82 책

컴퓨터 관련 교과(13 책)

-공업(3 책)

컴퓨터 구조, 시스템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

-상업(10 책)

자료 처리, 프로그래밍 실무, 소프트웨어 개발, 사무 관리 실무, 멀티미디어 기획, 멀티미디어 실무, 웹 프로그래밍, 인터넷 쇼핑몰 관리, 전자 상거래 실무, 인터넷 마케팅

예 체능 교과(44 책)

-체육계(18 책)

개인 대인 운동, 단체 운동, 체력 운동, 수상 운동, 투기 운동, 빙상 설상 운동, 표현 창작 운동, 전문 스포츠 경기 체력, 전문 스포츠 경기 초급, 전문 스포츠 경기 중급, 전문 스포츠 경기 고급, 전문 스포츠 경기 실습, 스포츠 교육, 코칭론, 건강 관리, 스포츠 행정 경영, 전공 실기, 전공 실습

-예술계(26 책)

시창 청음, 합창, 합주, 컴퓨터와 음악, 소묘, 기초 회화, 기초 디자인 공예, 영상 매체와 미술, 미술 감상과 비평, 무용 감상과 비평, 문장론, 고전 문학 감상과 비평, 현대 문학 감상과 비평, 시창작, 소설 창작, 희곡 창작, 매체와 문학, 연극 감상과 비평, 영화 기술, 영화 창작과 표현, 영화 감상과 비평, 기초 촬영, 중급 촬영, 디지털 사진 촬영, 디지털 사진 표현 기법, 사진 감상과 비평

국제 전문 교과(25 책)

-국제계(25 책)

영어 강독, 독일어 강독, 프랑스어 강독, 스페인어 강독, 중국어 강독, 일본어 강독, 러시아어 강독, 아랍어 강독, 국제 정치Ⅰ, 국제 정치Ⅱ, 국제 경제Ⅰ, 국제 경제Ⅱ, 세계 문제, 비교 문화Ⅰ, 비교 문화Ⅱ, 정보 과학, 국제법, 지역 이해, 인류의 미래 사회, 한국의 전통 문화, 한국의 현대 사회, 한국어, 과제 연구Ⅰ, 과제 연구Ⅱ, 예능 실습

※ 상반기 '교과서 출판 교실' 운영 성황리에 실시

○...우리 연구재단은 2007년도 상반기 '교과서 출판 교실' 운영을 참석자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성황리에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출판 교실은 5월 첫 주부터 매주 한 과정(3일 18시간)씩을 5회 운영하여 총 164명이 수료하였습니다.

그 동안 바쁘신 중에도 강의를 맡아 주신 강사님과 출판 교실에 참가해 주신 수강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하반기 '교과서 출판 교실' 운영 계획은 홈 페이지(www.ktrf.re.kr)에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으므로 관심 있는 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제5회 교과서 관련 수필 공모 접수 마감

○...우리 연구재단은 제5회 교과서 관련 수필 공모의 접수 기간을 2007. 6. 1.~2007. 8. 4.로 변경하여 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접수 작품은 심사위원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당선작을 2007. 9. 21.(금)에 우리 연구재단 홈 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 수필 작품집 「교과서, 내 파란 꿈이 자라는 희망의 트랙」 발간

○...우리 연구재단은 지난 4월 교과서 관련 수필 공모 입상 작품집 「교과서, 내 파란 꿈이 자라는 희망의 트랙」을 발간하여 관련 기관 등에 배포하였습니다.

이번 작품집은 2005년도(제3회) 및 2006

년도(제4회)의 금상, 은상, 동상에 입상한 총 48편의 작품을 모아 단행본으로 편찬하였으며, 입상 작품마다 교과서에 대한 감동적인 추억은 물론 교과서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 부설 '교과서정보관' 이용자 크게 늘어.....

○...우리 연구재단 부설 '교과서정보관'은 우리나라 교과서는 물론 미국 등 25개국의 교과서를 소장하고 교과서 개발에 참여하거나 교과서 관련 연구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교과서 전문 도서관 겸 박물관입니다.

최근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서 새로운 교과서 개발을 위한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해 이용자들의 방문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과서정보관 이용은 평일 09:00~17:00, 토요일 09:00~12:00까지 가능하며, 공휴일은 휴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재단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미리 검색하고 방문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 재단 수익용 건물 임대 실시

○...우리 연구재단은 기금의 수익 증대를 위해 수익용 건물을 매입하여 임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대 건물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706-9번지 5층 2,546.1㎡의 건물로서 논현역(7호선)에 인접하여 대중 교통 접근성이 매우 좋아 업무 시설로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기업체의 사옥 또는 사무실의 임차가 필요하신 분은 우리 재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과서 개별 구입 안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전학이나 교과서 분실 등의 사유로 교과서를 개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교과서 발행사 홈페이지, 발행사 직매장, 개별 지정 판매 서점, 지역별 검정 교과서 공급인 판매소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과목 출판사와 저자(지은이)를 정확히 알아야 구입이 편리함을 알려 드립니다.

❑ 교과서 발행사 연락처

구 분	발행사명	전화 번호	홈 페이지	발행 도서 (각 발행사 홈페이지 참조)
검정 교과서	(사)한국검정교과서	(02) 3663-5409~12	www.ktbook.com	※ 중·고등 학교 검정 도서 전과목
국정 교과서	대한교과서(주)	(041) 861-3183(ARS)	www.daehane.com	※ 초등 학교 : 국어, 수학, 영어를 제외한 전체 과목(도덕, 사회, 과학, 실과, 예·체능) ※ 중 학 교 : 국어, 생활 국어(1, 2, 3학년) ※ 고등 학교 : 해양 과학, 공업계, 수산·해운계, 가사·실업계 31책, 2·1 체계
	(주)교 학 사	(02) 7075-120	www.kyohak.co.kr	※ 초등 학교 : 1~6학년 국어(읽기, 말하기·듣기, 쓰기) ※ 중 학 교 : 국사 ※ 고등 학교 : 국어, 문법, 국사, 농업계, 상업계
	(주)금성출판사	(02) 2077-8145	www.kseshop.co.kr	※ 초등 학교 : 3~6학년 영어(영어 CD, 영어 TAPE 포함) ※ 중 학 교 : 생활 외국어 ※ 고등 학교 : 아랍어 I·II, 외국어계
	(주)지학사	(02) 330-5302	www.jihak.co.kr	※ 중 학 교 : 도덕 1, 2, 3학년 ※ 고등 학교 : 도덕, 시민 윤리, 윤리와 사상, 전통 윤리, 생활과 과학, 체육계 5책
	(주)천재교육	(02) 3282-2851	www.chunjae.co.kr	※ 초등 학교 : 1~6학년 수학(수학, 수학 익힘책) ※ 고등 학교 : 확률과 통계, 이산 수학, 과학계 15책
	향우산업(주)	(02) 790-5947		※ 고등 학교 교련

❑ 발행사 직매장

구 분	위 치	전화 번호
(사)한국검정교과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377-2 선일 빌딩 2층(6호선 망원역 부근)	(02) 323-4682~3
대한교과서(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41-10(본사 1층)(7호선 논현역 부근)	(02) 541-8247

※ 기타 개별 지정 판매 서점·지역별 검정 교과서 공급인 판매소 및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cutismoe.gov.kr) 교과서 소식 참고

「교과서연구」

원 · 고 · 모 · 집

「교과서연구」지의 발간에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편집 분야의 〈현장 교육〉, 〈논단〉, 〈단상〉, 〈나의 제언〉,
〈교과서 편집자의 변〉은 독자가 직접 만듭니다.

교육과정과 교과서 관련 연구 활동
교과 운영과 교과서 활용 사례 연구 활동
교과서와 관련된 제언 또는 단상
기타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등

- 원고 매수 : 200자 원고지 30매 기준(A4, 10P 3.5매)
- 원고 제출 : 수시 접수
- 원고료 : 채택된 원고에 대하여 소정의 원고료 지급
- 보내실 곳 : E-mail 접수(editor@ktrf.re.kr)
- 기타 문의 : ☎ (02) 2651-1950 연구지 담당자 앞



재단 한국교과서연구재단
KOREA TEXTBOOK RESEARCH FOUNDATION

HOME | 기관소개 | 교과서정보관 | 교과서연구지 | 교과서출판교실 | 자료실 | 게시판

‘교과서정보관’ 이용 안내

교과서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이 분야의 전문가와 교과용 도서 개발의
기획·집필·편집·제작을 담당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운영 개요

- 우리나라 교과서의 수집 및 보존
- 외국의 교과서 수집 및 보존
- 교육과정·편수 자료의 수집 및 보존
- 교육과정·교과서 제도 관련 자료 수집 및 보존
- 교과서 관련 자료의 DB 및 정보 인프라 구축
- 교과서 관련 연구 단체 협력 체제 구축
- 교과서 및 교육과정 정보 제공
- 교과서 비교 전시회 개최 등

보유 자료

구 분	국 내	국 외	계
교과용 도서	26,045	6,553	32,598
일반 자료	2,521	-	2,521
계	28,566	6,553	35,119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이집트, 중국, 대만, 베트남, 캐나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태국, 이란, 호주,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등의 교과서 보유

열람 시간

구 분	시 간
□ 평일	09 : 00 ~ 17 : 00
□ 토요일	09 : 00 ~ 12 : 00
□ 공휴일	휴관

교통편



- 전철 : 전철 5호선 신정역, 2호선 신정 네거리역 각 3번 출구
- 버스 : 603, 5012, 6614, 6624, 6640 번